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



남양주시복지재단



강남대학교
KANGNAM UNIVERSITY

<< 제 출 문 >>

남양주시 복지재단 귀하

이 보고서를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 04. 30.

주관연구기관명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천 덕 희(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연구원 : 선 미 정(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정 원 미(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허 세 미(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최 은 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II.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제1절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11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11
2. 고령친화도시의 구성요소	13
3. 고령친화도시의 국제네트워크: GNAFCC	16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정책 및 동향	17
1. 국내	17
2. 국외	31
3. 조례	36
제3절 남양주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PEST) 분석	40
1. PEST 분석 개념	40
2. 분석 결과	40

III.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제1절 세계보건기구 8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설계	57
1. WHO 제시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 점검	57
2. 자료수집	58
제2절 남양주시 고령친화진단 (2차자료 분석)	60
1. 고령인구 현황 파악	60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63

IV.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 방안 의견수렴(FGD)

제1절 연구 개요	99
1. 연구방법	99

2. 조사내용 및 분석	100
제2절 남양주시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FGI 분석	100
1. 연구참여자	100
2. 영역별 분석 결과	101
제3절 남양주시 노인 당사자 FGI 분석	117
1. 연구참여자	117
2. 영역별 분석 결과	117
V.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1
1.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남양주시 PEST 환경분석 결과	131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결과	132
3.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방안 의견수렴(FGI) 결과	135
제2절 제언	138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방안	138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WHO 8대영역별 추후 설문문항 구성 안	140
3. 남양주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전략 방안	141
참고문헌	149

표 목 차

<표 1> WHO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	6
<표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8
<표 3>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 및 점검항목	15
<표 4>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국내 가입 현황	16
<표 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21
<표 6>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22
<표 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영역별 세부과제	24
<표 8> 광주광역시 제1기 실행계획	25
<표 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영역별 비교	27
<표 10>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	28
<표 11>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영역별 세부사업	30
<표 12> 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전략과제	33
<표 13> 아키타현 주요 영역 및 전략과제	35
<표 14> 국내 고령친화도시 조례	37
<표 15>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데이터 및 출처	59
<표 16>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현황	60
<표 17> 남양주시 고령인구 현황	61
<표 18>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현황 (2025.02. 기준)	61
<표 19> CCTV, 안전 비상벨, 가로등 현황	64
<표 20> 남양주시 읍면동 CCTV 현황	65
<표 21> CCTV 설치 도움 정도, 설치 용도 및 우선 설치 지역	66
<표 22> 남양주시 읍면동 안전 비상벨 현황	66
<표 23> 그늘막, 공중 및 개방화장실 현황	67
<표 24> 남양주시 읍면동 그늘막 현황	67
<표 25> 남양주시 읍면동 공중·개방 화장실 현황	68
<표 26> 도시공원 현황 및 1인당 공원면적	68
<표 27> 보행 노인 사고 다발지 현황 (2024.08. 기준)	69
<표 28> 남양주시 읍면동 사고 다발지 현황	69
<표 29> 대중교통 및 도보 판매시설 접근성 (2021년 기준)	71
<표 30> 대중교통 및 도보 의료시설 접근성 (2021년 기준)	72
<표 31> 고령자 거처의 점유형태 (2022년 기준)	73
<표 32> 남양주시 공공주택 공급 현황 (2025.02 기준)	74

〈표 33〉 남양주시 독거노인 현황 (2023년 기준)	74
〈표 34〉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장소	75
〈표 35〉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75
〈표 36〉 남양주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76
〈표 37〉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	77
〈표 38〉 노인학대 현황 (2024.03 기준)	78
〈표 39〉 노인학대 예방 조치	78
〈표 40〉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79
〈표 41〉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	80
〈표 42〉 공동체 의식	81
〈표 43〉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82
〈표 44〉 남양주시 유형별 일자리 사업	82
〈표 45〉 자원봉사자 현황 (2022)	82
〈표 46〉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3
〈표 47〉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4
〈표 48〉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5
〈표 49〉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5
〈표 50〉 서부희망케어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6
〈표 51〉 북부희망케어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87
〈표 5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현황	88
〈표 53〉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89
〈표 54〉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23년 기준)	89
〈표 55〉 종합병원 수 (2025.03 기준)	90
〈표 56〉 병, 의원 수 (2025.03 기준)	91
〈표 57〉 의료기관 만족도	91
〈표 58〉 보건시설 이용 만족도	92
〈표 59〉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92
〈표 60〉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93
〈표 61〉 건강검진 수진률	93
〈표 62〉 삶에 대한 만족도	94
〈표 63〉 우울감 경험률	95
〈표 64〉 자살생각률	95
〈표 65〉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96
〈표 66〉 FGI 진행 개요	99

<표 67>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01
<표 68>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01
<표 69>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17
<표 70> 당사자 인터뷰 영역별 분석 결과	117
<표 71> 설문문항 구성요소 및 주요 내용	140
<표 72> 연구 결과 요약	144
<표 73>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 항목	146

그 립 목 차

[그림 1] PEST 분석	4
[그림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17
[그림 3]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가이드라인	18
[그림 4] 부산광역시 추진체계	23
[그림 5] 수원시 추진체계	27
[그림 6] 용인특례시 추진체계	29
[그림 7] PEST 개념	40
[그림 8] 남양주시 위치 및 지역 특성	41
[그림 9] 남양주시 행정구역 현황	41
[그림 10] 남양주시 행정구역 지도	42
[그림 11] 남양주시 지정계획 생활권 설정	42
[그림 12] 남양주시 전략체계	43
[그림 13]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관련 경제적 상황	44
[그림 14] 남양주시 재정규모	45
[그림 15] 남양주시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5
[그림 16]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46
[그림 17] 남양주시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복지예산비율	46
[그림 18] 남양주시 총부양비 지수	47
[그림 19]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비율	48
[그림 20] 남양주시 주민등록인구	48
[그림 21] 남양주시 교통현황	49
[그림 22] 노인대상 시설 수	50
[그림 23]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목표 및 주요사업	52
[그림 24]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SWOT 분석	52
[그림 25] 남양주시 PEST 환경분석	53
[그림 26] 남양주시 지역별 고령인구	62
[그림 27] 남양주시 고령인구 추세	63
[그림 28] 경기도 인구 수 상위 10개	63
[그림 29]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안)	139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위해 2023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남양주시는 2024년 10월말 현재 732,9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8,400명(17.5%)으로 고령도시이며, 곧 20%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남양주시 역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1월 7일 제정되었다.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지역으로 남양주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 제시와 전략과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을 중심으로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를 객관적 진단하여 추후 국제네트워크 인증계획 수립의 전략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를 진단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구성과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및 국내·외 정책을 통한 현황분석을 통해 남양주시의 조성 기준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및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남양주시 노인실태 조사 자료와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FGI)을 위해 노인복지 분야 담당자 및 전문가와 남양주시 노인 당사자 FGI 분석을 실행하여 보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 세 가지 목표를 통해 남양주시가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과 동시에 남양주시가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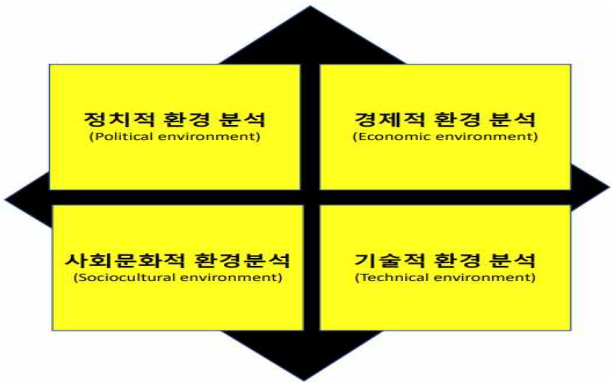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계획수립 및 인증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남양주시 환경 PEST 분석

고령친화도시 개념과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실행되며, 남양주시 노인환경 분석을 위한 PEST 분석을 진행한다. PEST 분석은 정치요인, 경제요인, 사회문화요인, 기술요인으로 나누어 분석될 예정이며 이는 거시적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방용성, 2024).



[그림 1]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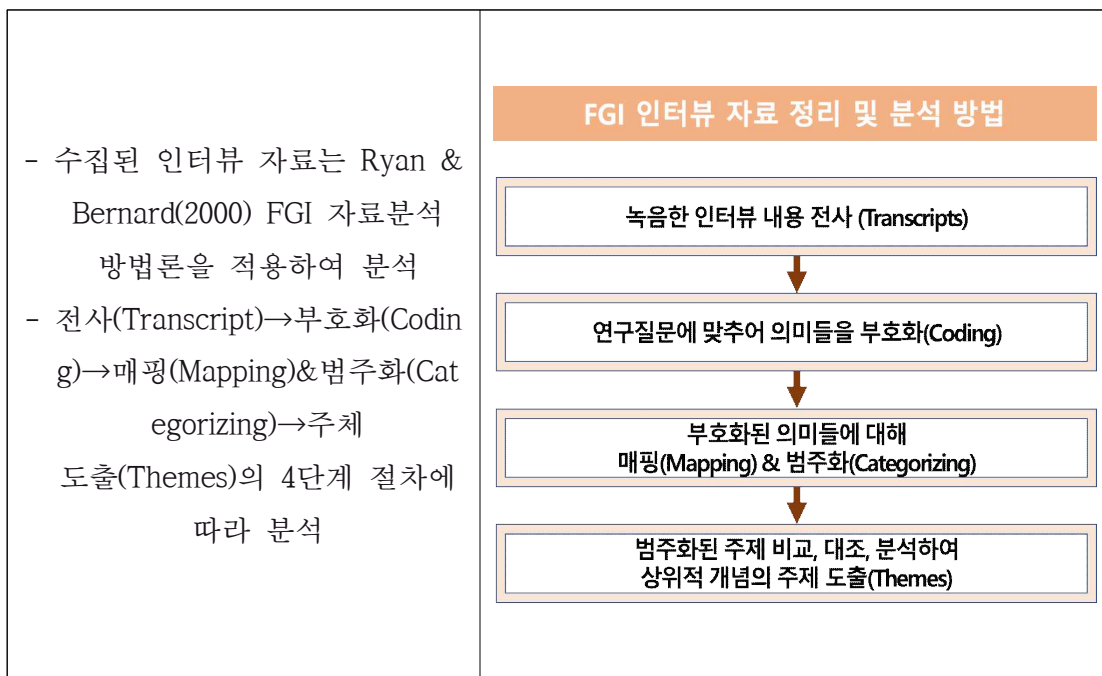
2) WHO 가이드라인 진단 및 2차 데이터 분석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별 현황에 대한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 진단을 위해 진단구조를 설계하고 각종 현황 및 통계를 활용한다. 진단설계는 8대 영역 별 남양주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떠한 지표 혹은 내용들이 진단되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후 ‘2021년 남양주시 실태조사’,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경기데이터드럼’, ‘경기통계’, ‘남양주시 사회조사 그리고 이 외의 내부요청자료 등의 객관적이며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종합 및 분석하여 노인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 방안 의견 수렴(FGI)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FGI를 2차 진행하여 현안과 방향성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심층면담은 도입질문 → 전환질문 → 주요질문 →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인터뷰를 구성하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참여자들의 견해, 경험, 관점 등을 이끌어 내고자 각각 2시간 ~ 2시간 30분정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1)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담당공무원, 정책 및 행정 담당자, 타 시군구 고령친화도시 설립 추진 경험이 있는 자, 노인복지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원 및 교수/ 5~7명)의 의견과 방향 설정, (2) 남양주시 지역사회활동 참여 노인 당사자(남양주시 지형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남양주시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한 지역사회활동가 등/ 5~7명) 자료 분석은 Braun and Clarke(2006)의 6단계 주제 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총 4단계로 구성하여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현황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본 후,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노인 관련 현황을 분석할 예정으로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PEST분석은 기획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특히 거시적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전략 분석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방용성, 2024). 이로 남양주시의 정치요인, 경제요인, 사회문화요인, 기술요인을 바탕으로 노인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고령친화도를 진단하는 단계로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도시가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WHO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요소	설명
1	야외공간과 건물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와 건축물 등
2	교통수단 (Transportation)	노인을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
3	주거시설 (Housing)	경제적이며 노인 친화적인 주거환경 등
4	사회적 참여 (Social participation)	연령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사회적 활동 등
5	존중과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존중 등
6	시민 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등
7	교류와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 확보 등
8	커뮤니티 및 돌봄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접근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

본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8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이에 따른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수준은 남양주 실태조사(2021) 및 남양주 통합 지표, 국가통계포털, 경기도 통계 등을 활용한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남양주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 행정가와 전문가, 노인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FGI를 실행하고자 한다.

FGI는 두 그룹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될 예정이며, 1차는 남양주시 노인복지분야 공무원 및 행정, 정책 담당자와 타 시군구의 고령친화도시 설립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고령친화도시에 조성을 위한 의견과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2차는 남양주시 내 노인 당사자로 남양주시 지형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남양주시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바람과 필수 요소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들의 의견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통합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결론과 제언의 단계이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가입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인증절차 및 준비를 단계별로 도출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한 남양주시 현 상황을 진단하여 향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비전과 발전 방안 및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발생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고 사회적 참여를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지원방안 수립하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비전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나아가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수립과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인증 계획수립 및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겠다.

〈표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목적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자료 및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계획수립·인증 추진 기초자료 마련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시기	연구목표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 고령친화도시 개념 - 국내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동향 - 남양주시 노인 환경 분석	- 문헌연구 - 환경분석 (PEST)	-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통계자료 등 활용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요인 바탕으로 노인현황 검토	2월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현황 분석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 세계보건기구 8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설계 - 남양주시 노인실태 2차데이터 분석	- 문헌연구 2차자료 분석	-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탐색 - 남양주 실태조사(2021), 남양주 통합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2-3 월	고령친화도 수준 진단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 방안 의견 수렴 (FGI)	-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FGI 진행 및 분석 - 남양주시 노인 당사자 FGI 진행 및 분석	FGI 분석 (6단계 주제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7인 내외 - 남양주시 지역사회활동 참여 노인 당사자 7인 내외	3-4 월	고령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고령친화도시 발전 방향 제시	-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실행 계획 수립 -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가입전략 (인증절차 및 준비)	연구내용 1-3 결과 분석	연구내용 1-3의 결과 및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정리	4월	실행계획 및 인증 가입전략 제시



II.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제1절 고령친화도시 개념

제2절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동향

제3절 남양주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PEST)

II.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제1절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현황 분석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는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증가, 도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추진하고 있는 범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WHO, 2007). 2006년 WHO에서는 고령자가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환경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다(WHO, 2007). 이 지침서는 22개 국가의 33개 도시가 참여하여 작업하였는데, 60세 이상의 고령자 1,485명과 신체·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의 부양자 250명, 서비스 제공자 515명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① 노인이 살기 적합한 고령친화도시, ② 도시노인문제들과 그 대안, ③ 도시생활에서의 노인의 안전, 사회경제적 참여 그리고 건강생활 증진에서의 제약 및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WHO, 2007; 고승환, 임병우, 2011).

또한 2009년에는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WHO는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 뉴욕을 시작으로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과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합의하였다(정경희, 2010).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조언,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한 것이다(고승환, 임병우, 2011).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라는 이론적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 으로 정의된다(정경희, 2010; 이동현 외, 2012). 이때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는 노화의 과정에서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의존적 노화의 관점, 욕구에 기초한 관점(needed-based)에서 벗어나 권리에 기초한 접근(right-based)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정경희, 2010). 건강, 참여, 안전은 활동적 노화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의 위험 요인을 꾸준히 감소시킬 때, 개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결정요인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교육,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능력, 욕구, 선호에 맞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는 노년기에도 생산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 안정욕구와 노화에 따른 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현될 때, 노인은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존엄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적 노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WHO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으로 보건복지서비스,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개인적 결정요인, 행동적 결정요인, 물리적 환경 등 6가지 요인과 성(gender), 문화(culture)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호교류를 통해 활동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정경희, 2010). 또한,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능적 수준은 성년기 초기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개인의 생활방식,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였을 때 고령친화적인 환경은 개인의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이민홍, 이재정, 2011).

고령친화도시는 노령친화적 지역사회(elder-friendly communities)를 확장 시킨 개념이다. Alley와 그 동료들(2007)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주목하여 노년층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의 건강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의 변화하는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력있게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세종특별자치시, 2019). 그러나 이는 노인에 한정하여 지역사회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WHO에서는 대상을 노인에서 모든 시민으로, 지역사회 범위를 도시로 확장시키며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김선자, 2010). 예를 들어 장애물이 없는 배리어프리 생활환경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뿐만 아니라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산부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동권과 독립권을 보장해준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노년층의 생산활동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이민홍, 이재정, 2011). 즉, 고령친화도시는 노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제공하는 연결다리가 될 수 있다(박은희, 2016). 정리하자면, 고령친화도시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한 삶 그리고 다양한 안전한 도시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시환경과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정순돌 외, 2015; 김수영 외, 2015, WHO, 2007).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학자, 도시,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 ‘고령자가 능동적으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도시’, ‘모든 시민 혜택을 보는 도시’, ‘고령자가 존경받고 포용되는 도시’, ‘고령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라는 개념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의미인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AIP)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노년 생활은 노인이 익숙한 집,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

요하며, AI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윤경 외, 2017).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 고령친화도시의 구성요소

WHO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환경·사회·경제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점검항목은 3개의 관심분야, 8대 영역, 총 8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WHO, 2007).

WHO에서 제시한 관심분야는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정보화 및 지역사회 보건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의 관심분야는 다시 8개 영역, 8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영역으로는 외부환경 및 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 교통(transportation), 주거시설(housing),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존중 및 사회포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가 있다.

각 영역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외부환경 및 시설에는 공간의 청결성, 안전성, 보도의 관리와 보행자 공간의 충분한 확보, 장애물 제거, 녹지와 외부좌석의 충분성과 체계적인 관리, 시각보조장치와 청각보조장치의 설치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노인에게 독립성, 이동성, 생활의 질에 외부환경과 시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통수단 편의성은 어르신들의 사회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통수단 편의성에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운임 수준, 신뢰성, 운행범위, 고령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WHO에서는 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운임 수준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교통비 부담의 수준도 적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나 특별한 욕구가 있는 노인이 이용가능한 우선 주차장 지역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주거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주택의 이용,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주택 내부 설비, 청결한 관리, 적절한 주택 가격, 주택 공급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는 고령자들의 사회통합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그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이 영역에서는 활동 공간의 접근성 확

대, 노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다양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활동과 여가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적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존중 및 사회통합에서는 존중 및 포괄적 서비스, 노인에 대한 대중 이미지, 세대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 공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보편적인 노인정시풍조로 인해 고령자들은 타인의 존경과 인정,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 및 고용영역에서는 자원봉사, 일자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에 대해 강조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 기회의 확대, 필요와 흥미에 부합하는 취업 조건 및 자원봉사의 기회 등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및 정보영역에서는 모든 시민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관리, 정보 전달 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기적절한 정보는 지역행사 참여 또는 지역 구성원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고령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 최신 정보흐름에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 동시에 사회적 소외를 확산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지역돌봄 영역에서는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대중 교통체계 마련 및 위치, 재가보호와 가사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보건 및 의료지원 서비스는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자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양질의 이용가능한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WHO에서는 점점항목을 통해 노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서의 포용 증진, 노인의 결정과 선택권 존중, 노년과 관련한 욕구와 개인적인 선호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정경희, 2010). 그 내용은 <표 3>와 같다. 8대 영역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표 3>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 및 점검항목

	영역	점검항목	
물리적 환경	외부 환경 및 시설	-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 공간의 중요성 - 휴식장소 - 고령친화적 도로	- 안전한 횡단보도 - 접근성 - 안전한 환경 - 보도와 자전거도로 - 고령친화적 건물 - 충분한 공중화장실 - 노인고객을 고려한 서비스
	교통 수단 편의성	- 대중 교통서비스 이용가능성 - 저렴한 교통비 - 신뢰도와 배차간격 - 대중교통의 운행범위 - 고령친화적 차량 - 고령자 전용서비스 시설	- 노약자석 경로우대 - 대중교통 운전자의 태도 -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안락성 - 정거장과 대중교통 터미널의 고령친화성 - 고령친화적 택시서비스 -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 대중교통 정보제공 - 교통 운행환경 -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 고령 운전자 차량의 주차
	주거환경 안정성	- 주택가격의 적정성 - 필수 공공서비스 - 주택설계 - 주택구조 변경 - 주택관리	- 주택 유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화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 주택구매 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가서비스 -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사회 · 문화적 환경	여가 및 사회 활동	- 접근 편의성 - 사회참여활동 비용 적정성 - 사회참여활동의 폭넓은 기회	- 사회참여 홍보 - 고령자의 사회참여 격려 및 고립감 극복 - 세대와 문화, 공동체의 통합
	사회적 존중 및 통합	- 공손하거나 불손한 태도 - 고령자 차별과 무시 - 세대통합적 상호작용과 고령자를 대하는 공교육	-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세대의 존재감 - 지역사회의 지원 - 가정에서 고령세대의 존재감 - 경제적 소외감 극복
	사회 참여 및 일자리	- 고령세대의 자원봉사기회 -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 -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조건의 유연성	- 고령자의 시민 활동 참여 독려 - 취업을 위한 고령자 훈련서비스 제공 - 고령자의 창업기회 - 고령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평가 개선
정보화 및 지역사회 보건환경	의사 소통 및 정보	- 고령친화적인 정보제공 미디어의 의사소통 채널 접근성 -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 고령자와 타인 간 대화단절 극복	- 고령친화적 정보전달체계 - 정보기술의 고령 친화성 - 고령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 건강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접근성 - 고령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제공범위의 적정성 -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서비스 - 고령자 가정 돌봄서비스	- 가정에서 살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 지역사회서비스와 고령자간 연결망 구축 - 고령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 고령자를 위한 응급조치 및 묘지공간 확보

3. 고령친화도시의 국제네트워크: GNAFCC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축 활성화를 위해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참여 도시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정보와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 기술을 지원하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WHO, 2010). 또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회원자격 심사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여부와 도시특성을 반영한 3개년 수립계획의 포괄성, 충분성,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821개 도시가 있다.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이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부천, 성남, 의왕, 포천, 여주, 구리시로 확인되며, 전체 국내의 가입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국내 가입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서울특별시(2013)	서초구(2019), 노원구(2019), 도봉구(2018), 양천구(2018), 강북구(2018), 동대문구(2022), 마포구(2022), 금천구(2021), 용산구(2021), 종로구(2021), 성동구(2020), 영등포구(2021), 광진구(2024)
인천	인천광역시(2022)	미추홀구(2021), 동구(2021)
부산	부산광역시(2016)	서구(2022), 수영구(2023), 동구(2024), 중구(2023)
광주	광주광역시(2020)	서구(2019), 동구(2017), 북구(2024)
울산	울산광역시(2020)	-
대전	대전광역시(2024)	-
경기	-	수원특례시(2016), 용인특례시(2024), 부천시(2018), 성남시(2020), 의왕시(2021), 포천시(2024), 여주시(2022), 구리시(2024)
강원	-	횡성군(2024)
세종	세종시(2019)	-
충북	-	음성군(2024)
충남	-	논산시(2018), 부여군(2022), 공주시(2021), 서천군(2024), 청양군(2024), 예산군(2022)
전북	-	정읍시(2014), 완주군(2021)
전남	-	나주시(2019), 화순군(2020), 구례군(2024), 순천시(2023)
경북	-	칠곡군(2020), 통영시(2020), 김제시(2024), 안동시(2024)
경남	-	남해군(2019), 고성군(2021), 창원시(2020), 의령군(2022), 김해시(2023), 거창군(2024), 진주시(2023)
제주	제주도(2017)	-
합계	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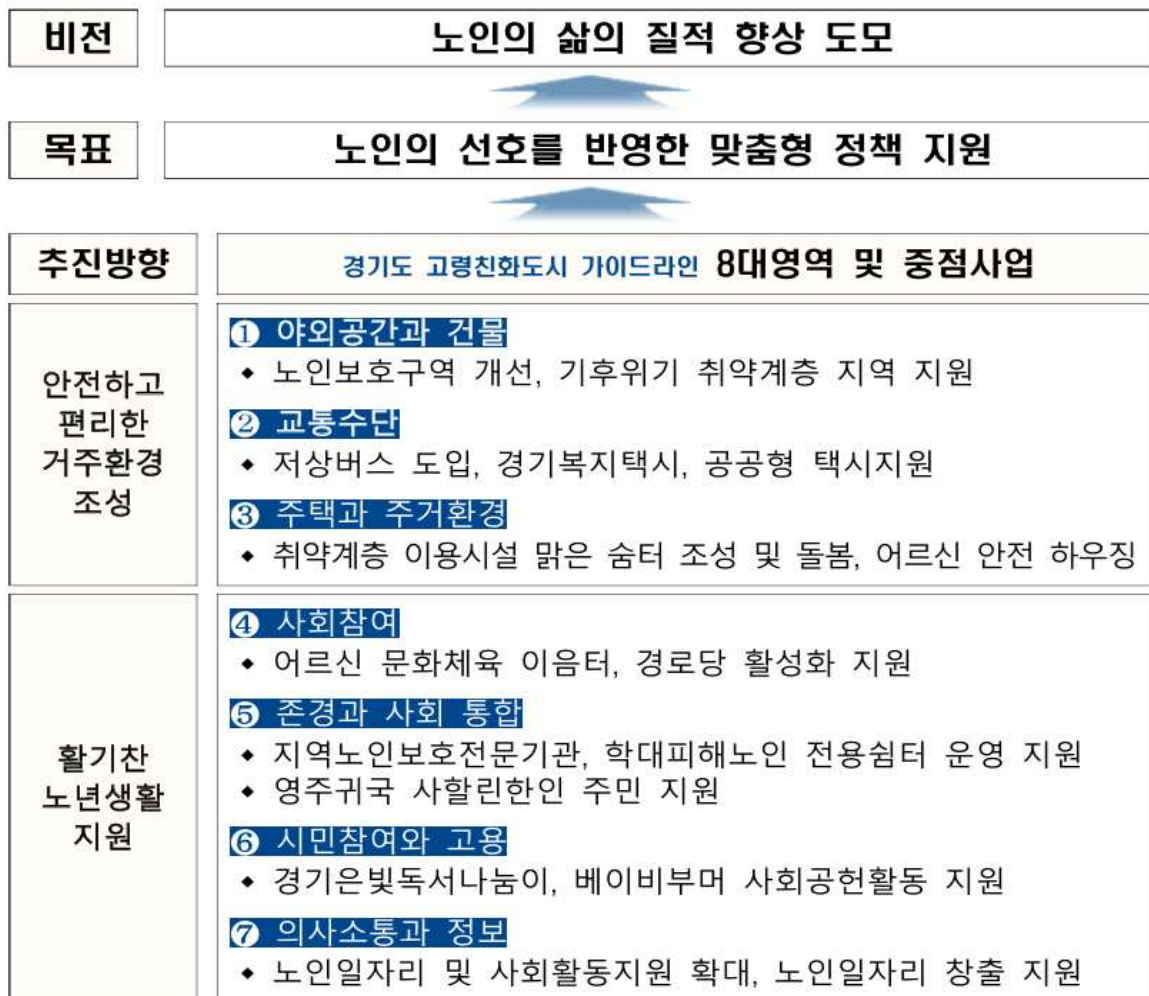
제2절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정책 및 동향

1. 국내

1) 경기도

경기도는 「노인복지법」 개정(’26.1월 시행)으로 고령친화도시가 명문화됨에 따라, ’26년까지 구체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2025년 현재 경기도는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도모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방향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조성,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모태로 WHO 8대 영역별 중점 사항의 69개 세부사업을 실행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 비전 및 목표



[그림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경기도는 2018년 1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추진경과로는 연구가 2회 진행되었으며(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계획, 2019, 12 / 초고령사회 대비 경기도 고령친화도 분석 및 지원방안, 2020, 08),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구비를 합하여 2022년 5,319,838(백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568,948(백만원)으로 16개 부서 65개 사업이 실행되었다. 유의미한 주요 성과로 AI 노인 말벗서비스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어르신 안전 하우스 등으로 고령자 주택 안전시설을 보강한 바 있다. 전년대비 2025년에는 7개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치매돌봄가족 안심휴가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스마트경로당 보급 및 확산)이 실시될 예정으로 경기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구체적인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영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1. 야외공간과 건물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	• 24시간 안전하고 청결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한다. • 자연친화적 산책로를 확대한다. • 인도 재포장(보도블럭 등) 시에 보행보조차 및 휠체어 통로를 마련한다. • 배리어 프리를 위한 지역 고령친화도시 맵을 작성한다. • 인도에 보행보조차가 다닐 수 있다. • 노인전용 시설 주변 이동로 등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 인도 및 보행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다. • 횡단보도를 건널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 사업장 내에 노인 특화 사업 제공시 고령친화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공공기관 노인전용 창구 마련 및 민간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 노인전용 창구 서비스를 마련한다. • 노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공공시설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도입하고 민간 영역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 화장실이 청결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 교통 수단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차량 부족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대중교통 기사들의 고령친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대중교통 음성안내 및 표지판을 고령자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한다. • 저상버스를 확충한다. • 교통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차량을 확대한다. • 경기도 특화 고령자 행복택시 서비스와 연계한다. • 대중교통 음성안내 및 표지판을 고령자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한다. • 여성, 장애인 주차구역을 노약자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

3. 주택과 주거환경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	- 커뮤니티 케어와 유기적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요양, 복지, 생활지원, 주거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 노후주택 및 독거노인 거주 주택을 위한 안전설비가 확대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 집수리 및 생활가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거문제와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 주택 개조 및 수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 T/F가 있다. - 노인전용 공동주택을 확대 운영한다. -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청자격기준이 완화된다. - 다직종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상담 시 주거문제 등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연계한다.
4. 사회참여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용 불편 및 안전 문제가 줄어든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다. - 행사나 볼거리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있다.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 여가 및 문화생활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가 해소된다. -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행사나 활동에 고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방안을 모색한다.
5. 존경과 사회 통합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 노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인권에 기초한 노인 공공서비스를 개발한다. -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설계한다. -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모든 세대가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행사를 도입한다. -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을 확대한다. - 세대간 화합과 소통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노인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교 등에서 활동적 노화 및 긍정적인 노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황혼육아에 대한 부담 완화조치를 마련한다.
6. 시민참여와 고용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 적절한 근로조건을 갖춘 노인일자리를 마련한다. - 고령자를 위한 팬츠업 일자리를 마련한다. - 채용, 고용유지, 승진, 훈련 등에서의 연령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령자의 채용, 고용유지, 승진, 훈련 등에서 연령차별 없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은퇴후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이 있다. - 생계형 창업의 위험감소를 위한 컨설팅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적합업종 개발 및 관련 일자리를 확대한다. - 은퇴후 재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재취업을 위한 정보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 노노돌봄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고령자 대상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7. 의사소통과 정보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 고령자를 위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 일자리, 문화, 여가 활동 관련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 고령자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 - 건물 등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안내문 및 표지판을 게시한다. -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안내문, 방송자막 등의 글씨 크기를 확대한다.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송은 노인의 시각과 청각적 특성을 반영한다. - 공공기관 발행 신문, 안내문 등을 제작할 때 고령자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다.
8.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긴급정보 알리미 시스템이 있다. -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의료, 요양, 복지, 생활지원, 주거 등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료 및 요양 연계 시트 도입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의료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자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운영한다. -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고령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의료 및 보건시설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니어 전용 안내창구를 마련한다.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교육 및 상담,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한다.

[그림 3]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가이드라인

2) 서울특별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10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노인인구는 100만명이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1946년~1964년 출생)의 은퇴 및 퇴직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서울시는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구축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정은하 외, 2015).

(2) 추진 전략 및 체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진분야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으로 체계화하였고, 중점과제로는 인프라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재정확보 및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실행역량 강화를 설정하였다<표 5>.

<표 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비전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목표	고령친화도시(Aging Friendly City) 실현				
분야 · 중점 과제	건강한 노후 (Healty)	활기찬 생활 (Active)	생산적 노년 (Productive)	통합적 사회 (Integrated)	편리한 환경 (Environment)
	건강증진 지원강화	사회활동참여 활성화	고령친화일자리 창출	권익증진확대	이동편의환경 조성
	요양보호서비스 확충	여가문화기회 확대	취업창업 교육훈련 확대	세대통합 조성	일생생활편의제공
	질병예방시스템 강화	평생학습기회 확대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	인식문화 개선	고령친화주거환경 조성
	인프라 재설계(Redesigning Infra-structure)				
	신개념 복지시설 확충·체계화 (시설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노인친화제도·시스템 개선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전략	우선순위 설정, 단기·중장기 단계별 실행		중장기 재정확보 및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	정책개발·실행역량 강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서울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시의회, 문화,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등을 추진위원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연구는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정책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서울시 노인복지관 노인정책팀은 WHO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 및 추진 관련 부서 업무협조를 담당하였다. 추진과정은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수립, 법·제도적 환경 구축, 추진체계 구성, 가이드라인 개발, 실행계획 수립, 평가체계 구축의 6단계로 진행되었다(고승환 임병우, 2011).

(3) 주요 영역 및 사업

WHO에 제출한 「제1기(2013~2015년) 실행계획」은 WHO에서 제시한 8대 영역과 달리 6개 영역,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정은하, 2014; 정은하 외, 2015). 6개 영역은 ‘제2인생 설계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으로 WHO의 8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주요 관심 정책이었던 베이비부머 지원과 관련된 영역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2기(2016~2020년) 실행계획」은 「제1기(2013~2015년) 실행계획」보다 1개 영역이 축소된 5개 영역,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정은하 외, 2015). 5개 영역은 ‘고용’, ‘여가’, ‘건강’, ‘존중’,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와 제2기의 각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는 <표 6>과 같다.

〈표 6〉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제1기(2013~2015년) 실행계획			제2기(2016~2020년) 실행계획		
1	제2 인생 설계 지원	1-1.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고용	1-1. 사회적 일자리 제공	
		1-2.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1-2. 취업 지원 기관 운영	
		1-3.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1-3. 취업 기회 확대	
		1-4.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1-4. 적합 일자리 개발	
		1-5.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1-5. 고령친화노동환경 지원	
		1-6.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2	맞춤형 일자리	2-1. 서울형 공공 일자리 확충	여가	2-1. 축제 및 공연 활성화	
		2-2. 민간분야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		2-2. 어르신 평생교육 확대	
		2-3. 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2-3.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2-4.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확대		2-4. 어르신 자치활동 지원	
		2-5.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2-5. 신개념 여가공간 마련	
		2-6. 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2-6. 신개념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노후	3-1. 민간자원 연계 돌봄 수혜자 확대	건강	3-1.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3-2. 독거 어르신 대상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3-2. 예방 체계 구축	
		3-3. 독거 어르신 기능평가 및 운동처방		3-3. 치매 관리 및 지원	
		3-4. 비수급 어르신 장기요양 등 지원		3-4. 건전한 장례 문화	
		3-5. 재가어르신 지원서비스 강화		3-5. 일상생활 관리	
		3-6. 노인자살 예방대책 강화		3-6. 좋은 돌봄 지원	
4	살기 편한 환경	4-1.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개편	존중	4-1. 노후 소득 지원	
		4-2.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4-2. 사각지대 지원	
		4-3.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4-3. 정보 전달 효율화	
		4-4.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4-4. 지역 어울림 지원	
		4-5. 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4-5. 노인 단체 운영 지원	
			4-6. 의견 수렴 기회 확대		
5	활기찬 여가 문화	5-1.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환경	5-1. 고령친화 외부환경 조성	
		5-2. 신 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5-2. 기관 확충 및 지원	
		5-3. 종묘·탐골공원 문화 업그레이드		5-3. 안전 및 편리성 향상	
		5-4. 경로당 활성화 지역 협의체 구성		5-4. 주거 모형 다양화	
		5-5.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5-5. 주거 안전 지원	
		5-6.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존중과 세대 통합	6-1. 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6-2.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 강화			
		6-3.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6-4.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6-5. 독거어르신-대학생 간 주거공유 지원			
		6-6. 세계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부산광역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부산시는 201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전문가,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재정, 2016).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개발, 노인정책 체감도 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고령친화도시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6년 10월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

(2) 추진 전략 및 체계

부산시는 ‘활력있는 100세, 고령친화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세대 간 이해와 존중받는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후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부산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과, 교통운영과, 도시재생과 등 14개의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시니어정책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 모든 세대 시민,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모니터링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부산광역시 추진체계

(3) 주요 영역 및 사업

「제1기(2016~2018년) 실행계획」은 8개 영역과 2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44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되어 있다. 8개 영역은 WHO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게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및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제2기(2019~2023년) 실행계획」은 「제1기(2013~2015년) 실행계획」과 달리 5개 영역, 18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이재정 외, 2018). 5개 영역은 ‘물리적 환경’,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사회적 통합’, ‘건강과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와 제2기의 각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는 <표 7>과 같다.

<표 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영역별 세부과제

제1기(2016~2018년) 실행계획			제2기(2019~2023년) 실행계획	
1	야외 공간과 건물	1-1. 도시의 안정성 및 편리성 강화	물리적 환경	1-1. 도시의 안정성 및 쾌적성 강화
		1-2. 쾌적한 환경조성		1-2.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1-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4. 주거 안전성 확보
2	교통	2-1.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경제 활동	2-1. 노인 취업·재취업 기회 확대
		2-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2. 신중년 취·창업 기회 확대
				2-3. 취업 교육 및 상담 지원 강화
3	주거 및 주거 환경	3-1. 주거 안정성 확보	사회 참여 활동	3-1.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3-2. 근거리 내 복지인프라 구축		3-2. 평생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3-3. 여가문화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4	사회 참여	4-1.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통합	4-1. 고령친화공동체 조성
		4-2.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4-2. 노인 인권보장 및 인식 개선
				4-3. 의사결정 및 참여기회 확대
				4-4. 정보접근성 강화
5	존경과 사회적 통합	5-1. 세대 간 유대감 증진	건강과 돌봄	5-1.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5-2. 지역사회 통합의 장 마련		5-2. 취약노인 지원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5-3.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5-3. 커뮤니티 케어 시행 및 정착
	5-4. 고령친화산업 육성			
6	시민 참여와 고용	6-1. 정년 연장·재취업 기회 확대		
		6-2. 고령자 공공형 취업기회 확대		
		6-3. 신규 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장		
7	의사 소통과	7-1.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 제공	7-2. 의사소통과 정확한 정보제공	
8	지역 사회 지원과 건강 서비스	8-1. 건강관리 및 증진	
		8-2. 맞춤형 건강 지원체계 강화	
		8-3. 어르신 건강사각지대 해소	
		8-4. 취약계층 지원 확대	
		8-5. 지역돌봄체계 강화	
		8-6. 지역사회 계속거주 서비스 지원	
		8-7. 부양자 지원체계 강화	

3) 광주광역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광주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평균 14.8%이며, 2035년에는 25.8%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2019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제1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20년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9).

(2) 추진 전략 및 체계

광주광역시는 고령친화도시 비전을 ‘노후 걱정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로 수립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당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따뜻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보건·요양서비스 지원’, ‘쾌적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3) 주요 영역 및 사업

광주광역시는 WHO가 제시하는 8대영역을 5개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9). 5개 영역은 ‘당당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따뜻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보건·요양서비스 지원’, ‘쾌적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세부과제는 <표 8>와 같다.

<표 8> 광주광역시 제1기 실행계획

제1기 실행계획		
1	당당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1-1.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일자리 지원	1-2.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2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2-1. 어르신 문화여가 활성화
		2-2. 어르신 사회활동 기회 확대
3	따뜻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3-1. 체계적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3-2. 노인인권 증진 및 시민의식 개선
		3-3. 경로효친 문화 확산
4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보건·요양서비스 지원	4-1. 어르신 건강관리
		4-2. 치매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4-3.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제고
		4-4.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
5	쾌적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5-1. 어르신 교통안전 증진
		5-2.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5-3. 노인 활동 공간 환경 개선

4) 수원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수원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타 시에 비해 12%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도시이나 고령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원시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사회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6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인증 및 가입하였으며(이영안 외, 2019) 2016년 9월에는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1기 계획은 2016년~2018년 3년 간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5년(2020~2024년)의 제2기 계획 수립 및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획득하였고, 3차 재인증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2)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기본계획은 ‘참여, 소통, 누림이 있는 활력 넘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이라는 1개 비전과 ‘은퇴대비 미래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통합과 소득창출환경 조성’이라는 3개 목표를 바탕으로 하였다(이영안 외, 2019). 3개 목표는 다시 6대 영역(인생 제2막 은퇴설계,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활력 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53개 세부 과제가 도출되었다.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

으나 서울시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세부사업이 있는 것이 특성이다. 2019년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는 제1기 기본계획의 경험과 한계 극복 및 노인세대의 다양화·다분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이영안 외, 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의 비전은 ‘노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령친화도시 수원’ 으로(그림 4 참조) 제1기 기본계획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2기 중장기 계획의 비전은 ‘고령친화도시의 가치’ 와 ‘ 노년의 가치’ 에 초점을 두어,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 등 4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11-7] 수원시 제2기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
 자료 : 이영안 외(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수립.

[그림 5] 수원시 추진체계

(3) 실행계획 및 세부사업

수원시의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이라는 4개 목표와 8대 중점과제, 세부사업 52개로 구성되었다.

<표 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영역별 비교

정책목표	중점과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1.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1-1. 건강한 100세 노인	■ 의료 및 지역 돌봄
	1-2.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인	■ 여가 및 사회활동

2.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1. 교통약자 배려 도시	■ 교통수단 편의성
	2-2. 정주하고 싶은 도시	■ 외부환경 및 시설
	2-3. 노인이 안전한 도시 환경	■ 주거환경 안정성
3.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3-1. 존중과 사회참여	■ 존중 및 사회통합
	3-2. 소통과 정보공유	■ 의사소통 및 정보
4.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	4-1. 맞춤형 노년 일자리	■ 인적자원의 활용

〈표 10〉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사업	사업구분
1.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 환경 조성	1-1 건강한 100세 노년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젝트	계속 단기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속 단기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계속 단기
		■ 방문건강관리 지원	계속 단기
		■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속 중기
		■ 행복한 노후, 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신규 단기
	1-2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	■ 신노년층 대상의 평생교육 강화	계속 단기
		■ 지역 밀착형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속 단기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계속 단기
		■ 아름다운 노년, 실버청춘 특화프로그램	계속 단기
		■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계속 단기
		■ 50+ 액티브 시니어 축제	계속 단기
		■ 참여와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계속 단기
2.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2-1 교통약자 배려 도시	■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및 운영	계속 단기
		■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속 단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속 단기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	계속 단기
	2-2 정주하고 싶은 도시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계속 단기
		■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계속 단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정적인 운영	계속 단기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계속 단기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	계속 단기
		■ 수원시 울전동 카네이션 마을 운영	신규 단기
	2-3 노인이 안전한 도시환경	■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계속 단기
		■ 복지사각지대 지우개 '휴먼살피미' 운영	계속 단기
		■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계속 단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계속 단기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계속 단기
		■ 주거복지센터 설립 운영	계속 단기
		■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신규 단기

6) 용인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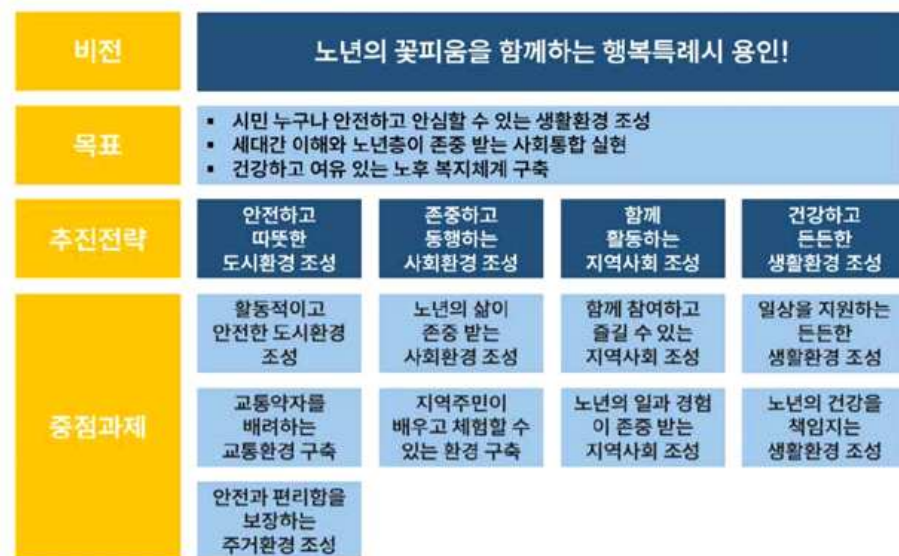
용인시의 고령화 비율은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보다는 낮으나,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용인시 생산가능연령층의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읍면동별 고령인구 분포특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공간적인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건강, 사회·문화활동, 고용촉진, 생활환경편의증진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조례안 제정과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에 진행되었다.

(2)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의 비전은 ‘노년의 꽃피움을 함께하는 행복특례시 용인!’으로 설정하고, 노년의 꽃피움을 위해서는 용인시가 ‘함께하고’ 고령층과 타 세대가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함께하는’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용인시의 역할과 세대간의 협력을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담고자 하였다.



[그림 6] 용인특례시 추진체계

(3) 실행계획 및 세부 사업

용인시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 존중하고 동행하는 사회환경 조성, 함께 활동하는 지역사회 조성, 건강하고 든든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8개 중점과제, 5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사업	담당부서	비고
1.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 (15개 사업)	1-1. 활동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개 사업)	1.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과	
		2.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노인복지과	
		3. 권역별 맞춤형 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과	중장기
	1-2.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 구축 (6개 사업)	1.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과	
		2. 저상버스 도입지원	교통정책과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정책과	
		4.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정책과	
		5.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	교통정책과	
		6. 용인지 친절 택시 기사 양성 교육	대중교통과	연구원 제안사업
	1-3.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하는 주거환경 조성 (6개 사업)	1.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복지과	
		2. 사랑의 집 입막 운영	노인복지과	
		3.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노인복지과	
		4. 저소득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과	
		5. 취약노인 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노인복지과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주택과	
2. 존중하고 동행하는 사회환경 조성 (15개 사업)	2-1. 노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7개 사업)	1. 재활용품 수집 노인안전 지원	노인복지과	
		2. 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복지과	
		3.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과	
		4.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과	
		5. 장수노인 위문품 지원	노인복지과	
		6. 노인의 날 기념식	노인복지과	
		7. AI 안부듣는 서비스	복지정책과	
	2-2. 지역주민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8개 사업)	1. 노인복지 신문보급	노인복지과	
		2. 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노인복지과	
		3.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노인복지과	
		4. 용인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	노인복지과	연구원 제안사업
		5. 독거노인 대상 대학생 자원 봉사	노인복지과	연구원 제안사업
		6.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민안전과	
		7. 성인문해 교육사업	평생교육과	
3. 함께 활동하는 지역사회 조성 (12개 사업)	3-1.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8개 사업)	1.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노인복지과	
		2. 경로당 양곡지원	노인복지과	
		3. 노인복지관 사이 활동 사업 지원	노인복지과	연구원 제안사업
		4.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인복지과	
		5. 5060 신중년 교육 프로젝트 지원사업	평생교육과	

		6.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과		
		7. 독거노인 효도관광	노인복지과		
		8. 노인 체육학교 운영	노인복지과		
	3-1. 노년의 일과 경험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4개 사업)	1.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과		
		2. 고령자 자원봉사 유형 확대	노인복지과		
		3. 중년 여성 경력활용형 일자리	일자리 정책과		
		4.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벽 완화 일자리	일자리 정책과		
	4. 건강하고 튼튼한 생활환경 조성 (15개 사업)	4-1. 일상을 지원하는 튼튼한 생활환경 조성 (7개 사업)	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과	
			2.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과	
3.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노인복지과		
4. 용인실버케어 순이			노인복지과		
5.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둘레길 조성			산림과		
6.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인복지과		
7. 용인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			시민안전과		
4-2. 노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환경조성 (8개 사업)		1.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소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 접종 사업	보건소		
		3. 방문건강 관리 사업	보건소		
		4.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 그램 운영	보건소		
		5. 어르신 마인드 케어	보건소		
		6. 치매 어르신 지원사업	보건소		
		7. 비대면 건강검진 모바일 플 랫폼 운영	보건소		
		8.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포진 무료 예방 접종	보건소		

2. 국외

WHO에서는 2014년 말, GNAFCC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회원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과 평가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 정책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Affiliated Program)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 비용 부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WHO, n.d.).

WHO GNAFF 협력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미국 은퇴자협회 고령친화도시커뮤니티 네트워크, 아일랜드의 고령친화 아일랜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에이지 플랫폼과 국제노령연맹, 고령친화도시 프랑스어권 네트워크, 캐나다의 퀘벡 고령친화도시와 팬-캐나다 고령친화도시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바쉬코르토스탄 지역프로그램 등이 있다.

1) 미국 뉴욕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뉴욕시는 2009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세계 최초로 가입한 도시이다. 뉴욕시는 약 8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17%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나타나는 도시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거주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결속력 약화와 이동성 제약, 언어·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그간 추진했던 무료급식, 고령자센터서비스, 교육활동서비스 등의 고령자 복지서비스에 한계를 느끼고 서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뉴욕시는 나이 들어가면서도 살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였고, 개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령자와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응하도록 노력하였다(김진, 2010).

(2) 추진 전략 및 체계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계획과 세부 사업은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생활양식과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진, 2010). 뉴욕의 고령친화성 진단은 뉴욕시 공무원의 자기평가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지역사회 포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지속적인 피드백,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실제조사, 2차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노인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맵핑 이후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뉴욕시는 지역사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인 ‘Age Friendly NYC’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정경희, 2010).

(3) 주요 영역 및 사업

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대범주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주택, 공공 공간 및 교통 그리고 건강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 총 4대 영역으로 제시하였고, 고용과 경제적 안정, 자원봉사, 문화여가활동, 정보와 계획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그리고 노인 대상 유급일자리 확대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대간 자원봉사와 학습기회 제공,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와 지원 제공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금지원과 건립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건강 및 건강관리계획, 고위험군 노인에게 대한 지원, 영양지원 등을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고령친화도시를 계획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뉴욕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및 전략과제

영역	세부영역	전략과제
의사 소통 및 사회 참여	고용 및 경제적 안정	- 직업훈련 제공 및 노인구직자 지원 - 노인구직자 대상 유급 고용기회 확대 - 단기경력을 가진 노인구직자에게 고용 보장하여 사회보장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
	자원봉사	- 학교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어린 세대를 위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노인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제공 및 타임뱅크 같은 서비스 확대
	문화여가 활동	- 시니어센터와 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교양강좌 개설 - 시니어센터에서 입주예술가의 예술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NYC-ARTS는 노인대상 문화관련 행사 정보제공 및 공연 입장권 할인 판매
	정보 및 계획	- 노인 대상 웹사이트 홍보 - 뉴욕시 노인부(DFTA)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 개선 및 노인 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 지역주민 대상 뉴욕시 고령친화도 평가 - 성소수자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주거 환경 안정성	저렴한 주택 제공	- 노인 대상 주택기금 운용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 - 노인 주거시설 내 주차요건 검토 및 필요 시 노인주택 건설을 위한 구역법 제정 - 주택 재건 및 저렴한 주택 건설 시 대출 제공
	주택 소유 및 임대지원	- 주택 개보수 시 대출 제공 - 고령친화주택 관련 베테랑 주택수리면허 소지자 고용 -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프로그램 절차 개선 - 노인 퇴거방지 법률서비스 확대
	삶터에서의 노후	- 은퇴자공동체(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에 여러 서비스 추가 제공 - 퇴거 위험에 처한 노인 대상 바우처 지급 ‘삶터에서의 노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주택디자인 개발 촉진
외부 환경 및 교통 수단 편의성	이용가능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 승강장치 확대 설치 및 지하철역 이용편의성 개선 - 이동장치에 GPS장치 부착 및 차량운행 알림정보 제공으로 ‘Access-A-Ride(AAR)’ 사용효율성 향상 - 휠체어 승객을 위한 택시연결(Accessible Dispatch) 프로그램 구축 - 활용도 높고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택시모델 개발 - 대중교통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택시바우처 프로그램 제공
	안전하고 어르신 친화적인 외부 환경	- 버스정류장 내 앉을 곳 확대 마련 - 지역 내 인구유동성 높은 곳에 자동식 공공화장실 설치 - 도로 안전정비 시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 - 노인들 교차로 안전을 위한 교차로시스템 개선 - 노인들의 고령친화공원 사용 및 프로그램 활용 장려
	미래대비 계획	- 환경 관련 워크숍 제공 및 노인 고용 나무심기(환경단체 협력) - 노인들의 이동성(대중교통, 접근가능성 등) 관련 조사 수행 및 해결방안 모색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용 증진
건강 및	간병 및	황혼육아 담당 노인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 치매, 재가돌봄이나 다른 장기요양 지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간병인 교육 확대 및 가족간병인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필요 시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 뉴욕시 근로자들 대상 간병 및 장기요양 관련한 기관 봉사활동이나 워크숍 시행 •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유급간병인 대상 훈련기회 및 기타 지원 확대 •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완화의료적 돌봄 및 사전의료의향서	• 환자 완화의료적 돌봄 홍보 • 기존 보건병원의 완화의료적 돌봄프로그램 확대 시행 • 사전의료의향서 홍보 •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가 정상적이지 않은 환자를 대신하여 내린 의료적 결정을 허가하는 법률 제정

2) 일본 아키타현

(1) 추진 배경 및 경과

아카타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이다. 아키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기준 24.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40년에는 43.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백뉴스, 2020). 이에 일본에서는 ‘노인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였다.

아키타시는 민간이 먼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Friends of IFA Japan(FOIFA)가 있었다. FOIFA는 2007년 10월 세계 고령친화의 행복과 더 나은 고령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국제적 조직인 IFA(국제노인단체연맹)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FOIFA는 2009년 10월 아키타시에서 IFA와 JANCA(일본 고령사회 NGO협력 협의회)와 합동으로 국제포럼(주제: ‘Aging in place & Friendly cities’)을 개최하였는데, 이 포럼에서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이 아키타 시민들에게 소개되었다(부산일보, 2015). 아키타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09년 시청 내 관계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0년 고령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아키타시 종합계획 책정, 2011년 고령친화도시 포럼 개최, 2015년 노인 커뮤니티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2) 추진 전략 및 체계

아키타시의 지역조성(마을 만들기)사업과 고령자 정책은 고령자를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하였으나,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고령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 각각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이나 취업,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아키타시는 고령자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 나가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를 염두에 두어 고령친화도시 비전을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고령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참여가 활발한 사회’, ‘도시생활의 편리성과 무장애(barrier free)가 실현된 사회’로 수립하였다. 고령친화적 프로그램은 아키타시 주민들을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부여, 민간 기업, 행정 조직 및 시민들 간의 협력 보장, 정부 관련 부서간의 협력 장려, 여러 당사자 간의 협력 및 자기결정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Sasaki K, 2018).

아키타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2009년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고령친화도시 구성 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 연구회에는 기획조정과, 보건예방과 등 10여 개의 유관 부서에 참여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키타시 고령친화도시 구상 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 구상에 관한 제언서’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였다. 2013년에는 아키타 시민으로 구성된 ‘고령친화 아키타 시민회’를 조직하여 고령친화도시의 취지를 알리고 존경받는 노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행정체계 역시 유관 부서 간 업무 조율이 원활하도록 연계추진관을 두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다.

(3) 주요 영역 및 사업

아키타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표 13>와 같이 8개 영역 25개 세부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키타시의 ‘고령친화도시 구상에 관한 제언서’에는 4가지의 중점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와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다. 둘째, 공공시설이나 산책길 등에 배리어프리를 만든다. 셋째, 교통약자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확보한다. 넷째, 사회와 지역,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고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지역, 행정이 협력하며 대책을 세운다(이재정 외, 2015).

<표 13> 아키타현 주요 영역 및 전략과제

세부영역	전략과제
야외공간/건물	- 휴식장소, 벤치, 모든 세대가 쉴 수 있는 푸른공원 등이 있는 옥외 환경정비 -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 - 배리어프리의 적극적 추진 - 물건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 슈퍼 혹은 상점, 의료 시설 등을 집약한 시설정비 지원 - 시민협동에 의한 꼼꼼한 눈 대책(폭설 대책)

교통	-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 확보 - 고령자 요구에 맞는 교통수단 운행 지원 - 버스사업 이외의 이동 수단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주거	-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 확보 - 고령자나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집합주택에 대한 검토
사회참여	- 적극적인 사회참여 촉진 - 고령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 만들기 - 고립, 우울증 예방, 자살 대책 - 초나이카이에 대한 섬세한 지원
존중과 사회적 통합	-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 이해에 대한 개혁 - 각 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장 만들기
시민참여/고용	-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 고령자 일터 확보
커뮤니케이션 /정보	- 다양한 정보기구 활용한 고령자 정보발신 촉진 - 요양이나 고령자 복지 상담창구에 관한 정보 제공 - 고령자 관련 시민을 위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지원 /보건서비스	-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충실 - 고령자 안부확인 대책

참고: 부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이재정 외, 2015)

3.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제주도, 광주 등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와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국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정리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장 먼저 가입한 도시는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는 2010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담은 2020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조성 조례는 광역시의 경의 서울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가 2016년에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4〉 국내 고령친화도시 조례

구 분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 시기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	2024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202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20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2019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23
	횡성군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원주시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1
	정선군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해시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포천시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구리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남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용인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주시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왕시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안산시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성남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안양시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경기도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평택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수원시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4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4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2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1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7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5

대구	-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2024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2015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대전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4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2022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021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7
충북	음성군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충남	보령시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예산군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청양군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서천군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부여군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20
	공주시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논산시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서산시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전북	정읍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임실군	임실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남원시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김제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21
	익산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2021
	완주군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8
전남	구례군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해남군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순천시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9
	화순군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나주시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경북	안동시	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청송군	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4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9
	칠곡군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경남	거창군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사천시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진주시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의령군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2022
	밀양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남해군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김해시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고성군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창원시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통영시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거제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2015
계	103		

경기도에서는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함께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하남시, 용인시, 여주시 등 총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에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요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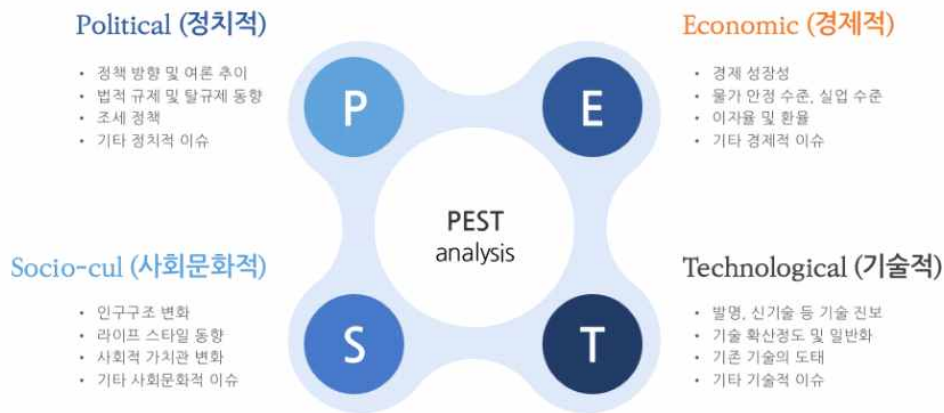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고령친화도 평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그리고 생활환경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등으로 구성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3절 남양주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PEST) 분석

1. PEST 분석 개념

PEST 분석은 거시적인 측면에 외부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배경열 외, 2021)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 4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업 또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도출이 가능하다(조희준, 이성노, 2015).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외부의 모든 것은 환경의 일부로 간주하고 각각을 맥락화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 예측 분석 방법이다(노윤주, 2021).



[그림 7] PEST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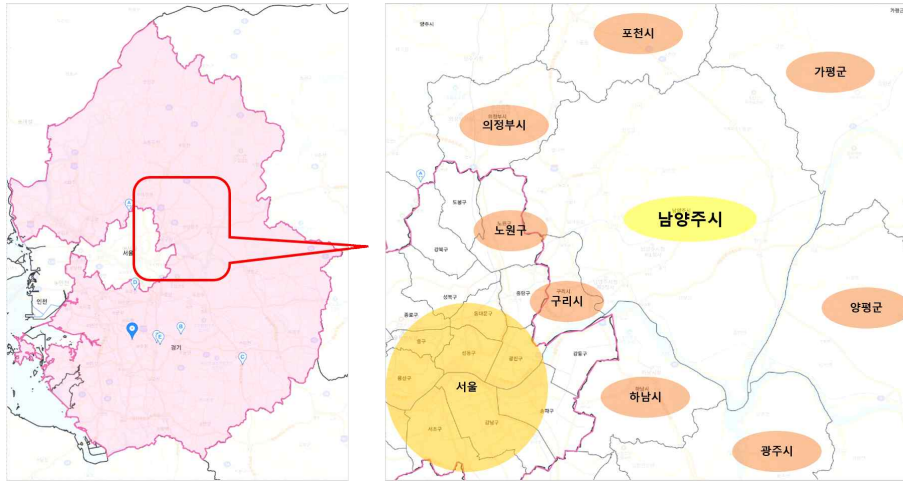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남양주시 정치적 환경 분석

(1) 위치 및 지역 특성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동북부에 자리하며 수도 서울에서 동(東)으로 2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동북방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1특별시, 5시, 2군과 접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東)으로 양평군과 가평군, 서(西)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南)으로 하남시와 광주시, 북(北)으로 포천시와 접하고 있다.



자료 출처: 카카오맵, 2025.03

[그림 8] 남양주시 위치 및 지역 특성

지형의 특성으로는 남양주시는 크게 동북방의 산지와 서남방의 분지로 구분되며, 동북지역에는 금산, 축령산, 천마산, 운길산과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서울의 도봉산과 대치한 수락산, 불암산이 솟아 있으며 중심부에 넓은 분지를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북한강이 남으로 흐르다가 조안면 능내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을 이룬 가운데 와부읍과 지금동의 남단을 비켜 서해로 흐른다. 남·북한강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팔당호와 팔당댐은 상수원 및 전력 등의 역할을 한다.

평지는 대체로 비옥하여 고등 소재의 주생산지이며, 특히 별내면, 진건읍 중심으로 먹골배가 특산품이다.

(2)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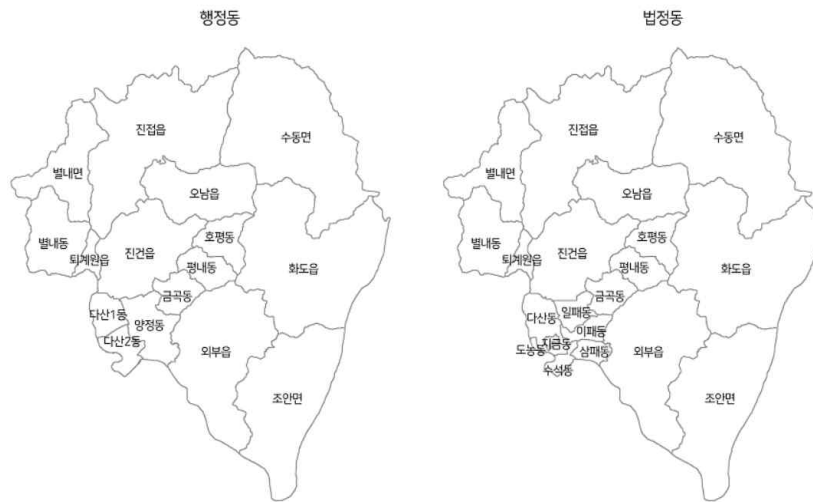
남양주시는 도농 농촌형으로 6개의 읍 지역과 3개면, 7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8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남양주시 행정구역 현황】

읍(6)	면(3)	동	
		행정동(7)	법정동(11)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1동	다산동
		다산2동	도농동, 지금동, 수석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별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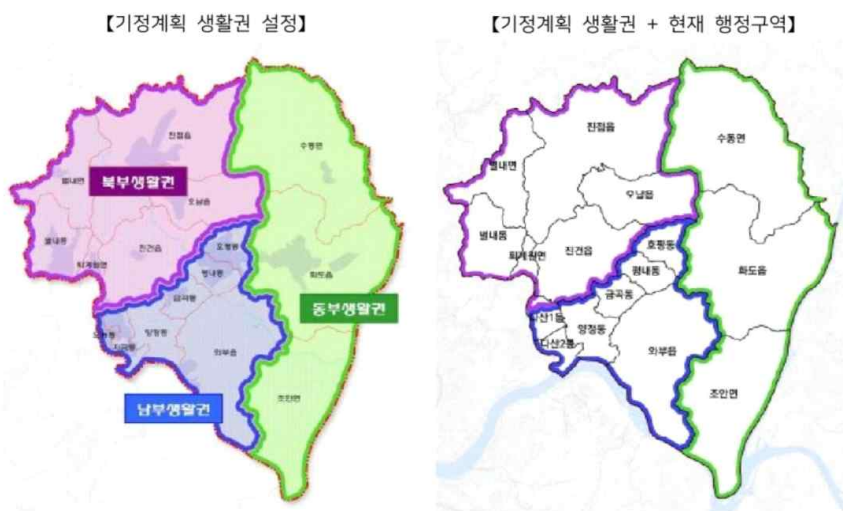
주) 법정동 : 주소로 사용하는 법으로 정한 동으로 토지대장 등 공문서에 사용하는 동
 행정동 :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을 합치거나, 나누어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센터가 설치되는 동
 (인구 자료 관리 기준)

[그림 9] 남양주시 행정구역 현황



[그림 10] 남양주시 행정구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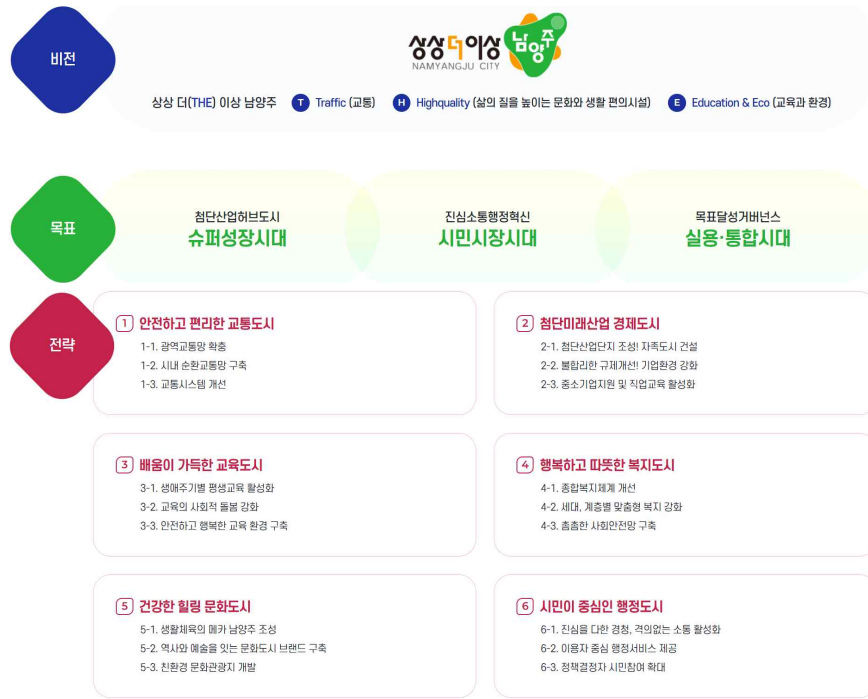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남양주시를 3개의 생활권으로 보았는데, ①동부 생활권을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으로, ②북부 생활권을 진건읍,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읍으로, ③남부 생활권은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금곡동, 외부읍, 호평동, 평내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1] 남양주시 기정계획 생활권 설정

(3) 민선 8기 비전과 전략

남양주시는 현재 민선 8기로 상상 더(THE) 이상 남양주로 교통, 삶의 질 높은 문화와 생활 편의 시설, 교육과 환경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첨단산업허브도시, 진심소통행정혁신, 실용 통합의 목표달성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로 6대분야, 18대 전략, 110개 공약이 제시되었다.



[그림 12] 남양주시 전략체계

남양주시 2024년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률 84.2%로 나타나며, 그중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4년 4분기 공약사업 이행률 84.2%

계	공약 이행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이행률
	소 계	사업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122건	78건	20	59	32건	11건	84.2%

○ 분야별 추진현황

분야별	계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이행률
		사업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계	122	20	59	32	11	84.2%
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35	11	8	11	5	80.0%
②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	23	5	9	5	4	74.8%
③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15	0	15	0	1	95.3%
④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25	1	15	9	0	90.0%
⑤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13	0	7	5	1	78.8%
⑥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10	3	5	2	0	95.5%

[그림 13]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적 상황

지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다산노인복지관 개관 및 별내노인복지관 시설설계가 25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계획은 2023년 대비 43.9%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치매안심센터확대로 외부읍, 오남읍, 금곡동으로 총 3개소 추가 운영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디지털 교육 제공 계획으로 경로당 정보화 기기 지원 23개소,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2명 채용과 디지털 교육 57개소에 실행한 것으로 공약 이행 85% 달성하였다.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지급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 계획 4,200명 이상 달성 5,432명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지방비 비용 부담을 16% 반영하여 노인기초연금 기준액 인상(11,630원)하여 2024년 총 47,859백만원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향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

2) 남양주시 경제적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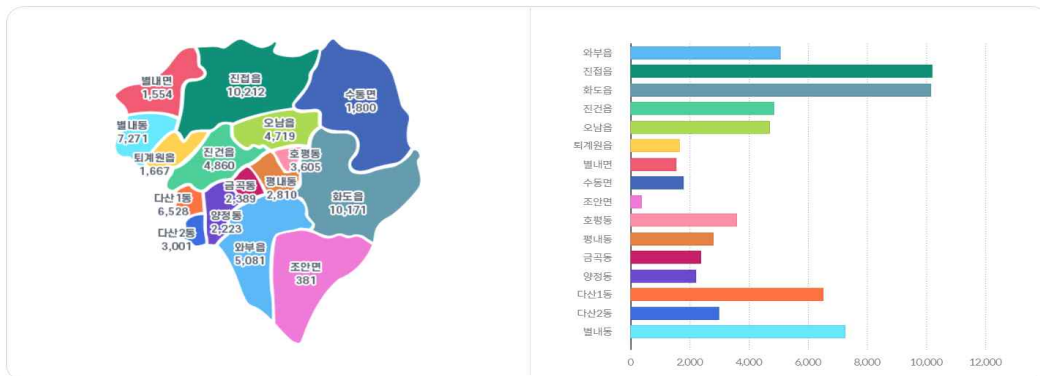
(1) 재정 규모

남양주시의 주요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21년 경기도 시군별 경제성장률(2023)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여도 상위 3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의 주요 도시 중에서 남양주시의 경제성장률이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남양주시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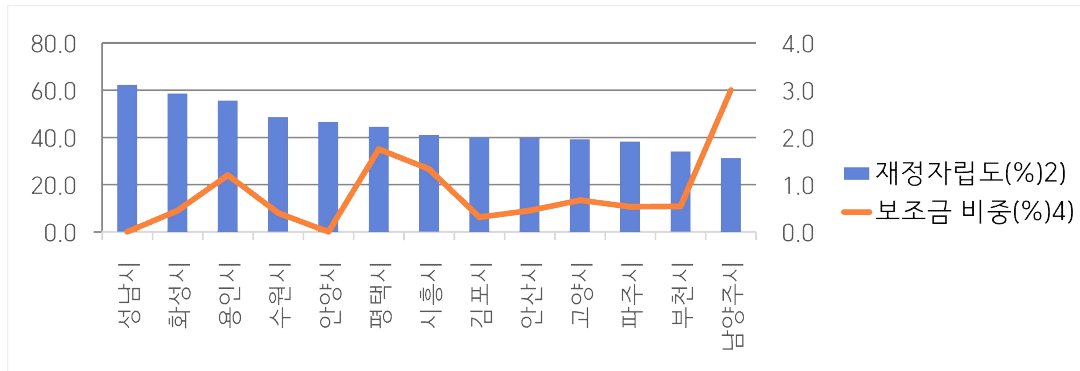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남양주시 경우에는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2%에 그쳤고, 경력단절여성의 비율도 86.5%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300인 이상의 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체는 826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0.05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의 44.9%는 9인 이하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양주시에는 읍면동별 사업체 수를 확인한 결과 진접읍(10,212)과 화도읍(10,171)에 가장 높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총 68,272개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21,62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00인 이상의 사업체 수가 10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0.0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57.7%가 9인 이하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남양주시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남양주시에서는 왕숙 1·2 지구 및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규모를 상승시키고, 향후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서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도시계획에 포함하고 있다(남양주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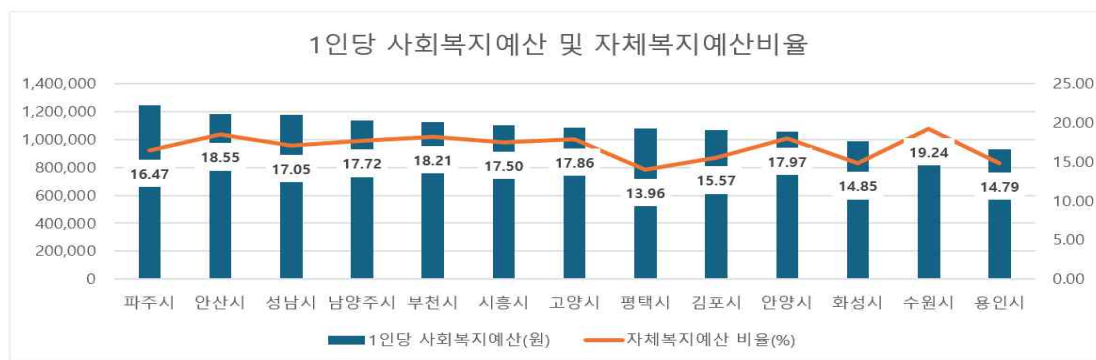
더하여 남양주시는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는 1,81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 3,888만원 대비 매우 낮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1.2%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비중은 3.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16]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자료 : 민효상 외(2023). 경기도 시군별 복지불평등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1인당 전체 세출예산액은 2,471,000원으로 경기 주요 도시의 평균인 2,591,310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46.30%로 경기 주요 도시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평균인 42.45%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1,138,564원이고 자체복지예산비율은 1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와 함께 시흥시도 남양주시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복지예산과 자체복지예산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개발 지역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이 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박훈, 정재용, 2011). 따라서 시흥시 역시 남양주시와 함께 다핵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그림 17] 남양주시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복지예산비율

자료 : 민효상 외(2023). 경기도 시군별 복지불평등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 1) 시흥시 총인구수 약 55만, 세대당 인구수 2.44명, 재정자립도 40.9%, 보조금 비중 1.33%, 경제성장률 2.3%, 시흥시 택지 수 : 20개로 확인됨.
 남양주시 총인구수 약 73만 이상, 세대당 인구수 2.42명, 재정자립도 31.2%, 보조금 비중 3.00%, 경제성장률 1.7%, 남양주시 택지 수 : 18개 (자료 : 지구정보_경기_20240831, 택지정보시스템)

(2) 노인 부양비

남양주시 연령 구간별 분포 변화에 따라 총부양비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40.3에서 2024년 6월 현재 42.4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이중 유년부양비는 2020년 20.6에서 2024년 6월 18.0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 노년부양비의 경우 2020년 19.8에서 2024년 6월 현재 24.4로 상승하였다.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를 비교하는 노령화지수도 2020년 기준 96.2에서 2024년 6월 현재 135.7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근 5년간 유년부양비 지수만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 노령화지수는 점차 증가세로 향후 복지예산이 사 용처와 노인복지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총부양비	40.3	40.8	41.4	42.1	42.4
유년부양비	20.6	20.0	19.3	18.4	18.0
노년부양비	19.8	20.8	22.1	23.7	24.4
노령화지수	96.2	103.7	114.5	128.4	135.7

주 :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 유소년인구(유형 I, II) / 생산가능인구(유형 III) * 100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유형 IV, V) / 생산가능인구(유형 III) * 100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유형 IV, V) / 유소년인구(유형 I, II) * 100

자료 : 행정안전부 누리집,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그림 18] 남양주시 총부양비 지수

3) 남양주시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1) 인구

남양주시는 2023년 기본통계에 따르면 인구 745,116명(인구밀도 1,626/km²)이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에 따르면 기준연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연평균증가율이 경기도보다 높고, 산업 및 주간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증가는 감소 추세이나 향후 3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시로 “성장형 도시”로 구분된다.

또한, 경기도 북부지역 대도시이자 경기도 종합계획 상 동부권역 내 대도시인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2024년 경기도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로 나타났고, 남양주시에 약 73만명 이상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확인된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주민등록인구는 화도읍, 다산1동, 별내동으로 높은 순으로 나타나며, 인구 증가율로는 다산1동이 가장 높게 증가하고 반면 별내면, 조안면, 와부읍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율로 확인된다.

연령대로 살펴본 결과 남양주시의 경우 30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인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는 인구분포율 46.54%로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며,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24.06%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19년 기준 13.3%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며 전국단위 15.5%보다 낮으나 경기도 12.5%보다 높으며, 고령인구 비율의 연평균증가율(2014~2019)은 전국 4.1%, 경기도 4.2%보다도 남양주시(4.4%)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다산지구와 별내지구를 제외한 읍면동별 고령인구 비율도 절반 이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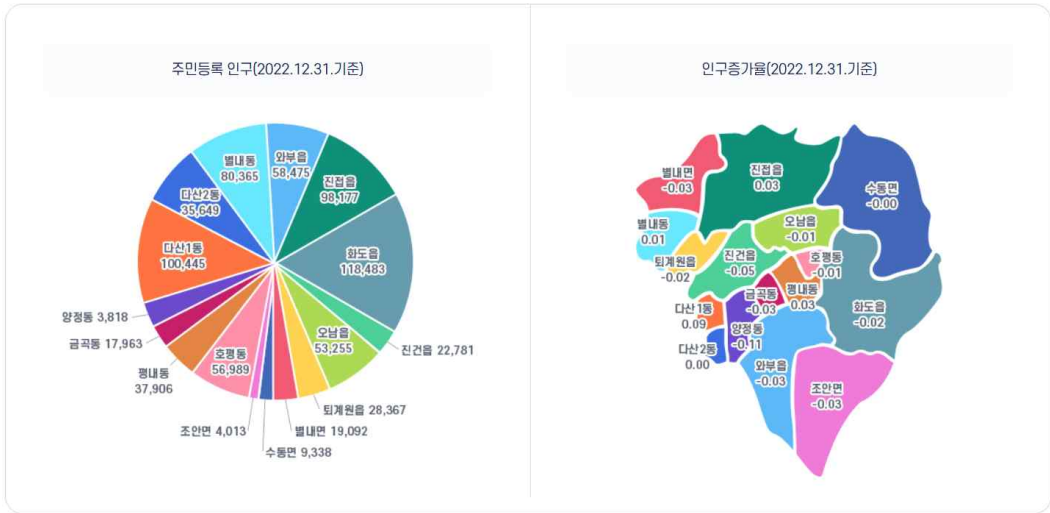
【 2019년 남양주시 읍면동별 고령인구비율 】

구분	다산2동	다산1동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	화도읍	오남읍
	9.3%	9.9%	10.7%	11.1%	11.1%	13.2%	13.3%	13.3%
고령인구 비율	고령화사회							
	퇴계원읍	와부읍	별내면	진건읍	금곡동	양정동	조안면	수동면
	15.4%	15.5%	17.5%	17.7%	19.9%	24.4%	25.1%	26.8%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9년 기준

[그림 19]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비율

결과적으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50만 이상 인구가 등록된 도시 중에서 세대당 인구수가 높은 편에 속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가 많을 것이며, 60세 이상의 인구 분포율도 높은 편에 속하는 도시이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분포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부양이 필요한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림 20] 남양주시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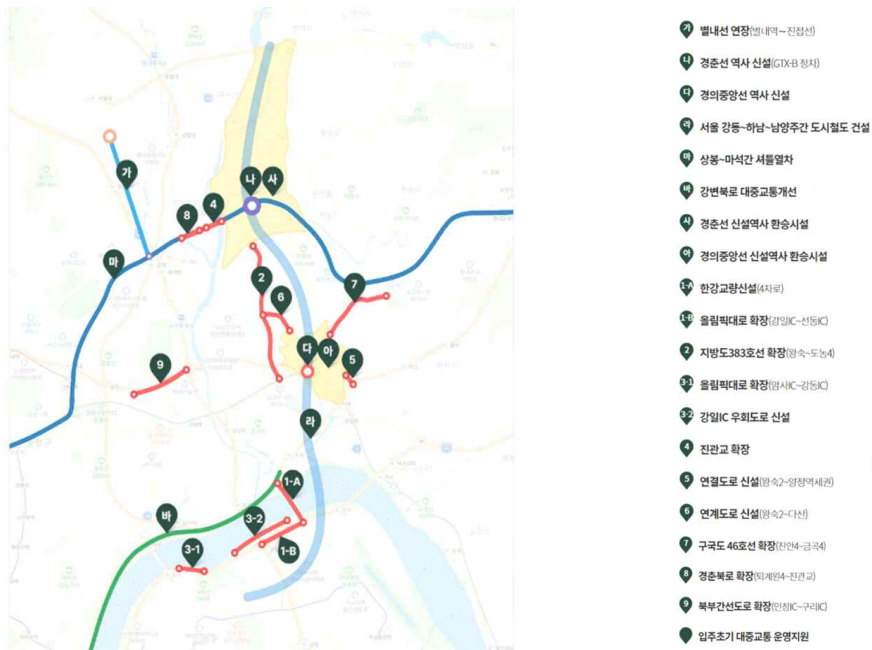
향후 인구 유입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진건읍 신월리 일대에 왕숙1 신도시 및 왕숙2 신도시를 조성하여 약 165,000명의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다(목표연도 2028년). 또한, 양정역세권에 약 33,000명(목표연도 2024년)과 진접 2지구에 약 24,000

명(목표연도 2022년)의 인구 유입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

남양주시 교통은 경춘선(7개역), 경의중앙선 (6개역), 덕소삼패 · 화도나들목(서울양양 고속도로), 별내 · 퇴계원 · 남양주나들목(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별내나들목(구리포천고속도로), 수석 · 이패 · 무대 · 율석 · 평내 · 동호평나들목(수석호평간 도시화고속도로)이 입지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세종포천고속도로(서울~세종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GTX-B노선 신설과 진접선 및 별내선 신설 및 연결(지하철 4호선 및 8호선), 지하철 6호선 및 9호선 연장 추진 시 광역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 남양주시 교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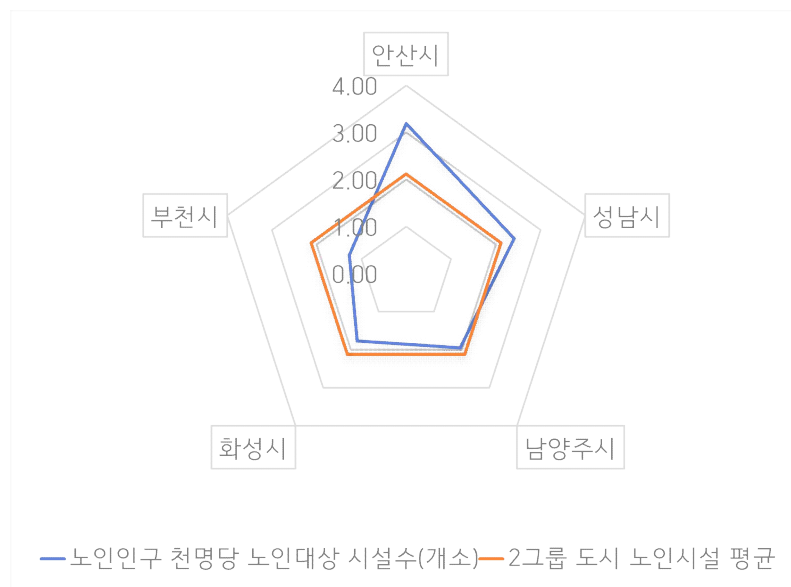
자료 : 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s://www.nyj.go.kr/>

(3)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는 복지통계의 시설 구분별 시설 수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에 노인복지 시설 수는 391개로 조사되고 있다.

구분	복지로 복지통계	성은미 · 주사랑(2022)	복지로(2024)
노인대상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실버인력뱅크,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7), 노인의료복지시설(190), 재가노인복지시설(180), 노인여가복지시설(13), 노인일자리지원기관(1)

그 중 경기도의 유사 도시 분류에 따라 남양주시는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와 함께 2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룹 간 노인 대상 시설 수는 안산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양주시는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선미정 외, 2024).



[그림 22] 노인대상 시설 수

(4) 남양주시 노인 관련 사회문화 이슈

남양주시 거주 만 65세 어르신의 경우 어르신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연 12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중심의 특별 교통 수단이 있으나 현재 장애와 노인 중복 대상에게 해당하며, 노인을 위한 교통 시스템은 제한된 상황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어르신을 기준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 취업알선형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수행을 맡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사업으로는 노노케어, 경로당도우미, 환경지킴이, 실버편의점, 스팀세차사업, 실버머리방, 폐현수막재활용사업, 쇼핑백사업, 실버택배사업, 실버카페 등에서 활동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반으로 노인복지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2023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와 외로움과 소외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60세 이상의 인구는 7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7.1%는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28.3%에 달했고,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45.3%)와 자녀에게 의존한다(46.5%)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 외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부분은 노인에 대한 생애주기적 발달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미흡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사회문화적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보호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4) 남양주시 기술적 환경 분석

(1) 스마트 시티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주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3·3·3 시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시연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장 스마트팜 △도시재생뉴딜사업 패널 전시 △미세먼지, 실내외 온습도 조절시스템을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시연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무단투기 방지 시스템 시연 △보행자 보호용 바닥 신호등 구현 △사물인터넷 비콘 왕릉 소개 △드론스쿨, 3D프린팅, 코딩스쿨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인재양성 등을 소개해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별내동에 소재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가 개소하였고,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교차로를 활용한 신호 개선 △방범 CCTV 영상 연계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왕숙 신도시 대비 신축계획 검토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2) 도시재생사업 및 에코피아 생태도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남양주시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까지 남양주 전체로 보면 팽창하고 있지만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 물리적 노후화, 산업 쇠퇴 등 원도심의 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 소통하며 도시에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목표 및 주요사업

전략목표	추진과제 및 주요사업
도시재생 정책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 뉴딜 공모사업 준비 지원 - 대외적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 민-관-중간지원조직간 협력 체계 마련 - 홍보 및 소통 채널 운영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남양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 지자체 주민공모사업 운영 - 지역 활동가 양성
지역 재생력 강화	- 로컬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림 23]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목표 및 주요사업

5)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PEST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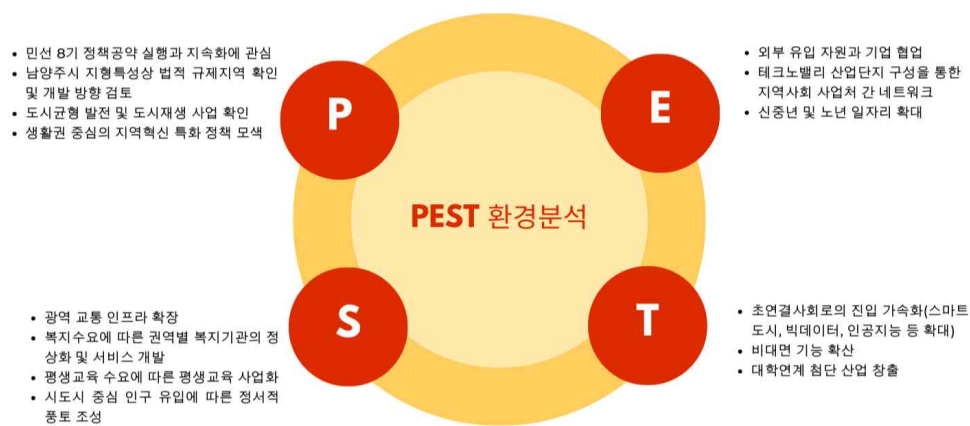
남양주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 현황을 살펴보면서 남양주시가 제시한 SWOT를 기반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SWOT 분석

상기와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남양주시 환경적 분석(PEST)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치 부분에서 1) 민선 8기 정책공약 실행과 지속화에 관심 2)남양주시 지형특성상 법적 규

제지역 확인 및 개발 방향 검토 3) 도시균형 발전 및 도시 재생 사업 확인 4) 생활권 중심의 지역혁신 특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분에서 1) 외부 유입 자원과 기업 협업 2)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사업체 간 네트워크 3) 신중년 및 노년 일자리 확대가 요청되며, 사회문화적으로 1) 광역 교통 인프라 확장 2) 복지수요에 따른 권역별 복지기관의 정상화 및 서비스 개발 3) 평생교육 수요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화 4)신도시 중심 인구 유입에 따른 정서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영역에서 1)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가속화(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확대) 2)비대면 기능 확산 3) 대학연계 첨단 산업 창출의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그림 25] 남양주시 PEST 환경분석

이러한 환경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과 매칭을 통해 남양주시의 현안을 파악하여 남양주시민의 비전과 목표, 세부사업 내용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



III.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제1절 세계보건기구 8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설계

제2절 남양주시 고령친화 진단 (2차자료 분석)

III.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제1절 세계보건기구 8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설계

1. WHO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 점검

본 장에서는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남양주시가 현재 어느 수준의 고령친화도를 보이고 있는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8대 영역은 야외공간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 교통수단(transportation), 주택과 주거환경(housing),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존경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가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외공간과 건물’은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정성 및 편리성, 접근성을 의미한다. 고령자가 경험하는 외부환경으로 고령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외부환경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즉, 고령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편리하며, 고령자의 신체활동 제약을 고려한 외부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실제로 이용할 때 느끼는 야외 공간에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둘째, ‘교통수단’이다. 이는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으로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노령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게 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성 확보와 안전한 교통 환경은 사회적 참여와 돌봄서비스 이용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동성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주택과 주거환경’이다.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주거시설은 고령자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구조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단함으로써 실제 생활의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사회참여’이다.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을 의미하고 사회참여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이나 외부와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단절의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단절 경험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다양한 각종 지역사회 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여가활동 및 외부활동에의 참여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존경과 사회통합’이다.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 세대간 조화성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타인의 존경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부족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령자들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수록 사회적 참여자 증가하고 이는 전체적인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들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끼는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가 고령자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섯째, ‘시민참여와 고용’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 기회 등의 제공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을 말한다. 고령자들은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령자를 위한 취업 및 각종 노동환경, 그리고 각종 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일곱째, ‘의사소통과 정보’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들의 자기결정권 중요성 증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정보수집은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의 전환으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된다. 따라서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덟째,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이다. 이는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을 말한다. 고령자의 복지와 의료, 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남양주시 노인 관련 보건 및 복지 현황,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2. 자료수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을 위해 현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및 남양주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가통계포털’,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제공한 ‘내부자료’를 통해 진단하였다.

〈표 15〉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데이터 및 출처

영역	데이터	출처
야외공간과 건물	CCTV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안전비상벨 설치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가로등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CCTV 설치 도움 정도 및 우선 설치 지역	남양주시 사회조사
	그늘막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공중화장실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도시공원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1인당 공원면적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교통수단	보행노인 사고다발지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대중교통 및 도보 판매시설 접근성	국가통계포털
	대중교통 및 도보 의료시설 접근성	국가통계포털
주택과 주거환경	고령자 거처의 점유형태	국가통계포털
	공공주택 공급현황	경기주택공사
사회참여	독거노인 현황	국가통계포털
	여가활동 참여수준 -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장소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여가활동 참여수준 -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남양주시 내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존경과 사회통합	노인학대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남양주시 사회조사
	살고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	남양주시 사회조사
	공동체의식	남양주시 사회조사
시민참여와 고용	노인 일자리 현황	남양주시 내부자료
	자원봉사자 현황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의사소통과 정보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노인복지관 4개소, 희망케어센터 2개소)	관내 유관기관 내부자료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현황	남양주시 내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인구천명 단 의료기관 병상 수	국가통계포털

	종합병원·병의원 수	경기데이터드림
	의료기관 만족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건소 이용 만족도 및 희망서비스	남양주시 사회조사
	주관적 건강상태	남양주시 사회조사
	건강검진 수진율	지역사회 건강조사
	삶에 대한 만족도	남양주시 사회조사
	우울감 경험률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살생각률	지역사회 건강조사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남양주시 사회조사

제2절 남양주시 고령친화진단 (2차자료 분석)

1. 고령인구 현황 파악

1)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현황

2025년 2월 기준, 전국과 경기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2%, 경기도는 16.9%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2021년 02월과 비교하여 3.5% 증가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인 20%에는 미치지 않으나 이미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었으므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현황

	2021.02	2022.02	2023.02	2024.02	2025.02
전국_전체인구	51,824,142	51,625,561	51,421,479	51,303,688	51,191,817
전국_고령인구	8,582,117	8,943,147	9,349,879	9,818,975	10,356,781
전국_비율	16.6%	17.3%	18.2%	19.1%	20.2%
경기도_전체인구	13,471,758	13,574,369	13,600,800	13,639,616	13,698,657
경기도_고령인구	1,799,940	1,905,264	2,016,088	2,148,205	2,298,454
경기도_비율	13.3%	14.0%	14.8%	15.7%	16.8%

출처: 행정안전부-연령별 인구현황

2) 남양주시 고령인구 현황

2025년 2월 기준,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1,164명으로 남양주시 전체 인구 731,138명 대비 17.9%로 확인된다. 남양주시 역시 매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2021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평균인 16.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남양주시 고령인구 현황

	2021.02	2022.02	2023.02	2024.02	2025.02
전체인구	718,434	733,995	736,484	732,464	731,138
고령인구	102,140	109,525	116,429	123,222	131,164
비율	14.2%	14.9%	15.8%	16.8%	17.9%

출처: 행정안전부-연령별 인구현황

3)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현황

남양주시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동면과 조안면이 36.5%, 35.0%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산1동과 다산2동이 각각 12.8%, 12.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현황의 특징으로는 읍면동의 고령화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인데 이는 남양주시의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따른 인구 구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남양주시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해 젊은 인구들이 유입된 지역(예, 다산동,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예, 수동면, 조안면, 화도읍 등)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고령층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도시화의 개발이 진행된 지역과 농촌적 특성을 유지한 읍면 지역 간의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8〉 남양주시 읍면동 고령인구 현황 (2025.02 기준)

(단위 : 명)

행정기관	전체인구	전체	비율	남자	여자
남양주시	731,138	131,164	17.9%	58,748	72,416
와부읍	58,086	12,118	20.8%	5,469	6,649
진접읍	95,286	17,473	18.3%	7,845	9,628
화도읍	63,642	12,622	19.8%	5,529	7,093
화도읍 동부출장소	13,002	2,417	18.6%	1,141	1,276
화도읍 남부출장소	35,581	5,980	16.8%	2,637	3,343
진건읍	20,116	5,216	25.9%	2,403	2,813

오남읍	51,056	9,353	18.2%	4,006	5,347
퇴계원읍	26,843	6,380	22.1%	2,941	3,439
별내면	18,043	4,461	24.7%	2,011	2,450
수동면	8,511	3,109	36.5%	1,476	1,633
조안면	3,772	1,319	35.0%	649	670
호평동	55,648	8,415	15.1%	3,596	4,819
평내동	37,413	5,554	14.8%	2,408	3,146
금곡동	17,116	5,167	30.2%	2,365	2,802
양정동	2,346	722	30.8%	399	323
다산1동	105,469	13,469	12.8%	5,988	7,481
다산2동	36,412	4,571	12.6%	2,027	2,544
별내동	82,811	12,818	15.5%	5,858	6,960

출처: 행정안전부-연령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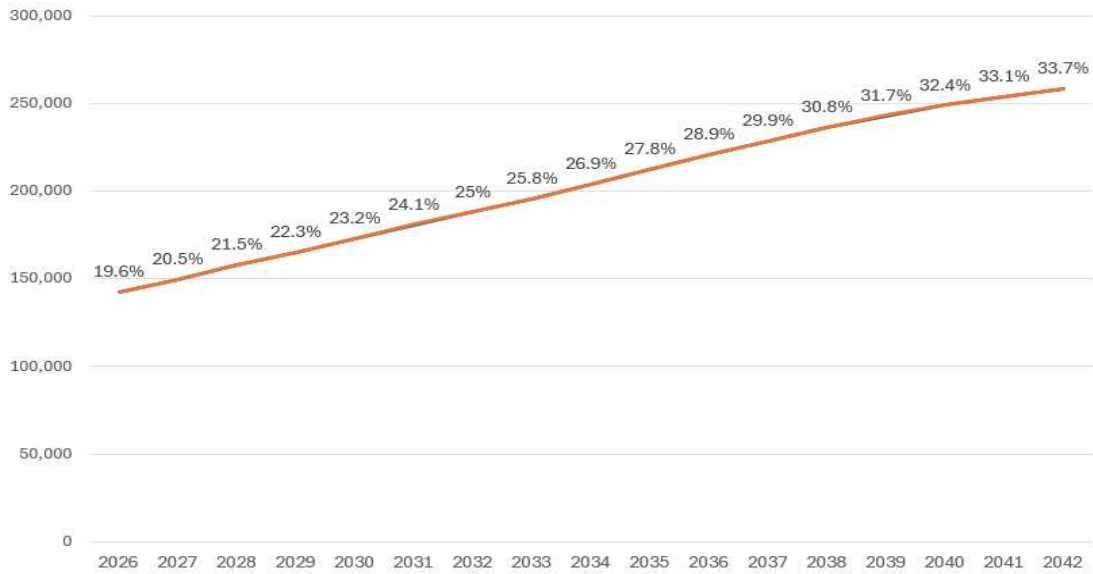
경기도 남양주시



[그림 26] 남양주시 지역별 고령인구

4) 남양주시 고령인구 추세

남양주시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 인구의 20.5%가 고령인구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9년에는 남양주시 인구 전체의 30.8%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남양주시 고령인구 추세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경기도 인구는 총 13,698,675명(2025.02 기준)으로 상위 10개 시군구는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남양주시의 통계 및 현황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와 인근도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 가능한 데이터에 한해 비교분석 하였다.

비교분석 도시는 인구 수에 따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로 선정하였다. 3개 도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성남시는 17.7%(2025.01 기준), 부천시는 16.7%(2025.01 기준), 그리고 안산시는 15.4%(2025.02 기준)이다.



[그림 28] 경기도 인구 수 상위 10개

인근도시로는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를 선정하였고 구리시의 인구는 186,004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17.7%(2025.02 기준), 하남시의 인구는 323,412명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15.9%(2025.02 기준), 그리고 의정부시 인구는 461,271명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19.1%(2025.02 기준)이다. 남양주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17.9%로 비교분석 도시 중에 성남시, 구리시와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 야외공간과 건물

(1) CCTV, 안전비상벨, 가로등 현황

CCTV의 경우 남양주시는 2,460개로 성남시에 비해 적으나 타 비교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인구 수준이 비슷한 성남시에 비해 수는 적으나 구리시에 비해 CCTV의 수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비교도시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의정부에 비해 CCTV 수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CCTV의 개수로만 살펴보면 타 비교도시에 비해 그 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향후 우범지역 등의 조사를 통해 CCTV 확충을 통한 야외공간의 안전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안전비상벨 현황은 남양주시는 884개로 고령인구 수준이 유사한 성남시에 비하면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리시에 비해 안전비상벨의 수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안전비상벨의 확충이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로등은 47,143개로 타 비교도시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양주시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 면적(458km²)은 성남시(141km²), 부천시(53km²), 안산시(155km²), 구리시(33.31km²), 하남시(93.04km²), 의정부시(81.54km²) 보다 넓다. 즉, 남양주시는 대도시에 속하므로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의 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 별내, 다산, 진접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외부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로등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남양주시가 인구유입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등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야간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CCTV, 안전 비상벨, 가로등 현황

(단위 : 개)

지자체	CCTV (2025.02)	안전비상벨 (2025.02)	가로등 (2024.10)
남양주시	2,460	884	47,143
성남시	2,953	1359	19,080
부천시	2,136	-	20,373
안산시	2,136	127	14,298
구리시	635	22	9,795

하남시	1,008	763	8,083
의정부	1,648	246	12,368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 읍면동 CCTV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화도읍이 499개로 가장 많으며 다산동, 별내동(읍, 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안면이 61개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화도읍의 경우 남양주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학교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반면 조안면의 중첩규제(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농경지가 많아 CCTV 설치 필요성이 타 읍면동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20〉 남양주시 읍면동 CCTV 현황

(단위 : 개)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150	61	287	146	499	90	140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다산동	별내동(읍,면)	금곡동	양정동
119	102	103	270	269	147	77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에서의 CCTV 설치 도움 정도, CCTV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대 이상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CCTV 설치 도움 문항에 대해 2022년(80.7%), 2024년(77.8%)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CCTV 설치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CCTV 우선 설치 지역으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주택가 이면도로가 1순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지 혹은 주거지 인근에서 보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면도로의 경우 좁고 어둡거나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CCTV에 대한 설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1〉 CCTV 설치 도움 정도, 설치 용도 및 우선 설치 지역

(단위 : %)

구 분	CCTV 설치 도움 정도					CCTV 우선 설치 지역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주택가 이면 도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기타
2024	51.6	26.2	17.1	3.8	1.3	86.1	7.3	5.6	1.0
2022	54.7	26.0	15.9	2.7	0.7	89.4	6.0	4.4	0.2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남양주시 읍면동 안전비상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별내동(읍,면)이 165개로 가장 많았고 화도읍이 122개로 나타났다. 수가 적은 읍면동은 양정동 31개, 조안면이 19개로 조사되었다. 별내동(읍,면)은 최근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아파트, 학교 등 안전 요구가 높아 비상벨 설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비상벨 수가 적은 지역은 농경지가 많고 제한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안전비상벨 설치가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남양주시 읍면동 안전 비상벨 현황

(단위 : 개)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60	19	116	63	122	25	41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다산동	별내동(읍,면)	금곡동	양정동
35	51	35	102	165	33	17

출처: 경기데이터드립

(2) 그늘막, 공중화장실 현황

남양주시 그늘막은 333개로 안산시를 제외한 타 비교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화 수준이 비슷한 성남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고령인구 수준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에 비해서도 수가 많다.

공중화장실은 남양주시는 378개로 의정부시와 구리시, 하남시에 비해 수가 많으나 타 비교도시에 비해 수가 적다. 고령인구 수준이 비슷한 성남시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중화장실의 수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유동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남양주시의 경우 밀집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배뇨 빈도가 잦을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 및 활동성 유지를 위해 노인 밀집지역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23〉 그늘막, 공중 및 개방화장실 현황

(단위 : 개)

지자체	그늘막 (2025.02)	공중 · 개방화장실 (2025.02)
남양주시	333	378
성남시	221	995
부천시	304	587
안산시	593	728
구리시	-	87
하남시	198	302
의정부시	272	241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 읍면동 그늘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산동이 102개로 가장 많고 수동면이 1개로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늘막에서도 읍면동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산동, 별내동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보행자가 많으므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혹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늘막 설치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지역 일수록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심 지역과 달리 건물이나 대형 시설물이 적어 그늘 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이 이동하거나 각종 작업 시 쉽게 접근 가능한 휴식 공간 차원에서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

〈표 24〉 남양주시 읍면동 그늘막 현황

(단 위: 개)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6	2	43	11	40	1	4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다산동	별내동(읍,면)	금곡동	양정동
7	10	16	102	62	20	9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읍면동 공중 · 개방 화장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표에서는 진접읍을 제외하고는 타 지표와 달리 읍면동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법률에 의해 일정

거리, 생활권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읍면동 간 편차가 적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관광지, 등산로, 공원, 하천 등 있어 외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남양주시 읍면동 공중·개방 화장실 현황

(단위 : 개)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33	24	35	20	55	14	7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다산동	별내동(읍,면)	금곡동	양정동
17	22	17	42	44	27	21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3) 도시공원 및 1인당 공원면적 현황

남양주시 도시공원은 172개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에 비해 수는 많으나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에 비해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인구 수준이 유사한 성남시에 비해 적으며 구리시에 비해 그 수는 많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부천시를 제외한 타 비교도시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의 수도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도시공원의 수는 많으나 1인당 공원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원의 수가 많다고 개별 공원의 면적이 작다면 1인당 면적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시의 생활권 공원은 소규모 위주로 분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중심 공원 분산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령자는 먼 거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밀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 인구 밀집 지역(아파트 단지, 전통 주거지 등)에 공원과 녹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도시공원 현황 및 1인당 공원면적

(단위 : 개, m²)

지자체	도시공원(2025.02)	1인당 공원면적(2021)
남양주시	172	5.9
성남시	215	10.9
부천시	192	4.2
안산시	213	10.4
구리시	61	15.6
하남시	81	8.8
의정부시	107	5.2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2) 교통수단

(1) 보행노인 사고 다발지 현황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 수는 남양주시가 성남시, 의정부시에 비해 적었으나 타 비교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건수는 남양주시는 161건으로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에 비해 적으나 타 비교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한 고령인구 비율을 보인 지역과 비교한다면 성남시에 비해 다발지 수, 사고 발생건수는 낮으나 구리시에 비해 다발지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발지 수 대비 사고 발생건수의 비율을 확인하면 남양주시는 25.5%, 성남시는 21.1%, 부천시는 22.8%, 안산시는 38.2%, 구리시 25.4%, 하남시 25%, 의정부시 22.3% 으로 확인되면서 남양주시의 보행노인 사고 다발지 현황의 비율이 2번째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보행노인 다발지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27〉 보행 노인 사고 다발지 현황 (2024.08 기준)

(단위 : 개, 건)

구분	다발지 수	사고 발생건수
남양주시	41	161
성남시	94	446
부천시	39	171
안산시	34	89
구리시	18	71
하남시	28	112
의정부시	49	220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의 읍면동의 경우 화도읍이 15개로 타 읍면동에 비해 월등히 그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발지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면도로, 신호등 미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안전표지판 등 고령친화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표 28〉 남양주시 읍면동 사고 다발지 현황

(단위: 개)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9	-	5	2	15	-	-

(2) 대중교통 및 도보 판매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한 판매시설 접근성의 경우 경기도 평균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접근성이 57.91%, 37.07%로 1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양주시의 경우 15분 이내에 대규모점포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47.32%, 전통시장은 2.06%로 확인되었다. 30분 이내도 대규모점포는 76.10%, 전통시장은 33.23%로 다른 시와의 편차가 존재하며 타 비교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양주시의 대중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논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별내, 다산 등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철도(지하철) 노선도 남양주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지역은 지하철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버스운행이 제한적이거나 배차간격이 크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판매시설 접근성 저하는 고령자의 생활편의나 건강관리 등 삶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9〉 대중교통 및 도보 판매시설 접근성 (2021년 기준)

(단위 : %)

구분		시간대별	15분 이내	30분 이내	45분 이내	60분 이내
경기도	대규모점포	일평균 (06시~20시)	57.91	88.72	95.35	97.28
	전통시장		37.07	78.04	93.05	97.87
남양주시	대규모점포		47.32	76.10	98.11	99.17
	전통시장		2.06	33.23	86.10	97.61
성남시	대규모점포		69.64	99.82	100.0	100.0
	전통시장		80.16	99.90	100.0	100.0
부천시	대규모점포		90.32	100.0	100.0	100.0
	전통시장		91.25	100.0	100.0	100.0
안산시	대규모점포		60.65	97.15	98.67	99.12
	전통시장		52.87	98.53	98.74	99.12
구리시	대규모점포		71.49	100.00	100.00	100.00
	전통시장		66.75	100.00	100.00	100.00
하남시	대규모점포		56.33	98.02	100.00	100.00
	전통시장		59.06	99.78	100.00	100.00
의정부시	대규모점포		61.18	99.56	100.00	100.00
	전통시장		31.44	92.60	100.00	100.00

출처: 국가통계포털

(3) 대중교통 및 도보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을 통한 의료시설 접근성의 경우 경기도 평균 공공의료시설은 35.17%, 병의원은 93.05%, 종합병원은 31.21%로 1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양주시는 공공의료기관은 47.37%, 병의원은 95.19%, 종합병원은 17.22%로 확인된다. 경기도 및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와 비교를 하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높다. 이는 남양주시의 의료시설 접근성이 종합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종합병원 접근성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남양주시는 타 도시에 비해 분산형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외곽지역의 경우 중심 의료시설로의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 성장의 수준에 비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병원의 수 확충이 필요하다.

〈표 30〉 대중교통 및 도보 의료시설 접근성 (2021년 기준)

(단위 : %)

구분		15분 이내	30분 이내	45분 이내	60분 이내
경기도	공공의료시설	35.17	94.01	98.94	99.51
	병의원	93.05	97.35	98.66	99.22
	종합병원	31.21	80.93	92.43	95.69
남양주시	공공의료시설	47.37	97.23	99.20	99.62
	병의원	95.19	98.98	99.42	99.66
	종합병원	17.22	55.90	83.20	96.34
성남시	공공의료시설	36.84	99.18	100.00	100.00
	병의원	99.46	100.00	100.00	100.00
	종합병원	54.13	99.11	100.00	100.00
부천시	공공의료시설	48.28	100.00	100.00	100.00
	병의원	100.00	100.00	100.00	100.00
	종합병원	75.42	100.00	100.00	100.00
안산시	공공의료시설	21.11	97.56	99.67	99.72
	병의원	98.71	99.57	99.66	99.71
	종합병원	28.39	93.55	98.67	99.12
구리시	공공의료시설	80.99	100.00	100.00	100.00
	병의원	99.30	100.00	100.00	100.00
	종합병원	55.03	100.00	100.00	100.00
하남시	공공의료시설	63.21	98.18	99.40	100.00
	병의원	97.04	99.34	100.00	100.00
	종합병원	0.20	95.36	99.23	100.00
의정부시	공공의료시설	12.24	92.24	100.0	100.0
	병의원	99.76	100.0	100.0	100.0
	종합병원	45.39	99.72	100.0	100.0

출처: 국가통계포털

3) 주택과 주거환경

(1) 고령자 거처의 점유형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주거환경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거처의 점유형태를 확인하였다. 남양주시의 자가 평균은 65.6%로 전체 비교 도시 중 2번째로 높다. 부천시(68.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성남시(57.9%), 안산시(63.9%), 구리시(63.1%), 하남시(54.9%)에 비해서도 높다. 신도시 중심의 자가 입주 수요가 많았던 남양주의 주택 정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상 점유율은 2.9%로 비교 도시 중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가족 간 소유주택 제공, 고령자 무상거주, 농촌형 거주지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층 및 무상 거주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또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자가 비율은 높으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주택 정책이 요구된다.

〈표 31〉 고령자 거처의 점유형태 (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사글세	무상
			유	무		
남양주시	65.6	13.5	16.8	1.0	0.2	2.9
성남시	57.9	17.3	21.3	1.5	0.2	1.8
부천시	68.2	11.7	15.7	1.7	0.3	2.4
안산시	63.9	13.3	17.8	1.6	0.2	3.2
구리시	63.1	16.2	17.1	1.3	0.6	2.1
하남시	54.9	17.6	23.8	1.1	0.1	2.6
의정부시	65.8	11.1	19.1	1.2	0.2	2.5

출처: 국가통계포털

(2) 공공주택 공급현황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소득감소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남양주시에는 총 6건의 공공주택이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3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6만 6천호의 주택이 공급 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고령화를 위한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남양주시 공공주택 공급 현황 (2025.02 기준)

사업명	진행현황	사업시행자	수용세대
남양주 진접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509
남양주 다산진건 B2BL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1186
남양주 다산진건 B4BL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1615
남양주 다산진건 S1BL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1685
남양주 다산진건 B5BL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491
남양주 다산진건 B3BL	분양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878

출처: 경기주택공사

4) 사회참여

(1) 독거노인 현황

독거노인 경기도 평균은 7.4%로 확인되며 남양주시 독거노인의 경우 총 21,215명으로 7.7%로 확인된다. 안산시(7.0%), 하남시(6.3%)보다 높으며, 성남시(8.1%), 부천시(8.4%), 의정부시(9.2%) 등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중간 수준의 독거노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독거노인 비율은 5.8%, 2021년 6.3%, 2022년 6.8%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려 독거노인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립 위험,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표 33〉 남양주시 독거노인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 %, 명)

구분	독거노인 가구비율	독거노인	전체 일반가구
경기도	7.4	406,282	5,500,024
남양주시	7.7	21,215	276,687
성남시	8.1	30,922	380,003
부천시	8.4	26,878	320,407
안산시	7.0	18,756	268,028
구리시	8.1	6,012	74,350
하남시	6.3	8,310	131,044
의정부시	9.2	17,800	193,577

출처: 국가통계포털

(2) 여가활동 참여수준

여가활동을 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장소는 집(61.3%)이 가장 많았고 경로당(14.8%) 공원 및 약수터(8.6%)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은 4%에 불과하였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 이어지는 지표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1.9%로 가장 높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28.8%로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건강이 악화되면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여가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고립의 심화를 야기한다. 또한 여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며 외부와의 교류 및 소통에서의 단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표 34〉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장소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명	비율	명	비율
집	307	61.3	79	15.8
경로당	74	14.8	71	14.2
노인복지관	20	4	25	5
종교시설	20	4	54	10.8
공원, 약수터	43	8.6	92	18.4
친구, 친척 집	19	3.8	106	21.2
공공시설	3	0.6	11	2.2
기타	7	1.4	15	3

출처: 2021년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표 35〉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명	비율
시간이 없어서	44	13.8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2	31.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2	25.6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92	28.8

출처: 2021년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한다. 전체 시설 수 기준으로는 남양주시가 563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2024.08 기준)은 성남시(6개소)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시는 1~4개소 사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령화 수준이 유사한 성남시에 비해 노인복지관의 수가 부족하며 구리시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로당(2023.10 기준)의 경우 남양주시가 555개소로 압도적으로 많고, 성남시(384개소), 부천시(369개소)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교실의 수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로당은 노인 주거밀집지역 혹은 마을 중심지 등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남양주시에 경로당이 많은 이유를 도시 면적이 넓어 읍면동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 읍면동마다 경로당 설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지표인 여가활동 참여수준에서 노인들이 집 외에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6〉 남양주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2024.08)	경로당 (2023.10)	노인교실 (2023.04)
남양주시	563	4	555	4
성남시	396	6	384	6
부천시	389	3	369	17
안산시	261	3	255	3
구리시	135	1	129	5
하남시	149	1	146	2
의정부시	257	3	231	20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 남양주시는 2025년 02월 자료요청일 기준 내부자료, 그 외의 시는 표에 기재되어 있는 연도 및 월 기준

남양주시에 위치한 복지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상담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건강생활증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는 별내노인복지관이 개관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인 희망케어센터 4개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운영 중에 있다.

〈표 37〉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다산노인복지관
소재지	본관 : 진건읍 분관 : 진접읍	다산동
이용자 현황 (본관기준)	등록회원 :5,972 1일평균이용자수: 272명	등록회원 :900 1일평균이용자수: 164명
주요 사업	▶ 노인상담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 건강생활증진사업 ▶ 무료급식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 고용증진사업(노인일자리) 등	▶ 노인상담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 건강생활증진사업 ▶ 무료급식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 지역연계사업 ▶ 문화체육이음터 사업 * 2025년부터 노인상담, 노인맞춤돌봄 사업 개시, 2026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분관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 건강생활 증진사업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소재지	본관: 수동면 분관 : 화도읍	남양주시
이용자 현황 (본관기준)	등록회원 :1,112 1일평균이용자수: 159명	등록회원 :7,926 1일평균이용자수: 529명
주요 사업	▶ 노인상담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건강생활증진사업 ▶ 무료급식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노인상담사업 ▶ 노년사회화사업 ▶ 노인권익증진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건강생활지원 ▶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 지역연계사업 ▶ 경로식당 운영 ▶ 저소득식사배달지원 ▶ 인생노트지원사업 ▶ 조사연구개발사업/직원교육/홍보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특화사업	▶ 선택시민 사업 등 ▶ 동아리봉사단 등	▶ 행복누리학교
분관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 무료급식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노인상담사업 등	

5) 존경과 사회통합

(1)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양주시의 노인학대는 297건으로 7개 시에서 가장 높으며 일반사례, 가정학대, 시설학대 중 가정학대의 비율이 전체의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비교도시 중에서도 가정학대의 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양주시는 전체 노인학대 건수, 가정학대, 시설학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정학대 비율(67%)이 높아, 가족 내 돌봄 체계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 시사한다. 그리고 시설학대도 전체의 13%이며 타 시 대비 많으므로 시설 내 인권 보호 모니터링 강화 필요가 요구되며 학대발생 원인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학대 건수는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남양주시 유입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8〉 노인학대 현황 (2024.03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일반사례	가정학대	시설학대
남양주시	297	58	198	41
성남시	227	83	135	9
부천시	213	129	83	1
안산시	147	106	39	2
구리시	84	15	69	0
하남시	59	24	32	3
의정부시	286	206	76	4

출처: 경기데이터드립

*일반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의미

이와 같은 높은 학대건수에 따라 남양주시는 노인학대 예방 조치를 위해 2023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표 39〉 노인학대 예방 조치

조치사항	(2023. 05.) 가정 폭력(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경기북부경찰서)
	(2023. 1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운영 선진화 및 노인학대 예방 전략’ 교육 실시 (남양주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2023.1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증진 위해 복지관 및 경찰서 등 4개 기관 공동 업무협약 체결 ※ 4개 기관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양주남부경찰서, 복지관(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복지관)

	-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서비스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 학대피해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가활동·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위기사례에 대한 평가, 솔루션회의 등의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상호 교류
기타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위한 연 4시간 노인학대 교육 실시(노인복지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 진행

출처: 남양주시 내부자료

(2)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일종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통합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낮은 신뢰도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정도가 낮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도이므로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의미로 사회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은 2022년 66.3%, 2024년 72%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와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 확산에 노력 할 필요가 있다.

<표 40>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024	13.9	62.0	23.5	0.7
60세이상	10.2	61.8	26.7	1.3
2022	20.4	51.8	27.0	0.8
60세이상	18.2	48.1	32.2	1.6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점수는 6.0점으로 동일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응답자 비율은 소폭 감소(44.4→41.7%)하였는데 ‘보통’ 이던 응답자 일부가 만족 쪽 또는 불만족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매우 만족’ 층의 확대를 위한 지역환경·편의시설 개선 등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표 41〉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는 다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매우 만족 한다 ⑩ (%)	평균 (점)
2024	0.9	0.5	1.0	2.4	4.8	41.7	11.7	15.6	12.2	4.8	4.4	6.0
2022	0.1	0.8	1.3	2.2	4.2	44.4	11.0	14.8	10.6	6.3	4.3	6.0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 공동체 의식

노인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동체 의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에 대한 인식 변화는 2022년 42.4%에서 2024년 46.6%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이 소폭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네 이야기 자주 한다”는 응답도 긍정 비율이 2022년 39.8%에서 2024년 40.1%로 소폭 상승했고, 부정 응답은 30.5%에서 26.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긍정 응답이 2022년 42.9%에서 2024년 50.3%로 증가하여 이웃 간 상호돌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더 많이 “이웃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28.0%에서 35.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줄어들어 고령자들이 마을 행사나 소모임 등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42〉 공동체 의식

(단위 : %)

구 분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4	20.2	28.7	32.0	17.2	2.0	26.1	33.7	26.1	12.4	1.7
60세이상	12.0	27.3	31.2	26.8	2.7	20.7	32.4	24.4	20.2	2.3
2022	24.2	29.3	29.3	14.8	2.4	27.7	32.8	26.1	11.6	1.7
60세이상	18.1	22.9	31.3	23.0	4.8	20.3	26.7	29.7	19.2	4.1

구 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4	23.9	30.2	30.4	13.8	1.7	36.6	33.3	21.1	7.4	1.5
60세이상	18.2	31.8	27.1	20.3	2.6	27.8	35.9	20.9	12.6	2.8
2022	26.8	29.5	30.4	11.3	2.0	35.6	33.3	22.4	7.2	1.5
60세이상	20.9	26.2	34.1	14.2	4.6	27.4	29.5	27.4	11.8	3.8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6) 시민참여와 고용

(1)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남양주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5년 현재 기준 5개 기관, 164개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역량활동,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과 노인 인식개선 및 세대통합 등에 있어 유의미하다.

남양주시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지자체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명)

수행기관명	소재지	사업유형	배정 인원
남양주시니어클럽	진건읍 진건오남로 379	26개 사업단	1,966
대한노인회 남양주취업지원센터	금곡동 경춘로 883-36	23개 사업단	1,570
남양주실버인력뱅크	진건읍 진건오남로 359	11개 사업단	870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수동면 비룡로 801-47	10개 사업단	587
해피누리노인복지관	호평동 늘을2로 67	12개 사업단	570

출처: 남양주시 내부자료

〈표 44〉 남양주시 유형별 일자리 사업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사업량(명)	5,563	3,305	1,392	638	228

출처: 남양주시 내부자료

(2) 자원봉사자 현황

남양주시의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205,003명으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 시군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 부천, 안산시와 비교하면 3개의 도시에 비해 자원봉사자의 수는 적다. 이는 실제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고령화 수준이 비슷한 성남시 구리시와 비교하면 세 도시가 모두 12~14% 수준의 자원봉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시대에서 자원봉사는 단순한 지원봉사자를 넘어 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의 사회적 돌봄의 대체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45〉 자원봉사자 현황 (2025.02)

(단위 : 명)

구분	합계	연령별							
		14세 미만	14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양주시	205,003	3,558	26,898	68,180	22,117	30,170	29,502	15,351	9,227
성남시	367,685	3,483	28,948	116,743	78,434	46,083	46,642	28,584	18,768
부천시	249,859	2,428	22,385	85,924	51,119	25,196	28,082	22,266	12,459
안산시	240,363	1,446	19,954	86,654	45,059	21,675	35,625	22,760	7,190

구리시	72,194	1,002	6,792	23,567	12,394	8,178	9,905	6,718	3,638
하남시	72,434	1,612	9,189	18,898	13,478	12,022	8,215	5,908	3,112
의정부시	128,689	1,628	12,806	43,602	20,575	14,191	17,901	11,889	6,097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현황

7) 의사소통과 정보

(1)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남양주시 관내 노인복지관 및 관련 기관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관에 협조 요청 후 관련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남양주시 관내 기관에서 진행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다수의 기관에서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태블릿 PC 활용 교육과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주요 교육 효과로는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 사회적 소통과 참여 확대,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고립감 완화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자료를 통한 공통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맞춤형 교육 및 세부화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키오스크 등 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초급/중급/고급 등의 단계별 수업 운영의 필요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력 사업 추진의 개선방안이 있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충,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및 소규모 그룹 혹은 1:1 지도 활성화가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46〉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현황	2022	스마트폰	스마트폰 활용 교육 (카카오톡, 줌 및 유튜브 활용 등)	- 실시간 줌(ZOOM), 유튜브 시청 등 상황에 따른 교육 지식 습득 및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 기관(KT IT센터) 연계를 통한 전문 지식 습득
		키오스크	키오스크 활용 교육 및 자율체험	디지털 역량격차 해소 및 키오스크 활용 능력 향상
		시민정보화	시민정보화교육	정보격차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
		치매예방 (태블릿PC)	태블릿 PC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보화기기(태블릿PC) 교육을 통한 치

			(경기광역치매센터연계)	매예방 및 새로운 체험 기회 제공
		컴퓨터초급/중급	•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정보화 지식 습득	- 기초 교육을 통한 인지력 및 자신감 향상 - 자기개발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
	2023	스마트폰	• 스마트폰 기초부터 활용 교육 (앱설치 및 사용방법 등)	-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및 활용 능력 향상
		스마트폰(고령)	• 80세이상 고령자 스마트폰 기초교육	-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지식 습득
		컴퓨터(PPT/영상/인터넷 활용,인터넷기초,입문)	• PPT,영상,인터넷,입문 등 분야별 교육을 통한 정보화 지식 습득	- 분야별 수업 지도를 통한 정보화 격차 해소, 자신감 증진 및 지식 향상
	2024	스마트폰	• 스마트폰 기초부터 활용 교육 •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 설치 및 활용, 사진 촬영 등	- 단계별 기초 지식 습득 및 활용 능력 향상 -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자신감 향상
		컴퓨터(PPT/영상/인터넷 활용,초급,중급)	• PPT,영상,인터넷,입문 등 분야별 교육을 통한 정보화 지식 습득	-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지식 습득 및 자신감 향상 - 분야별 활용 능력 향상
개선 방안	1. 외부지원사업 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 진행 -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태블릿PC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정보화기기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지식 향상 및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2. 단계별·분야별 스마트폰 교육 진행 -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택시 이용, 은행 거래 등 스마트폰 기기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소규모 및 자원봉사자 활용 교육 진행 - 개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10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대1 교육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표 47〉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2024	경기시청자미디어	• 스마트폰을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직접 영

현황		재단과 함께하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	한 영상제작 만들 기	상 콘텐츠를 기획·촬영·편집해보며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향상 - 일상 속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표현력과 자신감 향상
개선 방안		1. 스마트폰 활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자체 제작 - 어르신들의 이해 수준과 사용 기종(안드로이드/아이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폰 활용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 함. - 기본 조작법부터 사진·영상 촬영, 앱 설치·삭제, 카카오톡 활용, 정부24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주제를 분류하고, 단계별로 쉽게 설명된 자료로 구성함. 2. 자조모임 및 ‘디지털 동행 서포터’ 양성으로 자생적 학습 분위기 조성 - 교육 수료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동행 서포터’로 선정하여 복습 시간이나 연습 모임을 지원하도록 유도함. - 공식 수업 외에도 참여자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물어볼 수 있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학습 공동체 형성 가능.		

〈표 48〉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현황	2022	스마트폰 왕초보	• 스마트폰 작동법 기초 교육	- 기본 사용 능력 향상 - 디지털 소외 해소
		스마트폰 아카데미	•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 사회참여 확대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2023	스마트폰 왕초보	• 스마트폰 작동법 기초 교육	- 기본 사용 능력 향상 - 디지털 소외 해소
		스마트폰 아카데미	•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 사회참여 확대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컴퓨터 기초	• 컴퓨터 작동법 기초 교육	- 기초 조작 능력 향상 - 정보 검색 능력 향상
		컴퓨터 활용	• 컴퓨터 활용 교육	- 디지털 업무 능력 향상 - 사회 참여 및 소통
	2024	스마트폰 왕초보	• 스마트폰 작동법 기초 교육	- 기본 사용 능력 향상 - 디지털 소외 해소
		스마트폰 아카데미	•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 사회참여 확대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선 방안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진행(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진행			
	- 복지관 로비 연습용 키오스크 마련			

〈표 49〉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2022	• 컴퓨터 입문/	• 컴퓨터 및 스마트폰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현황	2023	활용	익히기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상승
	2024	- 스마트폰 기초/중급/활용 - 영상만들기 - 어플활용		
개선 방안	1. 복지관 일자리 어르신을 활용한 ‘스마트 매니저’ 운영을 통해 디지털 교육진행 및 복지관 내 디지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계획 3. 스마트기기 체험 공간 조성으로 복지관 내 디지털 접근성 및 디지털 활용 환경 개선			

〈표 50〉 서부희망케어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현황	2022	스마트폰 활용교실	스마트폰 기초 알아보기	- 입주민 사회적 관계 및 이웃 안부확인 구조 형성 -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기능 익히기
	2023	스마트폰 활용교실	편리한 일상생활 누림을 위한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	
	2024	스마트폰 활용교실	키오스크 사용법 익히기	
		삼육대와 함께하는 특별한 날	삼육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 제공	- 실생활에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및 젊은 세대와 교류를 통해 고립감 완화 - 디지털 소외 세대의 현실을 체감하고 배려, 공감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통한 세대 간 이해증진 - 복지관 단독 운영보다 더 풍성하고 실용적인 교육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 대학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폰 활용교실 초/중/고급반 분반 운영 - 반복학습을 위한 스마트폰 동아리 활동(소그룹) 2. 청년-시니어 세대 간 연결 디지털 멘토링 : 대학생 자원봉사자 매칭 3.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복지관 내 키오스크 기기 설치			

〈표 51〉 북부희망케어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 현황	2024	케어안심주택 스마트기기 교육	-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진단 및 스마 트기기 활용 교육 진행	- 사회복지현장 실습생 연계하여 스마트폰 교육 준비 및 교육 진행 - 스마트기기 기본 작동 능력 교 육을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을 향상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능력 향 상									
		노인 공동체 자조모임 우하청 스마트기기 교육	<table><tr><th colspan="2">내 용</th></tr><tr><td colspan="2">스마트폰 사전 자가진단</td></tr><tr><td>기초이해</td><td>전화 사용법</td></tr><tr><td>카카오톡 사용법</td><td>문자 사용법</td></tr><tr><td>유튜브 이용 방법</td><td>카메라 사용법</td></tr><tr><td>보이스 피싱 교육</td><td>와이파이 사용법</td></tr></table>		내 용		스마트폰 사전 자가진단		기초이해	전화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문자 사용법	유튜브 이용 방법
내 용													
스마트폰 사전 자가진단													
기초이해	전화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문자 사용법												
유튜브 이용 방법	카메라 사용법												
보이스 피싱 교육	와이파이 사용법												
개선 방안	- 교육 회기 늘려 스마트기기 작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폰 교육 이외 키오스크 교육 등 다양한 스마트 디지털 매체 교육을 준비 하여 디지털 소통 능력을 향상 하도록 함												

8)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현황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85개로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13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0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는 90개, 단기보호시설은 1개, 방문 요양 등 재가서비스는 206개로 총 297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많은 시설 수를 보유하고 있어 노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거시설의 경우 모든 유형의 주거복지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타 비교도시에 비해 가장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의료시설도 남양주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노인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생활가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재가서비스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 수도 가장 많았다.

〈표 5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2025.01)				노인의료 복지시설 (2024.09)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024.09)				합계
	합 계	양 로 시 설	노 인 보 지 주 택	노 인 공 동 생 활 가 정	합 계	노 인 요 양 시 설	노 인 요 양 공 동 생 활 가 정	합 계	주 · 야 간 보 호 센 터	단 기 보 호	방문 요양 등 재가 서비스	
남양주시	4	-	2	2	185	135	50	297	90	1	206	486
성남시	6	1	4	1	41	34	7	189	38	-	151	236
부천시	1		-	1	136	93	43	240	43	-	197	377
안산시	5	2	-	3	144	98	46	160	30	2	128	309
구리시	-	-	-	-	20	13	7	54	14	-	40	74
하남시	1	1	-	-	21	17	4	100	17	-	83	122
의정부시	1	1	-	-	105	80	25	155	38	-	117	261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 데이터는 내부자료

(2)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2021년 진행한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478명의 응답자 중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22.2%), 노인의료복지시설(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167	33.3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111	22.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77	15.4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단기보호 등)	62	12.4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예방 등)	25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 클럽 등)	36	7.2

출처: 2021년 남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3)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남양주시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8.4개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3개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비교 도시인 하남시(6.6개) 보다는 높지만 안산시(15.4개), 부천시(14.1개), 구리시(14.5개), 부천시(14.1개), 의정부시(13.1)보다는 낮다. 유사한 고령인구 수준을 보이는 성남시와 구리시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 총 병상 수는 6,180개로 주민등록인구가 732,265명에 달하는 대도시임을 고려하면, 의료 인프라의 확충 및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농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기본인권인 건강권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확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표 54〉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23년 기준)

(단위 : 명, 개)

구분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	총 병상 수	주민등록인구
경기도	10.3	140,056	13,630,821
남양주시	8.4	6,180	732,265
성남시	11.5	10,593	919,747
부천시	14.1	11,015	779,968
안산시	15.4	9,690	629,308
구리시	14.5	2,711	187,093
하남시	6.6	2,186	329,861
의정부시	13.1	6,096	464,213

출처: 국가통계포털

(4) 종합병원·병, 의원 수

상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남양주시가 2개로 확인된다. 이는 인근 성남시(7개소, 4,054병상)나 부천시(6개소, 2,349병상)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남양주시가 총인구가 136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을 고려한다면 시민 1인당 병상 수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병·의원 수는 총 1,210개소로, 의원 수 623개, 병원 수 16개, 병상 수 363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중대형 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이나, 여전히 병상 확보 면에서는 뒤쳐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부천시는 남양주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수(834개)나 병원 수(18개) 면에서 더 앞선다. 남양주시가 양적·질적 의료 인프라 확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보여준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할 때, 향후 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유치 및 병상 수 확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55〉 종합병원 수 (2025.03 기준)

(단위 : 수)

구분	병원수	병상수
경기도	68	27,554
남양주시	2	701
성남시	7	4,054
부천시	6	2,349
안산시	5	2,021
구리시	1	531
하남시	-	-
의정부시	5	1,928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표 56〉 병, 의원 수 (2025.03 기준)

(단위 : 수)

구분	병원수	병상수	의원수	병상수
경기도	279	25,116	8,022	10,664
남양주시	16	1,210	623	363
성남시	18	1,759	820	757
부천시	18	1,341	636	834
안산시	18	1,331	404	738
구리시	16	2,373	341	309
하남시	18	2,047	429	281
의정부시	40	5,847	574	340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5) 의료기관 만족도

의료기관 만족도는 2022년 49%, 2025년 53.8%으로 4.8% 상승하였다. 불만족 시 개선사항의 1 순위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로 2022년 24.9% 2024년 35.8%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2022년 10.9%, 2024년 20.2%로 2022년 조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성 개선과 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노인들이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57〉 의료기관 만족도

(단위: %)

구분	의료기관 만족도					불만족 시 개선할 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	의료비용 과다	의료진 불친절	치료결과 미흡	기타
2024	14.3	41.6	33.3	9.2	1.6	23.9	21.1	19.3	13.1	18.6	4.0
60세이상	13.8	40.3	34.0	10.3	1.5	35.8	20.2	17.6	10.7	11.9	3.8
2022	16.4	31.1	43.6	7.6	1.3	15.9	17.4	20.2	26.2	18.7	1.6
60세이상	18.8	30.2	42.1	7.5	1.4	24.9	10.9	18.8	20.2	23.6	1.6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6) 보건소 이용 만족도 및 희망서비스

보건소 이용 만족도로는 2022년 49.5%, 2024년은 59.6% 만족도로 확인되면서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불만족 시 개선할 점으로는 1순위가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로 2022년에는 49.8%, 2024년은 68.0%로 큰 폭으로 욕구도가 상승하였다. 2순위인 의료시설 및 장비부족도 2022년 13.5%, 2024년은 32.0%로 크게 상승하였다.

보건소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 문제에서 불만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의료기관 만족도와 동일한 결과로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접근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표 58〉 보건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보건소 이용 경험 있다	보건시설 이용 만족도					불만족 시 개선할 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	의료비용 과다	불친절	치료결과 미흡	기타
2024	14.5	22.8	39.7	31.6	4.6	1.3	45.7	18.2	0.0	23.5	12.7	0.0
60세이상	14.6	22.1	37.5	35.3	4.3	0.8	68.0	32.0	0.0	0.0	0.0	0.0
2022	30.3	16.6	24.4	49.3	8.3	1.4	46.8	14.8	0.0	27.3	2.3	8.8
60세이상	32.5	22.4	27.1	41.8	7.5	1.2	49.8	13.5	0.0	23.1	9.0	4.5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 밖에도 향후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1순위 노인보건사업 2순위 건강검진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2개의 사업 역시 2022년보다 2024년 욕구도가 상승한 바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있겠다.

〈표 59〉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단위: %)

구분	향후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모자보건 사업	노인보건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건강검진 사업	기타
2024	4.2	25.2	10.8	23.3	35.2	1.4
60세이상	1.6	53.2	5.3	14.8	24.2	1.0
2022	3.3	19.5	9.4	35.1	32.0	0.9
60세이상	1.2	44.5	5.1	24.6	23.8	0.9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7)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향후의 질병 발생을 예측하는 지표이기도 하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인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가 적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단순히 건강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생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2년에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 2024년에는 26.7%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7.2%에서 2024년에는 2.9%로 4.3%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체기능 저하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우울감 증가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할 가능성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지표의 하락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표 60〉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24	7.7	39.7	40.5	10.2	1.9
60세 이상	2.9	23.8	47.9	21.4	4.0
2022	12.5	38.6	35.5	11.8	1.5
60세 이상	7.2	22.0	39.5	27.2	4.1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8) 건강검진 수진율

노인에게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질병의 조기 진단은 향후 치료 비용과 장기요양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남양주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2023년에는 74.7%, 2024년에는 70.6%로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풍양보건소의 경우 2023년 87.7%, 2024년에는 88.9%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61〉 건강검진 수진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남양주시	2024 (n=916)	66.6	63.5	69.7
	65세 이상 (n=245)	70.6	73.2	68.4
	2023 (n=911)	72.2	69.0	75.2
	65세 이상 (n=224)	74.7	74.5	74.7
남양주시	2024 (n=900)	77.4	76.8	77.9

풍양	65세이상 (n=238)	88.9	91.2	87.2
	2023 (n=905)	75.2	72.3	78.1
	65세이상 (n=201)	87.7	86.2	88.9

출처: 2023,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인 있는 사람임.

(9)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삶에 대해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60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점, 2024년에는 5.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낮은 점수, 즉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0점과 1점이 약 0.5점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의 하락폭은 0.1점으로 크지 않으나 0점과 1점의 점수 상승의 폭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표 62〉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평균 (점)
2024	1.1	0.7	1.7	3.6	4.0	34.4	10.5	16.3	15.7	7.2	4.9	6.2
60세이상	1.1	1.2	1.6	2.5	3.9	41.6	13.6	13.2	11.2	5.9	4.1	5.9
2022	0.7	0.7	1.7	2.9	4.1	35.8	11.4	17.5	15.5	6.3	3.5	6.1
60세이상	0.5	0.6	1.6	2.1	4.1	43.4	12.4	13.7	11.8	5.8	4.0	6.0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0) 우울감 경험률

우울감의 장기화는 향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울감을 겪는 노인의 경우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등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우울감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남양주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 경험률 조사 결과 2022년에는 건강조사 참여 인구 222명중 6.7%, 2023년은 12.6%, 2024년은 14.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풍양보건소의 경우에는 2022년 17.0%으로 높았다가 2023년 11.8%, 2024년 14.7%으로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2023년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감 예방을 위한 고령친화적 정책이 요구된다.

〈표 63〉 우울감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남양주시	2024 (n=916)	8.3	6.3	10.3
	65세 이상 (n=245)	14.1	9.9	17.5
	2023 (n=911)	8.1	4.8	11.3
	65세 이상 (n=224)	12.6	11.0	14.0
	2022 (n=912)	7.1	7.3	6.9
	65세 이상 (n=222)	6.7	7.9	5.6
남양주시 풍양	2024 (n=900)	9.7	8.3	11.0
	65세 이상 (n=238)	14.7	11.4	17.3
	2023 (n=905)	9.2	6.7	11.6
	65세 이상 (n=201)	11.8	7.7	15.0
	2022 (n=900)	12.2	8.6	15.7
	65세 이상 (n=192)	17.0	13.6	19.8

출처: 2023,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1) 자살생각률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은 자살을 위험 요인이다. 그러므로 예방과 조기 개입은 필수적이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부터 노인 대상 자살생각률 문항이 추가되어 이를 진단하였다. 남양주시의 경우 응답자 245명 중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2.7%의 비율을 보였으며 풍양보건소의 경우 12.5% 수준으로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의 비율을 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 자살생각률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남양주	2024 (n=916)	8.8	7.1	10.4
	65세 이상 (n=245)	12.7	8.7	16.0
남양주 풍양	2024 (n=900)	7.4	5.9	8.9
	65세 이상 (n=238)	12.5	11.2	13.5

출처: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 2022년, 2023년 보고서에는 해당 질의를 하지 않아 2024년 결과만 기록하였음

(12)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형성, 노인학대 예방,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022년 90.1%, 2024년 82.9%로 7.2% 하락하였다. 평균 인원은 큰 차이는 없으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65〉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다	평균 인원	없다
2024	88.9	4.7	11.1
60세이상	82.9	3.7	17.1
2022	93.7	4.4	6.3
60세이상	90.1	3.5	9.9

출처: 2022년,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IV. 남양주시 고령친화 도시 현안과 발전 방안 의견수렴(FGI)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남양주시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FGI 분석

제3절 남양주시 노인 당사자 FGI 분석

IV.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 방안 의견 수렴(FGI)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질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를 채택하였고, 풍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노인복지분야 전문가와 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관련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Morgan,1998)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주제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김정남, 김후자,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FGI 방법을 사용하여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분야 전문가와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담아내었다. 인터뷰는 집단별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FGI 진행 개요는 아래 <표 66> 와 같다.

<표 66> FGI 진행 개요

(1)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일 시 : 2025년 3월 14일(금) 14:00~16:30 장 소 : 남양주시 복지재단 4층 소회의실	(2) 노인 당사자 일 시 : 2025년 3월 21일(금) 14:00~16:30 장 소 : 남양주시 복지재단 1층 회의실
내 용 :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기반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 개선점, 정책 욕구 등 의견 제시	



2. 조사내용 및 분석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방법, 면접지를 안내하여 정해진 인터뷰 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지는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8개 영역별 현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의 철회와 중지, 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초점집단 면접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FGI의 목적은 참여자들 간 합의가 아닌 다양한 의견의 취합이므로 연구자가 별도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영역별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영역별 항목 순서가 지나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GI로 수집된 자료는 전사 후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은 어떤 사건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구성의 맥락과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자료에 대한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분석 방법(김슬옹, 2009)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에 관련된 인식과 이해를 탐색하기 위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비교와 대조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여 범주화하고 각 주제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피면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해 하였다.

제2절 남양주시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FGI 분석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령친화도시 사업 진행과 관련된 노인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전문가’라 함은 특수 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고, 그 분야의 학자 또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장안서 외, 2021).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내부 및 인근 지역의 노인복지 현장과 고령친화도시 사업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 7인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고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67>와 같다.

〈표 67〉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소속	직위	성별	나이	노인복지관련 경력
참여자1	구리시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남	49세	8년
참여자2	남양주시 노인시설지원팀	팀장	남	52세	5년
참여자3	남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	여	52세	25년 5개월
참여자4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남	66세	8년
참여자5	다산노인복지관	관장	여	51세	2년
참여자6	경북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남	63세	6년
참여자7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관장	남	47세	18년

2. 영역별 분석결과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는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보건환경’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구분하였고 해당 영역들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영역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68〉와 같다.

〈표 68〉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인터뷰 영역별 분석결과

구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영역	내용
물리적 환경	야외공간과 건물	-보행 환경 개선 -공공시설 공간배치와 접근성 강화 -휴식 공간 및 여가문화시설 부족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 수용도 -고령 운전자 지원 및 안전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차 해소
	주택과 주거환경	-고령자 맞춤형 주택 유형 -노인 주거 지원 정책 및 문제점 -노인 친화적 주택설계 기준 및 개선 방향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참여	-지역별 여가시설 불균형 문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한계 -문화·체육·사회활동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지역 기반 여가 활동 및 민간 협력 필요
	존경과 사회통합	-세대 간 교류의 부족과 개선 방안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중 문화 확산

	시민참여와 고용	-노인의 자발적 취업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 -노인 전문 일자리 및 봉사활동 확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 강화
	의사소통 및 정보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 필요성 -공공 정보 접근성 및 정보의 다양성 문제 -디지털 소외 문제와 해결 방안
보건환경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고령자 건강 예방 및 돌봄 지원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돌봄 지원

1) 물리적 환경

(1) 야외공간과 건물

① 보행 환경 개선

- 인도 턱 문제: 기존 도로와 인도 높이가 높아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많음. 특히 오래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 신호등 시간 부족: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짧아 어르신들이 서둘러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저희 아파트 지역에 이제 인도 자체가 턱이 높아요. 거기서 넘어지는 어르신을 많이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그거 도로 정비 인도 턱부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물론 이제 아파트 새로 짓는 것들은 낮게 이제 하고는 있으나 오래된 이제 시가지는 아직도 그게 부족하고 특히 오래된 지역에 더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치시는 걸 봐서 그게 좀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신호등 특히 신호등 어르신들이 가는 그 시간대가 너무 짧아서 어르신들이 늘 거기 거리에 쫓아가느라고 뛰어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참여자3)

“ 횡단보도가 너무 넓어요. 차선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이 보행이 어려우신데 걸으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끊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좋지만 낮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는 눌러서 본인들이 건너실 때 시작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위험성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5)

② 공공시설 공간 배치와 접근성 강화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지역별 고령 인구를 반영한 시설 배치가 이뤄지지 않음. 특정 지

역 어르신은 이동거리, 교통 접근성, 시설 부족 등으로 여가와 외부활동 제약 심화. 신규개발 지역 중심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기존 주거지의 고령자는 소외되고 있음. 도시계획 단계에서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밤에는 더 주차 힘들어 하시는데 좁기도 하고 어르신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요
공공시설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전용 존이 이제는 앞으로 대세가 좀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 친화 도시면 그런 주차 공간도 좀 일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참여자3)

“남양주가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신도시 쪽 어르신들은 그래도 좋은 환경이신데...”(참여자5)

“ 외부 환경 새로 만들 때에 예를 들면은 중앙정부가 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안전이든 노인 이동의 편리성이든
이런 부분과 관계되는 규제의 부분이 있다면 되게 강하게 좀 가져와서 할 필요가
있다는..”(참여자6)

③ 휴식 공간 및 여가문화시설 부족

-녹지 공간 확대: 노인들이 산책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노인 전용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게이트볼장 등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벤치 설치 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 설치가 필
요함. 일반 벤치가 아닌 온열 기능이 포함된 고령 친화적 벤치가 요구됨

“어르신들이 편의시설 중에 하나가 녹지 공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 전용
박물관이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참여자3)

“남양주 지역에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에 어르신 파크 골프도 하고 우리가 주최해서 하는데 파크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 왕숙천에 파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참여자4)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제 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쉴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보통 이렇게 앉아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동하시고
근데 벤치도 이제 일반 벤치가 아니라 뭔가 고령 친화적
이런 벤치 디자인을 적용을해서 온열 벤치도 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벤치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좀 어르신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한고 꼭 필요한 벤치일 수도 있거든요.”(참여자1)

(2) 교통수단

① 대중교통 이용 수용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운전자 및 승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대중교통 운전자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 교육이 중요함

“일단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제 버스 탈 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운전자들이 좀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고령 친화 도시 이제 조성 사업을 하려면 그런 운전자들의 친절한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좀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참여자1)

② 고령 운전자 지원 및 안전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차량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를 높게 제공하여 반납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인 보호 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시설(신호, CCTV)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됨.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많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실은 차 자가 점검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걸 정기적으로 차 검사 잘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물고 다니지 고장 나지 않은 이상..” (참여자3)

“고령자 이제 운전자 사고가 많잖아요. 면허증을 이제 반납을 했을 때 좀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시에서 좀 지원해줘서 그 반납률을 높여가지고 어르신들 사고율을 좀 줄이는 방법도...”(참여자1)

“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노인 보호 구역이 돼서 신호 과속 카메라도 생기고 하니까 확실히 너무 안전해졌고...” (참여자 7)

③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보행로 및 대중교통 승하차 공간에서 장애물 제거와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노인 보호 구역 내 속도 제한 및 단속 장치 강화 필요함.

“저상버스가 좀 많이 나오고 저상버스는 좀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참여자6)

“ 저상 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상버스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정류장까지 같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참여자2)

④ 대중교통 이용 편차 해소

수동, 금남리, 조안리 지역은 버스 배차간격 1시간 이상이므로 모심카, 뽕큐버스, 희망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해 새로운 방식의 교통편 제공으로 편의 제공 필요함.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증차 예정임이 확인됨.

“제가 수동에 살았었는데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버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가 아니고서는 거기서 못 살아요. 특히 거기 수동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 조금 불편하시죠 수동뿐만이 아니라 금남리 조안리 쪽도 마찬가지로요.” (참석자3)

“셔틀로 그냥 시간대별로만 하면 어르신들의 장점은 시간은 있잖아요 사실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시간만 정확하면은 돼 있으니 아까 봤던 천 원 택시 식의 내용이 안 된다면은 정해진 셔틀을 움직여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참여자6)

“희망 콜이라든지 아니면 모심카가 있고 조안리 쪽에서는 거기 행복 택시 했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실 어르신들이 저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참석자5)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휠체어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지금 바우처 택시를 작년부터 한 30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올해 4월부터 30대 증차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동권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참여자2)

3) 주택과 주거환경

① 고령자 맞춤형 주택 유형

-실버타운 및 공동주거: 용인에서는 이미 세대 간 공동형 주택을 설계하여, 부양자가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인근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함.

-분리형 주택: 한 평형 내에 출입문이 두 개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

할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례가 있음.

-노인 전용 아파트: 노인 전용 아파트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일부에서는 노인 친화적 복지주택과 연계된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용인은 벌써 그걸 앞서 가더라고요. 실버주택 실버주택도 그렇고 세대간 공동형의 주택을 벌써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양자가 같이는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같이 모실 수 있게..”(참여자3)

“다산의 임대 아파트 같은 거에 노인 전용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이제 세상의 트렌드가 변하면은 실버 전용의 무슨 아파트들이 이제 되게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한 평형 안에 출입문이 두 개 그런 걸 얘기하는.. 용도동에서 한번 봤는데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참여자6)

“환자 복지주택이라는게 한 동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어쨌든 통합도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참여자5)

② 노인 주거 지원 정책 및 문제점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필요: 많은 노인들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주택 개보수 비용이 충분하지 않음. 이에 따라 노후된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택 개보수 지원 한계: 현재 일부 주거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자가 소유자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월세 거주 노인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집수리를 좀 부탁하는 가정들이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고 또 오래 거기서 머물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임대 아파트 가기보다는 살고 있던 곳에서 그래서 주택 개보수 비용이 충분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개보수 지원 사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참여자3)

“경사로를 우선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안전문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공적인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참여자5)

③ 노인 친화적 주택설계 기준 및 개선 방향

-스마트 홈케어 도입: 신축 고령자 주택에는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자동 문 개폐, 가스 차단기, AI 스피커 등)이 포함되도록 정책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택 개보수 표준화 필요: 주택 개보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장기요양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하는 게 AI 돌봄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밴드처럼 이렇게 스마트 밴드처럼 차고 있어가지고 이동을 안 하시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도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참여자2)

“ 주거환경에서 표준화된 뭔가의 기준 물을 가지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신청이 되면은 딱 그런 세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청하기도 편하고 같은 그러면 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분들이죠. 최소한의 부분들을 안전 확보를.... 주거 환경에서는 만약에 고령 친화형이라면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아예 밀고 들어가는 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6)

2) 사회문화적 환경

(1) 사회참여

① 지역별 여가시설 불균형 문제

남양주시의 경우, 지역별 여가시설 편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특히 화도, 수동 지역은 인구 대비 여가시설이 부족함.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노인 여가 및 문화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음

“지역내 그러니까 화도 수동 인구 대비해서 특히 화도는 인구 대비 여가 시설이 정말 경로당 외에는 노인 복지관 조그만거 그나마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거기가 가장 노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가시설이 정말 전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지역 편차가 큰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3)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지만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셔서 뭔가 취미 생활 아니면 체육 증진 생활 그런 쪽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파크 골프도 하지만은 남양주 지역에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권역별로 이렇게 이런 체육 시설도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권역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강 증진을 그런 바람직한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참여자4)

②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한계

남양주 내 경로당은 555개, 노인복지관은 6개(분관 포함) 존재하지만, 인구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황. 경로당은 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여가활동 중심으로 운영됨.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사업 담당자의 고용상태 변동과 예산지원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 지속성 부족함.

“남양주에 경로당이 555개있고, 거점 되는 복지관들이 이제 6곳이 있지만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적은 시설로 되어있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어도 그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관 내에서 하는 거나 관 외에서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추진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참여자5)

“경로당이 사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은데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개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이거든요.” (참여자4)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다양하게 여가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지 이게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참여자1)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고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그런 흐름을 좀 쫓았는데 그게 중단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담당했던 담당 직원이 다른 과로 가버리니까 연속적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죠.”(참여자2)

③ 문화·체육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주민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지만, 젊은 층이 많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운영 시간대가 한정적(평일 낮)이라 많은 노인이 참여하기 어려움. 노인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시간대 확장이 필요함.

일부 노인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단체 활동 및 사회활동이 제한됨.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예: 덕담 카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함.

“저희 지역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가 주민자치센터밖에 없어요. 아니면 체육 문화 센터 저희는 그나마 같이 붙어 있어서 그 인근에 사시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또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제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참여자3)

“나이 제한도 있고 또 젊은 층이 많으면 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어르신들의 이제 좀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이 조금 적절한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에 좀 많이 배치가 돼야 하고 그만큼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 연령층을 고민하고 강사에 맞춰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대도 한정돼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그리고 또 체육문화 시설도 마찬가지로인 거죠.다 성인을 위주로요.”(참여자4)

“경로당은 나이 많으신 분들만 가지고 그 틈새에 계시는 분들이 실은 저희 센터에 덕담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침에 오셔서 신문 보고 가시고요. 거기서 그냥 담소 나누시고 가세요.

그렇다고 당신들이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카페를 못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니까 거기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고
결국은 이제 삼삼오오 모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제 그 부담이 되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아니면 아예 활동을 좀 잘 자제하는 것 같아요.”(참여자3)

④ 지역 기반 여가 활동 및 민간 협력 필요

‘이음터 사업’ 과 같은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음

예: 노인이 지역 내 업체(체육·문화시설)에서 탁구, 스크린 골프, 기타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연결.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

종로구 사례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바우처 형태)을 도입해 노인의 소비 활동과 여가활동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노인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저비용이지만, 외부 프로그램은 지원이 부족해 참여가 어려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확대 및 재정 지원 필요함.

“이음터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체육 문화시설들을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 지역을 가서 그 업체에 가서 탁구도 배우고 스크린 골프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오히려 조금 새로운 접근이고 그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참여자5)

“탐골공원 부근에 무료 급식소가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놀 만한 거리 어르신들이 놀 만한 거리에 민간의 어떤 공급 인프라 활용해서 바우처 쿠폰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줘가지고 이거 영역 내에서 사게 되면은 100원짜리 살 거 쿠폰이 있거나 이러면 50원만큼 어떻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참여자6)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노인 복지관을 권역별로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우선순위를 기존에 있는 지금 경로당이 됐든 아니면 민간 자원이 됐든 그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더 갈 수 있는 부분...”(참여자2)

“고령 친화형과 관계되는 것들의 부분들에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민간이 유치해서 가져가게끔 그러니까 공은 분위기만 이렇게 띄워주고 싹 빠지고 그 안에서 바우처가 되는 몇 가지의 경제적인 점을 제시를 하면서 ..”(참여자6)

(2) 존경과 사회통합

① 세대 간 교류의 부족과 개선 방안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교류 기회가 부족함

-경로당의 배타성 문제: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었지만, 기존 회원들만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움

-물리적 공간 공유: 해외 사례처럼 경로당과 어린이 돌봄 시설을 같은 공간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 제안. 과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같은 건물에 있을 때, 노인들이 동화 구연이나 한자 가르치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졌던 사례(어울림 사업 등) 언급됨

“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제도인데 막상 그걸 운영하다 보면 외부인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기존에 그냥 회원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되게 배타적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통합을 좀 하려면 우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식 교육부터 일단은 먼저 해서..”(참여자1)

“경로당에서 어울림 사업을 해서 방과후 애들 이제 맞벌이 부부 자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경로당에서 간식 주고 기본적인 뭐 이제 학습 도서를 좀 하고 주로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들 그 시간에 케어를 하는 거죠.”(참석자4)

“외국 사례도 보면 이제 앞으로 저희보다 선진국 보면 같이 시설을 짓는 거예요.
다함께 돌봄이나 아니면 이제 전 학령기를 돌보는 시설하고 경로당 같은 개념 그래서 그 같은 공간에 분리만 좀 했고 교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거기서 돌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참여자3)

“복지관 리모델링 전에는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도 거기 가서 동화 구연도 하고 한자도 가르쳐주고 학부모들도 오셔서 자연스럽게 노인복지관 구경도 하고 가끔 가족 프로그램도 하고 그때는 다른 시설이지만 다른 시설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참여자7)

거의 같은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경로당에서 육아나 또는 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탈렌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애들한테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자 모르잖아요.
애들. 근데 어른들은 한자 많이 아니까 그렇죠 서당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천자문 교실 하고 해서 몇명 데려다 놓고 시작하고 평은 좋았는데 .”(참여자6)

②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중 문화 확산

- 경로당 명칭 세대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필요
- 노인 대상 서비스 종사자의 태도 문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노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명칭 자체를 좀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명칭으로 좀 변경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경로당 안에 그 공간을 젊은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어르신들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통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1)

“경로당 명칭이 너무 딱딱한 이미지라 접근하기에 되게 좀 어려운 벽처럼 느끼는 면이 있어서 맞아요. 좀 순화되고 좀 더 좋은 편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걸 도입해도 훨씬 이미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참여자2)

“물리적인 공간도 공간이지만 저희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쨌든 마인드 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도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진을 했었고 그 안에서 해결됐던 부분이 되게 작은 장이었지만 소통 다산이라는 것을 해봤었어요. 사회복지관들이 이러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작지만 끊임 없이 하고 하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러한 존중과 통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5)

(3) 시민참여와 고용

① 노인의 자발적 취업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인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임. 평생학습관 등을 활용하여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 있음

“어르신들 스스로 좀 본인 적성에 맞는 취업도 알아보고 노후에 어떤 취업을 할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이제 이런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좀 찾아가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참여자1)

②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

지자체에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나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이러한 정책은 규모와 역할에서 한계가 있으며, 노인들이 스스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함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민간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어떤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참여자2)

“노노케어 해서 도와주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요지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폐이의 문제에 대한 한계거든요.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진짜 친화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6)

“편의점 사업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 기업 모 기업에서 연결을 해줘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참여자2)

③ 노인 전문 일자리 및 봉사활동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밴드, 마술, 합창 등)이 운영되지만 참여율이 낮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고령자를 많이 취업을 시키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많이 확대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은퇴자들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정년이 이제 더 연장될 텐데 그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이제 기업이나 민간에서도 참여를 더 독려를 행정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참여자3)

“어르신들은 계속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역량 활용 사업은 이제 물론 다양성은 있는데 이제 저희도 올해 응급안전 서비스랑 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좀 많이 어려운 건데 계속 신규 사업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 지금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7)

④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 강화

읍·면·동 단위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 및 안내 서비스가 미흡함.

남양주시고용복합센터 등의 기관이 존재하지만, 일반인 대상 서비스가 많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상담 창구의 확충이 필요함.

“복지관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또 일자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읍면동에 이게 노인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이제 점점 정부에서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상담 창구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남양주 고용복합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게 많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하는 건 주로 이제 복지관 하고 우리 노인회에서만 하거든요.”(참여자4)

“공익 활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등하고 때 이렇게 횡단보도도 이렇게 좀 안전을 돌봐주시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양질화시키고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참여자5)

(4) 의사소통 및 정보

①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 필요성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 확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복지관과 연계하여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령층은 적응이 어려운 상황임

-디지털 태블릿 및 PC 지원 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과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가 지원되었지만, 노인층에는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됨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돕는 방식) 도입: 디지털 교육을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방식보다 노인이 직접 노인을 교육하는 방식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일 가능성이 있음

“어르신들께서도 일부지만 그런 디지털 정보에 대한 걸 많이 깨우치시고 스마트폰 교육도 많이 스마트폰 교육도 KT에 와서 해주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다루니까 가족하고도 의사소통이 되고 그런 걸 좀 많이 들었습니다.”(참여자7)

“코로나 때 영상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너무 스마트폰이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 태블릿 PC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안이 있고
또 해서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시기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참여자3)

“어르신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담 안 되는 사람은 대학생 애들보다는
비슷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노노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6)

② 공공 정보 접근성 및 정보의 다양성 문제

-공공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 필요: 다양한 유익한 정보(교통, 건강, 복지 등)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소식지 전달 방식은 시간이 걸리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도 많아 접근성이 낮음

-정보 전달 매체 다변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디지털 기기를 설치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일부 시도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후설계 관련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함

-

“시민들에게 문자나 보도 자료를 보통 배포를 하는데 일반 노인분들은 이제 문자도 잘 보시고 디지털도 잘 이용하세요.

근데 이제 고령자가 이제 문제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도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신청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참여자1)

“좋은 정보들..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이제 이렇게 소식지가 있지만 소식지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전달되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그 간격이 있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사실상 이용하고 그다음에 제공해 주는 것 간의 간극은 있어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은 또 드는 것 같습니다.”(참여자5)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디지털 기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처럼 엘리베이터 타면 다들 이제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행정에서도 그걸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보 만약에 그렇게 빠르게 할 거는 그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참여자3)

“ESG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차원 하에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투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홍보가 디지털이라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게 사실 종이에다가 직접 이렇게 봐서 또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참여자5)

“어르신들이 정보를 이제 치고 빨리 입수하고 빨리 와닿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엘리베이터 안에 전자기 이렇게 딱 띄우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전광판도 있고 버스 승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딱 띄우는 게 최고 와닿는 것 같아요.”(참여자4)

“퇴직자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상담의 종류가 다양화돼야 된다고 봐요.은퇴 이후에 뭘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주거에 대한 부분 주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또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좀 준비를 설계를 해야 될까 실은 컨설팅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참여자3)

③ 디지털 소외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극복 필요: 일부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졌으나, 여전히 상당수는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필요: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활용이 필수적인 공공장소(음식점, 극장 등)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경로당에 오셔서 형님 갑시다.내가 오늘 햄버거 하나 사드릴게.. 그리고서 모시고 가서 해보는 거예요. .”(참여자6)

“스마트폰 익히기 그런 프로그램 할 때 어르신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담 안 되는 사람은 대학생 애들보다는 비슷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노노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참여자1)

“일자리 사업들 중에서 어르신들을 조금 더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특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디지털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이미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복지관으로 이렇게 파견 오셔갖고 또 어르신들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눔 활동들”(참여자5)

“저희도 지금 경로당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을 더 해요. 키오스크 같은 것도 이제 물품 장비를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직접 할게 극장이나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해보면 좀 효과적인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참여자6)

3) 보건환경

(1)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

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이며, 특히 상급 종합 병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됨. 공공의료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공공의료 병원 설립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논의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의료 서비스거든요.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공의료 병원은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참여자3)

② 고령자 건강 예방 및 돌봄 지원

독거노인 비율 증가: 60대 이상 1인 가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기 치매 및 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확대: 보건소와 공공 영역에서 초기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검진 서비스 강화 필요성 제기됨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초기 예방적인 건강검진이나 상담을 해 주는 것이 보건소나 이런 공공 영역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 사업들을 좀 많이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참여자3)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보면 치매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검사도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치료에 대한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해 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쪽에서도 재택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택 의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두 쪽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 만들고.. 서로 같이 공유하려면 누군가는 그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참여자2)

“재택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사실 초기에 발굴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초기 치매 검사 무언가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참여자5)

③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준비 필요: 지자체에서 민간 인프라와 협력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민간과 관의 협력 필수: 노인복지관 및 희망케어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해야 함

“내년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미미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 인프라를 엮는 역할을 해야 되고 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들을 어떻게 다 엮어서 하느냐..민과 관이 같이 그려나가는 작업을 우리 이제 노인복지관도 이제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같이 노맞돌도 있고 또 제가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엮는 역할들이 선제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참여자3)

④ 반려동물 돌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들의 병원 이용 장애: 병원을 가야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도입 필요: 자원봉사 또는 공공 지원을 통해 노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가 요구됨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언가 병원에 가거나 잠깐 돌봐야 했었을 때 그 강아지 반려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남양주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포기 각서를 써야지만 조금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아봤었는데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어요.”(참여자5)

“대학에 반려동물학과 있는 곳.. 대부분 낮에만 반려동물학과 학생들 실습으로...경기도에서는 신구대가 그게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병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신구 대학이 유일하고요.”(참여자6)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동물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펫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또 이제 일자리 사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또 개발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펫시터”(참여자7)

제3절 남양주시 노인 당사자 FGI 분석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양주시 지형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남양주시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노인 당사자로 구성하였다. 남양주시 내 노인복지기관 이용인, 노인복지사업 참여자 등 노인복지 현장과 고령친화도시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 총 8인의 연구참여자 선정되었고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69>와 같다.

<표 69>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소속	직위	성별	나이	남양주시 거주 기간
참여자1	남부희망케어센터	회원	남	85세	17년
참여자2	다산노인복지관	회원	남	71세	6년
참여자3	동부노인복지관	회원	남	71세	14년
참여자4	상록자원봉사단	단장	남	78세	30년
참여자5	남양주시노인복지관	회원	여	63세	20년
참여자6	대한노인회 다산1동	분회장	남	87세	10년
참여자7	해피누리복지관	회원	여	77세	14년
참여자8	남부희망케어센터	회원	여	86세	20년

2. 영역별 분석결과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는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보건환경’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구분하였고 해당 영역들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영역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70>와 같다.

<표 70> 당사자 인터뷰 영역별 분석 결과

구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영역	내용
물리적 환경	야외공간과 건물	- 보행 안전을 위한 인도 정비 필요 - 거리의 휴게 공간 부족 - 공공장소 및 도시 환경의 접근성

		- 지역 간 복지환경과 시설의 격차
	교통수단	-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지원 - 교통비 지원제도 확대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지원(저상버스, 무상교통)
	주택과 주거환경	-노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 -공동 주거 모델(쉐어하우스) 도입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참여	- 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높지만 지역 편차 존재 - 여가프로그램 다양성 부족과 수강료 문제
	존경과 사회통합	- 노인의 자기인식 문제 - 노인 내부 세대 간 갈등 - 세대 간 거리감과 단절
	시민참여와 고용	-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인식 - 노인 일자리 유형 및 개선 필요성 - 노인들의 사회 공헌 활동 기회 확대
	의사소통 및 정보	- 정보 접근의 디지털 의존도 증가 - 중요한 건강·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지자체와의 소통 단절 경험 - 정보 전파를 위한 중개자의 필요
보건환경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	- 보건소 연계 서비스의 편차 - 건강정보 및 의료지원 인프라 부족 - 접근성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1) 물리적 환경

(1) 야외공간과 건물

① 보행 안전을 위한 인도 정비 필요

보도블록의 불균형 및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지적됨

“제일 문제는 보행 안전이었어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턱이 많아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눈 올 때는 인도를 그냥 놔둬 공공 열고 미끄러워요. 차도엔 제설을 하지만 인도엔 안 하니깐요. 인도에 염화칼슘이라도 비치해두었다가 뿌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참석자7)

② 거리의 휴게 공간 부족

거리의 휴식 공간(벤치) 부족으로 장시간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환경에서 고령자 편의가 부족함

“길거리 의자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겐 대수롭지 않지만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은 잠깐이라도 쉴 의자가 절실해요. 실제로 어떤 버스정류장엔 의자가 없으니까 근처 미장원에서 의자를 하나 내놔는데, 노인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더라고요.”(참여자8)

“버스정류장 근처에 의자가 없고, 있다 해도 쓰레기로 더러워져 앉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7)

③ 공공장소 및 도시 환경의 접근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 계단식 건물 2층에 위치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마련하는 등 포용적 설계 및 배치의 부재가 드러남

“노인회관이 2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없고..시에서 이런 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신도시에 노인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데, 구석에 그냥 노인들 따돌림 한 거예요.”(참여자4)

“노인을 위한다면 신도시에 노인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 놓았어야 하죠” (참여자1)

“남양주 복지관, 동부복지관, 해피누리 복지관 그다음에 다산 복지관 복지관이 네 군데예요. 남양주에 지금 진접 오남 쪽이라든가 저 화도 와부라든가 화도에는 있지만 와부라든가 조안리라든가 이런 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려면은 굉장히 차를 타고 멀리까지 와야 되고 도저히 이용이 안 돼요.” (참여자6)

“천마산이라든지 이런 산을 이렇게 정말 무릎 아프고 이런 분들이 데크길을 이용해서 그냥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7)

④ 지역 간 복지환경과 시설의 격차

화장실, 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 등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물리적 환경 차이 지적됨. 노인복지관의 시설 확충과 특성화된 공간 마련 등 개선 필요성 제기됨

" 12월 되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화장실 문을 잠가요. 열어 터진다는 거지..구리시는 12월 1월 2월에도 이제 불이 따뜻해요. 불이 들어와요. 남양주가 문제예요. 화장실 문이 잠기니까 여자와 남자고 거기다 오줌 넣고 해서..."(참여자4)

"다산 1동 복지관 너무 작아요. 작고 셔틀버스도 운행이 안 되고...복지관에는 교실 강의실이 책상이 너무 좁으니까 하기도 불편하고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수강생들은 많은데 강의실이 좁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특성화 강의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참여자5)

"해피 누리가 새로 지은 곳이고 3층 그 넓은 공간이 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그게 잘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늘 거기에 모여서 또 자기 이제 들어갈 교실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참 잘 지내고 있거든요."(참여자7)

(2) 교통수단

①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지원

경로당이나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함

"버스가 안 다니는 외진 지역은 천 원 택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만 원 나와도 승객은 1천 원만 내고 나머진 시에서 주는 거예요. 버스 노선 놓기 어려운 곳은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요."(참여자3)

"소외 지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소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천 원 버스 천 원 택시 어디에서 지방 가서 먼 단위 시골에서는 옛날부터 면리 단위 가면 버스도 안 들어오고 1천 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택시에서 택시비로 내면 1천 원만내면 천 원 택시가.."(참여자2)

② 교통비 지원제도 확대

남양주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운영중인 땡큐버스에 만족도가 높았음.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금 증액을 기대함

"남양주는 버스가 구석구석 다녀서 좋아요. 65세 이상은 3개월에 3만 원씩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땡큐버스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봐요. 버스가 엄청 많아졌어요.""(참여자6)

"저는 3개월에 한 12만 원어치 타는데요. 간에 기별도 안 가 3만 원..더 바라자면 한 달에 1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로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는 많이 못 올리죠? ."(참여자2)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지원

저상버스 확대 보급 필요성과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고령자 대응 교육 확대 필요

“우리는 저상버스를 타고 싶어요. 무릎 아픈 분들은 높이 올라가는 게 엄청 힘겨워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인도 가까이 대주면 좀 덜 힘들 텐데... 어떤 기사님은 승객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참 친절하다 느꼈어요.” (참여자8)

“제 뭐야 이렇게 혹 가다가 그냥 확 서 갖고 그냥 놀라기도 하고 또 앉기도 전에 출발해 갖고 또 그냥 다치는 것도 봤어요.”(참여자7)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하고 그리고 뭐 이게 노선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저상버스 일단 일단은 저상버스가 많이 다녔으면..”(참여자2)

(3) 주택과 주거환경

① 노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

노년층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으며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필요성과 대가족 다세대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됨

“노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아파트 저층은 그렇게 지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넓지 않게 안전을 갖춘 그런 시설이요.

화장실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붙잡고 다닐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안전을 다 갖춘 그런 좋은 그런 걸로 저층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으면..”(참여자7)

“일본에 제가 사례를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 노인한테 필요한 개조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를 해줘서 그걸 뭐 이렇게 계단이 너무 가파르면 그걸 좀 이렇게 만만하게 해준다든가 또 안전거리 같은 거 설치해 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디 부딪힐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개선을 해 주고 하는 것이 그게 제가 일본 사례에서 본 것 같아요.”(참여자3)

“힘든 형편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후미진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집에 가 보면 매트리스도 오래되고 냄새가 나요. 그런 건 본인이 개선하기 어렵죠. 주기적으로 교체해준다든가 했으면...” (참여자4)

“예를 들어서 집을 할머니 할아버지 3대가 모여 사는 집은 뭐 싸게 줄 수 있다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지 주택 만들 때 그런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좀 옛날처럼 어른 존중하는 것을 집에서 배우는 분위기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참여자8)

② 공동 주거 모델 도입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모델을 제안함. 요양보호사가 일정 기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제시함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쉼어하우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방이 한 4개쯤이나 있고 공동 부엌 또 거실 같은 게 있고 개인한테는 화장실하고 방하고 하나씩 따로따로 개인 생활은 유지하되 단체 생활 같이 그렇게 하면서요양보호사가 한 사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7일 동안 가정을 봐주고 청소해 주고 먹을 거 좀 준비해 주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참여자8)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아까 이제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어느 아파트라도 한 서너 명이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면 참 생활이 괜찮겠다 일본이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참여자4)

2) 사회문화적 환경

(1) 사회참여

① 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 만족도 높지만 지역 편차 존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지관이 여가 및 사회활동의 핵심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들은 접근이 어려움. 복지관 외 여가시설 부족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 형평성 부족함

“복지관 보면은 그 모든 영역에서 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악 건강 미술 여행 뭐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내재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재능들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참여자7)

“권역별로 이렇게 동부서부로 나눈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읍면별 읍면별로 복지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복지관에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해줘야 ..”(참여자4)

“진짜 외부에도 없고 여기 다산 1동은 있지만 2동에는 없고 이게 진짜 가장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이 복지관이 복지관이죠. 복지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5)

“다산1동 복지관 제일 싸이드에 있어요.그래서 이쪽에는 그곳에 30분 걸릴 수도 있고 노인네들은 그 이용하는 인원은 불과 몇 프로 2만 명에서 한 2~3% 그것밖에는 못 가요. 또 그중에서도 건강한 노인들 중에서도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이 가서 또 뭐 합격되지도 않고 이러한 애로가 이게 많아요.”(참여자6)

“복지관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무릎아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참여자8)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 골프 뭐 이 그라운드 골프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하는데 시설이 없어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수동 쪽에는 남양주시 쪽에는 없어요.”(참여자3)

② 여가프로그램 다양성 부족과 수강료 문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 프로그램 참여 이용료 할인 혜택이 부족함.

“복지관이 있고 복지센터 같은 데도 이런 교육이 있는데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그야말로 취약계층이거든... 요즘에 이제 복지관은 사실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이 지금 여러 합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에 이런 그 강의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실을 이용하면 되죠. 노인들이 다산 1동에 여기서 저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서 여기서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 가면은 훨씬 쉽지 어느정도 걸을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해야지..”(참여자5)

“ 복지관 프로그램 내에서 강의를 좀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나 아니면 우리끼리의 이런 저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또 점점 이제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나가서 좀 만나보고 또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참여자6)

“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쪽 보다가 보니까 우리도 다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앞뒤로 까맣게 많은데 이 프로그램 요금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한테 할인이 안 돼요. 20% 30% 나름대로 몇 % 할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받는 요금이 노인들도 그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참여자4)

“주민센터 근데 이것도 보니까 1시간 하는데 노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노래 교실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는 9만 원씩 해요.” (참여자3)

“프로그램 다양화 및 현실화 그래서 노인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노인이라서 일반인보다는 좀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참여자2)

(2) 존경과 사회통합

① 노인의 자기인식 문제

존중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 공경을 기대하는 자세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선배시민 등 노인 스스로의 역할 인식을 재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이 먹은 게 벼슬이 아니거든요. 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내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노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내가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게 노인이지....”(참여자6)

“노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미장원에서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뵈어요.. 노인분들이 쓰레기를 다 해 놓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치웠어요.우리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면 노인은 노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저해하니깐..”(참여자3)

“선배 시민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인성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른답게 노인답게 연세가 이렇게 많아진 만큼 더 많이 포용하고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를 갖다 이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참여자7)

② 노인 내부 세대 간 갈등

65세와 85세의 세대 차이에서도 존댓말 사용 여부로 갈등 발생. 노인 간에도 서로 존중해야하며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중하려면 노인도 젊은이를 존중해야함.

“ 저희 복지회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8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고 한 65세 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겹이 한 20년 차이 나잖아요. 거의 아버지 뺄이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꼭꼭 존댓말을 써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이 어이..”(참여자3)

“경로당에서도 나이많은 노인들이 60대 노인들한테 막 심부름 시키고.. 반말 막말하고 그러다 싸우고 그래요..”(참여자6)

③ 세대 간 거리감과 단절

고령자를 이해하거나 함께하는 경험이 부족함. 세대공존 프로그램과 노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세대통합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예전엔 다 같이 살아서 어른 존중하는 법을 집에서 배웠어요. 이제는 핵가족화돼 손주들도 할머니랑 거리가 멀어졌죠.”(참여자8)

“존중이 해결되면 통합은 저절로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매치를 어떻게 하나 이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계도와 교육과 강좌가 이런 거 계몽이 돼야 되겠죠.”(참여자2)

“젊은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세대간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게, 시니어와 청년들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참여자5)

“노인을 집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학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노인을 학대하지 않고 예우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정부 기관 비슷하게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대하는 복지기관들은 관리도 하고 암행어사처럼.”(참여자4)

(3) 시민참여와 고용

①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인식

남양주시 고령층은 일할 의욕과 사회기여 욕구가 매우 높은 편임.

“60대 시니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리이러한 사람이다 필요한 곳에 불러달라 해도 그런 답은 없어요. 없고 이제 우리가 직접 1365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거 외에는 그런 개발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참여자5)

“선배 시민으로 우리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발하게 사회활동도 쭉뚫거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저도 유아교육 전공해서 종이접기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거든요.”(참여자7)

② 노인 일자리 유형 및 개선 필요성

노인일자리 대부분 단기, 저임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인일자리 질적·양적 확대 요구됨

“남양주시 노인일자리가 한 1,670개 정도 돼요. 휴지 줍기, 경로당 지킴이, 학교 앞 교통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루 3시간씩 10일 일하고 29만 원 받아요. 껌값도 안 되지만 그걸 받고도 구석구석 담배꽂초 줍는 분들을 존경해야 해요. 예산 한계가 있어서 올해도 시에서 10억 더 해서 인원 늘려줬어요.”(참여자6)

“일하는 분들은 그게 고용 불안이 있더라고요.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골고루 참여를 해야만 하니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 내년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굉장히 있고 시급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참여자5)

“일자리를 면접보면 엄청 많이 와요. 대기가 20명 넘게 있어요. 좋은 자리는 경쟁이 심하고, 인기 없는 자리는 금방 채워지죠. 그래도 한 달 20몇만 원 받으려고 이력서 내고 면접까지 봐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참여자3)

③ 노인들의 사회 공헌 활동 기회 확대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이 능동적 참여자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함

“휴지 주고하는 일자리 많은 그것보다는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돕는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서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 말대로 65세 65세 70에는 애들이예요. 그애들 걔들 시켜서 하고 일 시키면 되지 우리가 80대 되면 그걸 못하잖아요.”(참여자4)

“우리 같은 시니어 사회복지사도 많은데 활용 좀 해 주면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어르신 상대니까 더 잘할 수 있거든요.”(참여자5)

(4) 의사소통 및 정보

① 정보 접근의 디지털 의존도 증가

시청 홈페이지, 복지관 SNS 등 디지털 중심의 정보 전달방식이 많아 고령자가 접근하기 어려움.

“남양주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면 문자로 다 나와요. 3월에 걷기 행사, 정약용 캠프 한다... 너무 귀찮을 정도로 와요. 근데 그걸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0대 후반, 80 넘은 분들은 접근이 약해요.” (참여자2)

“정보 전달은 내가 찾지 않으면 못 봐요. 종이로 오지 않는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한계가 있는 거죠.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혀 몰라요.” (참여자5)

② 중요한 건강·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

정보 미흡으로 인해 금전적 지원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는 등 정보를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사례 제시하며 정보제공 방식 개선 요구됨

“보건소에서 시민 위해 뭘 하는지 몰라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국가 검진 받아 암 걸렸을 때 혜택이 있던데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못 썼어요. 홍보를 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참여자7)

③ 지자체와의 소통 단절 경험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투명하고 포괄적인 소통 창구 이용 경험 부재함

“호만천에 가끔 이상한 물이 흘러요. 시에 전화하면 여기저기 돌리고 결국 제자리...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16일에도 물 색깔 이상해 전화했지만 또 제자리. 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참여자7)

“시장님이 노인 일자리 교육 때 자기 휴대폰 번호 알려주셨어요. 시민 소리를 듣겠다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느끼는 건 별로 없어요.”(참여자5)

④ 정보 전파를 위한 중개자의 필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수단(반상회, 엘리베이터 게시판 활용 등) 활용해 정보 전달 방식을 확대하고 시나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맞춤형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의 필요성 제기됨

“반상회를 부활시켜야 돼요. 지금 동대표가 주민에게 말 한마디 안 전해요. 90세대 중 동대표가 조직적으로 반상회를 해야 정보를 서로 알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는데 무슨 정보를 주고받겠어요.”(참여자1)

“(시에서 나오는 정보지) 신청하면 오긴 와요. ...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데 세 번 눌러도 몰라요. 까먹어요. 배워도 현장에서 못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보를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참여자3)

3) 보건환경

(1)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

① 보건소 연계 서비스의 편차

보건소의 방문건강 서비스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며 홍보 부족으로 정보 및 수혜가 모든 노인에게 충분히 닿고 있지 못함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검진 다 해줘요. 혈압, 혈당, 고지혈증 다 해주고 약도 갖다 주고 파스도 줘요. 그걸 잘 활용하면 돼요.”(참여자6)

“난 몰랐어요. 우리 경로당엔 그런 (보건소) 연락 없었어요. 신청해야 오는 거라네요. 회장이 신청하면 와서 해준다는데... 좋은 동네만 혜택 보는 거죠.”(참여자7)

② 건강정보 및 의료지원 인프라 부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계획중인 의료원의 신속한 개원을 촉구하였고 심리적 불안을 케어하는 정서적 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제시됨

“ 현재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의료원 있잖아요.. 네 그거가 빨리 진짜 빨리 이루어져야...”(참여자1)

“지금 확정된 의료원이 호평역 근처에 있는데, 빨리 돼야 돼요. 큰 병원 공공병원들이 많으면 좋죠..”(참여자3)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막 공포심이 생길 정도.. 제가 보청기를 했거든요.
보청기를 딱 뺐아놓으면 불이 안 켜진 것 같이 암담한 느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이런 불안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응급은 아니지만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그때 조금
밤에 또 특히나 혼자 있을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해요..”(참여자8)

③ 접근성 문제로 인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비장애 노인에 대한 교통 및 이동지원, 아픈 자녀를 돌보는 노부부의 세대 지원, 이동목
욕 확대 등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함

“장애인에만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걸, 아주 고령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희망콜(장애인 콜택시)도 등급 받은 사람만 쓰는데, 걷기 힘든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참여자6)

“1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참 많아요.
지금 많아졌는데 정작 힘든 분들은 노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분이 아팠을 때 이분이 보살피고
이분이 아파서 이렇게 보살피고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 부모가 그 뭐야 아픈 자녀를
돌보는 세대 거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은 완전히 소외돼 있어요.”(참여자7)

“와상이나 장애로 목욕 못 하는 분들 위해 목욕차가 다니면서 목욕 봉사를 해주는데, 대상자가
많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목욕을 자주 시키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병원비 나가는 것 줄일 수도 있고....”(참여자4)



VI.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VI.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남양주시 PEST 환경 분석 결과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는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증가, 도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추진하고 있는 범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WHO, 2007).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고령자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 ‘고령자가 능동적으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도시’, ‘모든 시민 혜택을 보는 도시’, ‘고령자가 존경받고 포용되는 도시’, ‘고령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라는 개념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거시적으로는 고령자만이 아닌 전 생애적으로 더불어 살기에 안전하고 평안한 도시라 할 수 있겠다.

고령친화도시 구성요소로 WHO는 8개 영역으로 구성된 기본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외부환경 및 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 교통(transportation), 주거시설(housing),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존중 및 사회포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로 이를 기반한 도시 구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을 인증 받는다.

더하여 WHO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였고, 참여 도시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정보와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 기술을 지원하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HO, 2010). 2019년 기준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821개 도시가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5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국내외 각 도시별 특성과 방향을 기반으로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8대 요소 분야를 매칭하여 다양한 고령친화사업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노인복지법에도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5).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대구 서구, 충남 서산, 경기 수원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례는 2018년 1월 광역지자체 중에 먼저 제정되었다. 남양주시는 2024년 11월 제정을 공포하였다.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거시적인 측면에 외부환경을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 4부문)로 구분하여 살펴본 SWOT 분석으로 도시를 살펴본 결과, 강점으로는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림 및 자원환경 보존율이 높고 역사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와 신규 교통망을 새로운 기회이자 강점으로 작용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양주시는 위와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입지 구축, 친환경 및 기술 트렌드를 기반한 도시 발전의 기회를 갖추고 있다.

반면, 지역내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다핵도시로 복지 및 의료 시설의 부족과 이용의 거점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약점은 최근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로 사회자본 이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의 부담감이 있고, 도시 자체의 코어산업이나 굵직한 산업체 부족 등으로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남양주시 특성에 따른 부분을 각 영역별로 상생 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부분에서 1) 민선 8기 정책공약 실행과 지속화에 관심 2) 남양주시 지형특성상 법적 규제지역 확인 및 개발 방향 검토 3) 도시균형 발전 및 도시 재생 사업 확인 4) 생활권 중심의 지역혁신 특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분에서 1) 외부 유입 자원과 기업 협업 2)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사업체 간 네트워크 3) 신중년 및 노년 일자리 확대가 요청되며, 사회문화적으로 1) 광역 교통 인프라 확장 2) 복지수요에 따른 권역별 복지기관의 정상화 및 서비스 개발 3) 평생교육 수요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화 4) 신도시 중심 인구 유입에 따른 정서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영역에서 1)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가속화(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확대) 2) 비대면 기능 확산 3) 대학연계 첨단 산업 창출의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과 매칭을 통해 남양주시의 현안을 파악하여 남양주시만의 비전과 목표, 세부사업 내용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진단 결과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고령화와 신도시 개발과 같은 주택개발로 인한 동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령인구의 분포와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수준의 지역 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고령화의 진전과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중첩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났다.

첫째, 야외공간과 건물에서는 남양주시는 CCTV, 가로등, 그늘막 등 주요 안전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난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안전비상벨은 고령자의 일상적 이용 편의와 안전과 연결되나 일부 지역의 경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고령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수는 많으나 1인당 공원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양주시의 생활권 공원은 소규모 위주로 분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노인 인구 밀집 지역(아파

트 단지, 전통 주거지 등)에 공원과 녹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 비상벨 설치 우선순위 수립하여 고령자의 안전권을 확보, 그리고 고령자의 생활동선에 기반한 공중화장실과 그늘막 설치, 공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통수단에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판매시설 및 의료시설 접근성은 비교분석 대상이었던 타 비교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 가능함에 따라 2개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여가활동, 의료이용 등 전반에 제약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철도노선의 불균형, 농촌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사고 다발지역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과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자가소유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남양주시의 경우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고령자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내 무장애 설계 기준의 적용, 그리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적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여 보다 고령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령자의 생활안전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이루어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유의한 점은 남양주시의 경우 경로당의 수가 많았다. 이는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로당을 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경로당 중심의 여가 활동에서 벗어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경로당 중심의 단일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운동,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존경과 사회통합이다. 이 영역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지점은 노인학대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학대의 건수가 많았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노인학대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였으나 공동체 의식은 소폭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개별 타인에 대한 믿음의 약화는 세대 간 갈등 등에서 오는 불신의 반영이며 공동체 의식은 타인을 신뢰하진 않아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

감은 느끼는 상태로 공동체(지자체, 복지센터, 노인회 등) 차원의 유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공감의 문화가 확산되어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시민참여와 고용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았다. 2025년 현재 남양주시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아 정도의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없으나 2022, 2024년 지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받은 만큼 우수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순 노동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일자리 창출, 세대 통합을 위한 일자리,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노인 디지털 교육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소외감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기여하여 자아실현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을 함으로 신체적 활동을 통한 건강 유지와 우울감 예방,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인을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기여자로 인식하게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의사소통과 정보이다. 남양주시 관내 복지관 및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 하고 있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다수의 기관에서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향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키오스크를 시설 내 설치하여 사용 역량의 강화, 소규모 그룹 및 1:1를 통한 집중적인 지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여덟째,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에서는 의료 인프라 부족, 특히 종합병원의 부족이 확인된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인식의 하락, 우울감, 자살생각의 증가, 삶의 만족도 저하 등 노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 돌봄 체계가 핵심과제로 부각된다.

남양주시는 지역 별 인구구조 및 도시화 수준이 다르므로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사회적 통합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향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와 노인의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 지역주민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 추진과 실행은 남양주시는 선도적인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현안과 발전방안 의견수렴(FGD) 결과

1)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인터뷰 결과

남양주시는 고령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여가 공간의 지역 편차, 교통 접근성, 주거환경 개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세대통합의 어려움,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통합적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의 문제가 두루 제기되었다. 노인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세대통합적 접근과 디지털 포용 전략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세부적인 개선 방안에 있어 일부 시각차도 존재하여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확충이 우선인지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8대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각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곧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교통지원은 노인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보다 쉽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 접근성 향상은 사회적 통합과 시민참여의 전제 조건이며, 세대 통합 노력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별 영역별 개선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이고 보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민관협력과 지속가능한 구조 만들기였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연결되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부서 간, 공공과 민간 기관 간 벽을 허물어 협력할 때 비로소 고령친화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보편적 접근과 취약대상 특별배려라는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환경과 서비스를 보장하되(안전 인프라, 교통, 정보 제공 등) 특히 돌봄 취약 계층에게는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횡단보도를 노인친화적으로 개선하면서 한편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특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예방과 대비의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의 중·장년층이 향후 노년기가 될 것을 대비해 생애주기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은퇴 전 직업교육, 주택연금 등 사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현 세대 노인뿐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의 복지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사례는 도농 복합도시의 고령친화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도시에서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춘 창의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 중 노인 놀이터 거리, 펫시터 일자리, 디지털 경로당, 세대통합 주거 등 하나하나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연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남양주시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의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책제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노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행환경과 주거 안전, 의료 접근성, 정보 전달 부족 등의 문제는 노인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단순한 정책 이상으로 생활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절실한 분야임이 드러났다.

야외공간과 건물 관련하여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청결 등 외부환경에 대해 안전과 편의 시설 부족을 주된 문제로 언급하였다. 이에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개발 시 기존 녹지를 보전하거나 대체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층이 선호하는 산책로, 공원 조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양주시의 교통 분야는 고령친화도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시 차원의 버스 노선 확충과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은 고령층 삶의 반경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촘촘한 버스 노선과 운전기사들의 배려는 이동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반면, 모든 남양주시 전체 노인이 그 혜택을 균등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외곽 지역이나 역과 집 사이 등의 틈새에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교통비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다. 이는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가 보다 미시적인 부분까지 세심히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 여건의 차이가 간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교통복지 접근이 요구된다.

주거 분야에서의 선택권과 지원체계 부족이 절실하게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 살다가 요양원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분법적 구조 외에 중간단계의 다양한 주거 모델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향후 고령사회에서 커뮤니티형 주거나 공동생활 모델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상당수 노인이 열악한 비적정 주거환경에 놓여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는 현실도 드러났다. 이는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굴과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령자도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으므로 물리적 주택 환경뿐 아니라 돌봄·커뮤니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고령층의 사회활동 욕구는 매우 높지만 이를 수용할 인프라와 환경이 미흡한 현실이 드러났다.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 대비 복지관 등 공식적 노인 여가 공간이 부족하여 참여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노인은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부는 경쟁에서 밀려 소극적으로 변할 우려도 있다. 이는 고령친화도시에서 사회참여 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충분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노인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핵심인데 현재 인프라로는 남양주시 노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시설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균형 발전 관점의 대책도

요구된다. 이에 남양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한다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세대 간 상호인식의 격차와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남양주시 고령자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인 스스로 우대 받고자 하는 생각들을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확인되었다. 이는 존중이란 것이 양방향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배려(시설·정책적 지원 등)와 더불어 노인의 적극적 사회공헌 참여 활동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현 세대 젊은이들이 노인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 고령자를 이해하거나 함께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 차원에서 세대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은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핵심이며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 고령층은 일할 의욕과 사회 기여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단순노무 위주로 운영되어 모든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활동적인 노인들이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 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 분야에서 매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도움을 주고 싶은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연결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 이는 행정이 좀 더 중개자 역할을 해줄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고령자들을 수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능동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노인의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채널을 마련한다면 고령사회가 지닌 인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양주시 고령층 사이에는 정보 접근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극소수 노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령자는 시의 각종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거나 시민으로서 참여 기회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정보 접근성도 중요한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의 홍보 방식으로 고령층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므로 시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소통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 이웃 간 비대면화로 소통망이 약화되어 위기 노인을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도 드러났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보와 안부를 나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요컨대, 정보 분야에서의 고령친화도시의 다채널 정보제공과 정보중개자들의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커뮤니티지원과 건강서비스 분야에서는 제도와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에게 충분히 닿지 않거나 규모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동 목욕이나 교통지원 같은 서비스는 취지는 좋으나 대상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노인들에게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고 있는 지원 조차 인지도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서비스가 되고 만다. 이는 앞서 정보 접근 분야와도 연관되어 서비스 홍보와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현재 지역사회 돌봄의 촘촘한 그물망이 신체적 위기 대응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도 정서적 고립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건강 부분의 고령친화 정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도록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양주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실천을 강화하고, 이번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더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제2절 제언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방안

WHO에서 권고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의 욕구는 물론 전 생애주기 세대의 욕구가 고령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주요정책 등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양주시는 지난 2024년 11월 7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 진단 및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그리고 비전을 설계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현재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다양한 정책 검토를 통해 “세대통합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남양주특례시”로 비전을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 생애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 각 분야의 정책에 고령친화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지원계획 및 2026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비하여 시 차원의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전	세대통합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남양주특례시!		
목표	- 고령자와 모든 세대가 존중 받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구현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추진전략	편안한 도시	활기찬 도시	돌보는 도시
중점과제	생활환경 안정성 강화	여가, 사회활동 일자리 기회 확충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및 역량강화	고독·우울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무장애 교통체계 확립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 및 인권 보호 강화

[그림 29]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비전 체계도(예시)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산하의 노인복지정책과 이외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평생교육과, 일자리정책과, 시민안전과, 산림과, 보건소 등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 그리고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추진 TF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겠다. TF를 통해 부서간 조정과 협업을 이끌어 내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통일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확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남양주시의 공공영역의 사업일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 참여가 중요하므로 남양주시민, 고령자, 청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남양주시 관내 학계, 전문기관 등 다양한 민간주체 등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여 고령친화도시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조성이 아닌 남양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도시조성이라는 관점 그리고 전 생애주기와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대상에게도 해당되는 도시 조성이라는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경기도의 20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에 발맞춰 남양주시는 도 차원의 신규 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5년에 약 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6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간병SOS프로젝트, AI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스마트경로당 보급 등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도차원의 신규사업과 연계한 남양주시의 혁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면 돌봄 공백과 정보격차 같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신 정책효과를 연결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인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을 위한 시민들의 설문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전략과 비전을 세우는 것에 시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WHO 8대 영역별 추후 설문 문항 구성 안

본 연구의 2차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설문조사 및 인식조사 위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 문항에 대한 구성요소와 주요 내용은 <표 71>과 같다.

<표 71> 설문문항 구성요소 및 주요 내용

영역	핵심주제	구성요소	주요 내용
야외공간과 건물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	- 야외공간 및 건물에서의 보행로, 편의시설 충분성, 편의성 - 충분한 휴게시설 구비 - 노인우대 서비스 등	- 공원, 산책로, 휴식장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충분성, 만족도 - 보행로에서의 비상벨, 가로등 충분성 - 공공시설 및 건물에서의 노인을 위한 안내시설 설치(우대서비스) 충분성 - 보행로에서의 이동 편리성(휠체어, 지팡이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횡단보도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는지 등) - 주관적으로 느끼는 범죄 위험도 등
교통수단	고령자 친화 교통환경	- 고령친화 교통체계 - 대중교통 편의성 접근성 등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배차간격, 접근성) - 대중교통 노선표, 시간표, 표지판, 음성 안내 등 편의서비스 충분성, 만족도 - 노인친화적 교통수단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대중교통에서의 노인우대(운전기사 친절도, 노약자석 충분성, 양보 등)에 대한 만족도 - 노인을 위한 주차구역 여부, 충분성, 만족도 등
주택과 주거환경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 주택 안전성 - 남양주시 주택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주택에서 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 등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집수리 및 개조 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주거지에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편의시설 등 위치성에 대한 만족도 - 주거문제 발생 시 상담 서비스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사회참여	여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빈도, 접근성, 관련정보제공 등	- 노인의 흥미를 고려한 사회활동 제공 충분성, 만족도 -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제공 충분성, 만족도 - 각종 활동에서의 접근성(시,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참여하기 쉬운 절차 등) - 이용하고 있는 여가활동 빈도, 장소, 접근성 - 각종 사회참여, 여가활동 참여 장벽 등
존경과 사	세대 간 존중과 소통, 인권	- 남양주시 의견청취 - 세대통합 프로그램, 노인의 참여 접근성 - 노인공경문화 등	- 지자체의 각종 정책 수립 시 노인의 의견수렴 여부 - 세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지역사회 활동에서 노인이 직접 참여(사회, 주인공

회 통 합			등)하는 기회 제공 충분성, 만족도 • 노인 공경 문화(이웃들이 노인에게 예의가 있는지,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존중 배려 문화에 대한 인식) 등
시 민 참 여 와 고 용	자아실현 과 경제활동 참여	• 노인일자리 제공, 상담 및 교육 충분성, 편리성 • 자원봉사 활동 등	• 지자체 제공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은퇴 후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서비스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정보 탐색의 접근성(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많은지 등) • 노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 여부, 충분성, 만족도 • 채용, 고용유지 등의 직업생활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 •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충분성, 만족도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 충분성, 만족도 등
의 사 소 통 과 정 보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 필요한 정보 제공 • 안내문 등에서의 고령친화도 • 스마트폰 및 컴퓨터 이용 지원 등	• 공공시설 및 시설에서 안내문에 대한 편의성 (노인이 읽기 쉬운 글씨크기, 글씨 색, 음성 속도 등) •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충분성 •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관련 지원 서비스 충분성, 만족도 등
커 뮤 니 티 지 원 과 건 강 서 비 스	건강관리 및 지역 의료 서비스	• 복지 및 의료시설 접근성, 편리성 •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충분성 등	•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이용 절차나 기준 등), 충분성, 만족도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여부) • 각종 건강증진서비스 인지 여부, 접근성, 충분성, 만족도 •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WHO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가입전략 방안

1)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현안 검토

100만 특례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는 노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동 유입 등 전 세대 통합적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로 발돋움 하길 기대한다. 특히, 남양주시의 강점은 서울과 근접성, 산림 및 자원환경의 높은 보존율, 역사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반면 도시 자체의 코어산업이나 산업체 부족으로 지자체 재원 부족과 생활권이 분산된 다핵도시라는 점, 의료와 편의시설의 거점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기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에 따른 지속적 인구증가, 산업단지 입지 구축, 친환경 및 기술 트렌드 등을 강화하여 도시 발전을 꾀해야 한다.

남양주시의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 영역을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민선 8기의 높은 정책 이행률로 향후 남양주시가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남양주’로 성장 발전하길 기대한다.

<표 72>를 기반으로 PEST 각 부분이 8대 영역별로 유기적으로 매칭되고, 각 진단에 따른 현안과 FGI 결과기반 향후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물리적 환경에서 외부환경 및 시설은 기본적 CCTV, 비상안전벨, 그늘막 등 안전 인프라 확보되어 있으나, 읍면동 편차가 있고, 1인당 공원면적이 적다. 이에 노인인구밀집 지역 중심의 공원 및 녹지 전략적 배치 필요하며, 노인 친화형 쉼터와 휴게공간 확보가 요청된다. 교통수단 편의성에서는 주요 거점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낮고 보행 노인 사고 현황이 비율이 높아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저상 버스 증차와 교통비 증액에 따른 대중교통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안전성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 설계와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시설 개선이 요청된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여가 및 사회활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고령자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독거노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이 여가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여가 인프라 불균형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와 체육시설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영역에서는 노인학대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인권보호 정책이 요청되며, 노인뿐 아니라 세대 통합의 사회적 포용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회가 선순환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와 일자리 영역으로는 2022, 2024년 남양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을 수상한 강점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된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자원봉사 활동, 전문 일자리 기회가 다양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은 현 조사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지표가 부족하나 향후 고령자 인터넷 활용, 디지털 교육과 정보 민원 등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어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남양주시의 진단을 확인하는 것 외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견해로 정기적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정보 제공 소스가 제공될 것과 정보 도우미를 통한 정보 전달의 안정적인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건 환경의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영역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며, 우울, 자살 생각,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안은 궁극적으로 의료와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건강정보가 전폭적으로 제공될 것과 건강검진과 신체

적, 정서적 예방 기능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통합돌봄체계가 내실화되어 의료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안전하고 단단히 구축되길 기대한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남양주시에 대한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 경기데이터드림, 남양주시 사회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남양주복지재단 연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으로는 남양주시의 노인대상 실행 서비스를 모두 나열 조사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실제 제공되는 남양주시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8대 영역별 재매칭과 향후 3년간 고령친화적 사업 의지를 바탕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승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표 72〉 연구 결과 요약

영역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에 따른 주요 현안 검토 및 전략	FGI 결과 기반 향후 방향	
정치 P	민선 8기 정책 높은 이행률	물리적 환경	야외공간 과 건물	- CCTV, 비상안전벨, 그늘막 등 안전 인프라 확보됨.그러나 남양주시 내 읍면동 간 편차 있음 - 1인당 공원면적이 적음. <u>노인인구밀집 지역 중심의 공원 및 녹지 전략적 배치 필요</u>	-무장애 보행 환경 및 안전시설 확대 -노인친화형 쉼터 및 휴게공간 설치
	3기신도시 및 개발구역 검토				
	도시 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				
경제 E	생활권 중심 지역특성화(다핵도시 보완 고려 방안 정책 모색)	주거와 주거환경	교통수단	- 대중교통을 이용한 판매시설 및 의료시설 접근성 낮음 - 보행노인 사고 현황 비율이 타 비교분석 도시에 비해 높음. 다발 지역에 대한 <u>안전한 교통환경 마련 필요</u>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편 마련 -저상버스 증차, 교통비지원금 증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외부유입 기업 유치 협업 (경제성장률, 재정자립 안 모색)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간 지역사회 사업처 네트워크				
사회 S	일자리 확대(신중년, 노년 일자리)	사회참여	주택과 주거환경	- 자가소유 비율 높으며 향후 적극적인 도시개발로 <u>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기대됨</u> . 향후 고령자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설계기준 적용 등 필요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 설계 -노인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확대
	광역교통 인프라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기관 통합돌봄 활성화				
기술 T	평생교육 도시	사회문화 환경	시민참여 와 고용	- 노인학대 건수가 비교도시 중에 가장 높았고, 특히 시설학대의 건수가 높음. 인권보호 정책 필요 -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였으나 공동체 유대감은 유지되고 있음. <u>사회적 포용 문화 필요</u>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멘토링, 공동체 활동) 개발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례 확산
	정서적 풍토				
	문화, 힐링 자원 활용				
기술 T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강화	의사소통 및 정보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 서비스	- 2022,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수상함 - 노인의 <u>다양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필요</u>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대체인력으로서의 노인 자원봉사자 활성화 필요	-공공+민간 협력형 사회참여 활동 확대 -평생학습과 연계한 고령자 직무 교육 강화 -노노케어 활용한 전문일자리 및 봉사활동 기회 확대
	비대면 기능 확산				
	대학연계 첨단 사업 창출				
기술 T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보건 환경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 서비스	- 관내 복지관 및 희망케어센터에서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 외에 키오스크 교육, 영상제작 등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역량수준에 따른 초급/중급/고급 등의 단계별 수업 운영 - 관내 복지기관의 디지털 교육 현황 외 <u>다차원적인 현황 조사 필요</u>	-정기적인 디지털 교육 운영 -지역 방송과 신문, 문자, 마을앱 등 다 채널 정보 제공 확대 - 중개자(정보도우미) 육성 및 정보전달 체계 강화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기술 T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보건 환경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 서비스	- 의료인프라 부족, 특히 종합병원이 부족함 - 주관적 건강 인식의 하락, 우울감, 자살생각의 증가, 삶의 만족도 저하 등 노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확인 - 의료 및 지역사회 중심의 <u>돌봄체계 구축 정책 필요</u>	- 건강정보 부족 및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및 예방서비스 확대 - 통합돌봄체계 내실화(건강,돌봄,주거연계)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교육 및 병원 시스템 기술 보완				

2)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수립방안에 대한 향후 절차

향후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수립방안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수립은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공무원, 민간기관, 시민,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과 실행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TF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총괄 담당자 지정, 도시계획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활동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복지재단이나 연구 용역 기관이 중심이 되어 고령친화도 평가 설문, 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과와 복지재단은 시민 참여형 포럼을 통해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포럼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WHO가 제시한 8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재 시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존 사업을 연계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후에는 남양주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영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고령친화도시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정 총괄 부서와 노인복지과가 협력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와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을 반영하면 보다 일관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과 실행 내용을 종합하여 WHO 제출용 영문 문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문서는 WHO의 가입 신청서 기준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시정 총괄 부서와 노인복지과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에는 WHO 제출 및 회신 절차를 따라 국제네트워크 가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절차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계획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FGI, 모니터링단을 기반으로 이슈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단계 가입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가입 신청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가입 신청서의 세부 항목은 <표 73>와 같다.

<표 73>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 항목

1) 도시정보 City/Community details	도시명 (Name of city/community)
	지역 (Region or state)
	국가 (Country)
	인구규모 (Your city/community' s population size)
	60세 이상 거주자 비율 (% of residents above the age of 60)
	네트워크 제휴 프로그램 선택 (Are you applying through one of the Network' s Affiliated Programmes?)
2)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노력 Commitment towards becoming an age-friendly city/community	서약서 또는 추진의지, 선언서 (Letter of commitment from the Mayor)
	시장 이름 및 직함 (Mayor' s name and title)
	시장 e-mail 주소 (Email of the Mayor' s office)
	시장 주소 (Address of the Mayor' s office)
3) 담당자 정보 Designation of contact person for the Global Network	담당 부서 (title)
	성, 이름 (First Name / Last Name)
	직위 (Position)
	고령친화도시에서의 역할 (Role in city/community' s age-friendly initiative)
	e-mail (E-mail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including international dialling code))
4) 현재까지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your age-friendly activities to date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요약,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법 (Please provide a brief summary (250-300 words) of your city/community' s policies, programmes and services targeted at older people and how you are planning to make it more age-friendly.)
	전경 및 로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동 대지)

	(Please provide a picture (skyline or logo) to illustrate your age-friendly activities.)
	도시 웹사이트 주소 (If you have a dedicated web page on your age-friendly activities, please include it here. If not, indicate your city or community website)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If you have already conducted an age-friendly baseline assessment of your city/community, please upload it.)
	고령친화도시 전략 또는 실행계획 (If you have already developed a strategy or action plan to make your city/community more age-friendly, please upload it.)
5) 노년층 참여 Engagement of older people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고령자 참여 방법 (How are you engaging and involving older people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more age-friendly city/community?)
6) 협업 Cross-sectoral collaboration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및 협의체간 협동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한 방법 (What mechanisms have you/are you planning to put in place to facilitate collaborat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across sectors?)
7)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참여 Participation on the 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이 되기 위한 동기 (What motivated your city/community to become a member of the Global Network?)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공헌 방법 (How do you hope to contribute to the Global Network?)

3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WHO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개선 및 점검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수립된 3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작성된 실행계획 추진 결과와 모니터링 자체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향후 5개년 실행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다음 멤버십 갱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멤버십 갱신 단계에서는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와 실행계획 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 성과를 재평가하고, GNAFCC 멤버십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WHO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5년 주기로 멤버십을 갱신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병환, 임병우. (2011).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선자. (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서울연구원.
- 김수영, 진재문, 문경주. (2015).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삶의 조건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1-24.
- 김슬옹. (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 맥락, 담론, 의미. 서울: 한국 학술정보
- 김진. (2010).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전략.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김후자, 김정남. (2001).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Focus group method)에 대한 고찰. 간호와 보건과학, 5(1), 1-21.
- 노윤주. (2021).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한 경찰청 도서관 역할에 관한 연구: PEST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8(2), 251-276.
- 민효상, 최성은. (202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2), 749-760.
- 박은희. (2016). 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초연구.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박훈, 정재용. (2011). 성장관리형 도심활성화 방안의 이론과 적용연구: 시흥시를 중심으로: 시흥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8), 251-262.
- 배경열, 조정근, 유병주. (2021). PEST-7S-SWOT 방법론을 적용한 지상작전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AI)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6), 67-74.
- 서종건, 전병혜. (2023).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추진. 용인:용인시정연구원
- 서종건. (2022).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초연구. 용인:용인시정연구원.
- 선미정, 유정원, 정명희, 유혜선. (2024). 남양주시 공급량 적정성 분석 및 현안진단 연구. 남양주:남양주복지재단
- 세종특별자치시. (2019). 세종형 고령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 이동현, 황영우, 이은진. (2012). 부산시 노인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민홍, 이재정. (2011).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이승열. (2020.04.16.). [고령친화도시가 궁금해] ⑤ 일본, 초고령사회의 고령친화정책은? 백뉴스. https://www.100news.kr/7172#google_vignette.
- 이영안, 박미경, 이홍재. (2019).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23-52.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복지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정, 김수영, 이민홍. (2018).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기 노인복지실행계획(2019~2023).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 이재정. (2016). 부산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 사례 및 한국 고령친화네트워크 구축전

- 략.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
- 장안서, 정운태, 김정화, 서보람, 최지선, 박석환. (2021). 세종시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정경희. (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68, 102-112.
-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 (2015).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3).
- 정은하, 송인주, 황혜신. (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
- 정은하.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15년) 실행계획 평가.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
- 조희준, 이성노. (2015). PEST 분석 모델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독립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5(5), 837-849.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9).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 황혜신, 정은하, 송인주. (2015). 서울시고령친화도시 제2기 (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서울:서울복지재단.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Alley, D., Liebig, P., Pynoos, J., Banerjee, T., & Choi, I. H. (2007). Creating elder-friendly communities: preparations for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9(1-2), 1-18.
- Morgan, D. L., Krueger, R. A., & King, J. A. (1998). Planning focus groups. Sage.

<홈페이지>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portal/mainPage.do>)
- 경기도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 (<https://www.gplib.kr/index.do>)
- 경기주택공사 (<https://www.gh.or.kr/gh/index.do>)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law.go.kr/>)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index/index.do>)
- 남양주시청 (<https://www.nyj.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kdca.go.kr/chs/index.do>)
-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

발 행 : 2025년 04월

발행처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 원 : 남양주시 복지재단
